

協平國舞

'94/2 통권 31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協 平 國 舞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차례 **한국평협회보** 94/2 통권 제 31 호

〈표지 설명〉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1960년대 전경
사진제공 : 명동대성당
표지제자 강주희(요한)
내용 컷 김안나(안나)

4	책 머리에	이관진 회장
6	주교님의 가르침 2천년대를 향한 한국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	정진석 주교
10	사순절 교황 담화 가정은 사랑에 봉사하고 사랑은 가정에 봉사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13	삶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15	가정은 하느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성사	
주교회의 가정사목 위원회 성명		
16	비윤리 · 반생명 · 비인간적 행위 평신도의 날 포스터	
18	'93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19	새 복음화와 도덕성 회복	
23	전국 평협 소식	
27	성명서	
28	각 교구 평협소식	
각 교구 평협회장 유임 · 신임 소감		
38	서울 · 원주 · 인천 · 광주	
42	역대 한국 평협 회장 평협의 어제 · 오늘	
43	26년 연륜의 한국평협	우재철
46	국제 교류 국제 회의 참가기	한홍순부회장
49	평협과 평신도 전국 평협의 역할과 위상	류덕희

	평신도 논단	
51	평신도 사도직과 레지오 마리아	조궁양
54	행동하는 신앙으로 건강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주역	황의욱
57	교회 발전과 평신도의 소명	이창훈
	'94 한국교회	
60	94년 한국 교회의 전망	이길재
	단체를 찾아서	
6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수 필	
66	천당으로 보내는 편지	최 현
	문예작품 공모 당선작	
71	성인부 시·시조.....	최효근
72	성인부 수 필	김금자/전태련
78	성인부 동 화.....	박남희
82	성인부 논 문	금주연/전윤표
108	청소년부 수 필.....	박진희
110	어린이부 작 문.....	김효진
112	어린이부 동 시.....	배철균
113	전국평협 사업계획 대 실적 비교표	
122	한국 평협 임원	
123	교구 평협 회장	
124	전국 평협 단체	

‘순간’을 잘 사는 信徒像



李寬鎭(베드로)
한국평협 회장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재의 수요일 제2독서에서 사도 성 바울로가 일깨워 준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6장 2절 서두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에게 자비를 베풀만한 때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 주었다”(이사 49.8)고 하신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이뤄진 화해를 통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화해의 결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뽑으신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뤄져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로는 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평신도들에게도 중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이 구절은 현 순간을 헛되게 지나쳐 버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복음의 생활화를 실천수범하는 현대의 영성가 끼아라 루빅같은 이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시기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려드는 사람처럼 피상적으로 행동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가져서도 안된다”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때에는 그 은총을 겸손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은총의 기회 또한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평신도 사도직에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이 모든 은총을 무의미하게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이 순간을 잘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현세질서의 복음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 따르면 현세질서를 구성하는 가정과 사회와 직업, 문화, 경제, 예술, 정치 등 인간생활과

행동의 모든 분야는 인간이 그의 최후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각각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 사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가치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곧 현세질서의 복음화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 그 분야에서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1994년 국제 가정의 해를 맞아 전국평협으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회보 속간호를 펴내면서 교회법 분야의 권위이시고 한국 주교회의 부의장이시며 평신도 주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석 주교님의 옥고 “2천년대를 향한 한국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신게 됐음을 보람있게 여깁니다.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선포, 현세질서의 복음화, 평신도의 고유임무, 성직자의 금지사항, 평신도 사도직, 가정성화, 경제와 사회생활, 정치, 복음화 실천,

빛과 소금에 이르는 여러 항목에 걸쳐 알아보기 쉽게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글을 많이 참고하셔서 오늘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영신생활에서 확고한 진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 듣도록 해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분의 음성은 도덕성 회복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 평협이 벌이고 있는 우리 상품 쓰기, 우리 농산물 먹기, 교회 이기주의 타파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거나 응답을 다음 기회로 미룸으로써 성실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시작할 것인가?
 지금 곧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지체하지 마시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라고 가타리나
 성녀는 말했다.

2천년대를 향한 한국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



정진석 주교 / 주교회의 부의장
평신도 주교위원회 위원장
청주 교구장

교회의 사명

1.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5항)

복음의 선포

2.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해 줌으로써 수행된다. 이것은 주로 복음의 전파와 성사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분야는 주로 성직자들이 담당하고 평신도들은 협조자의 임무를 담

당한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6항)

3. 성직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모든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중 주요한 임무이다. (교회법 제 756조).

전 세계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과 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주교회의와 각 주교는 자기의 담당 지역에 대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교회법 제 756조).

사제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부제들도 주교 및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할 소임이 있다. (교회법 제 757조).

수도자들은 축성생활로써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복음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교회법 제 758조)

4.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신자생활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다. 복음선포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와 사제들에 협력하도록 소명 받을 수도 있다. (교회법 제759조, 교회헌장 33항)

현세질서의 복음화

5. 현세질서를 바로잡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는 교회의 사명은 창조의 목적과 현세 사물 사용에 관한 원리를 밝혀주고,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하도록 윤리적 내지 영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수행된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7항)
6. 현세 질서를 구성하는 가정, 사회, 직업, 문화, 경제, 예술, 정치 등 인간 생활과 행동의 모든 분야는 인간이 그의 최후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 사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가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곧 현세 질서의 복음화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7항)

평신도의 고유 임무

7.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쇄신하는 일은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명이다. 평신도들은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과 함께 살면서 현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써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할 처지에 있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7항)

8.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조직 등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충만케 하는 사회 분야의 사도직은 성직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평신도들의 독점적 책임이요, 의무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13항)

이처럼 평신도 사도직 활동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은 신자들의 사회 성화 운동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7항)

성직자의 금지 사항

9. 세속적 성격은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이다. 성직자들도 때로는 세속적 직업까지 가지고 세속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특수한 성소 때문에 그들은 본래 주로 성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진복팔단의 정신이 아니어서 세상을 변형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봉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 신분으로써 탁월하게 증명한다. (교회헌장 31항).
10. 성직자나 수도자는 그 신분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삼가야 한다. (교회법 제 285조-제289조, 제672조).

성직자나 수도자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일반인의 재산관리와 결산보고의 의무가 있는 세속 직무를 맡지 못한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11.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

고 활동케 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33항, 교회법 제225조).

12. 평신도들의 복음선포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표현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속의 공통 조건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과 특수한 효과를 얻게 된다. (교회헌장 35항).
13. 세속에 살면서 세속일에 과묵히 있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이므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며 누룩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2항).

가정성화

14. 개인의 구원과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구원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현대 사목헌장 47항).
가정은 보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와 같다. 그 생명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다정한 마음의 일치와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실 줄 모르는 협력이 요구된다. (현대 사목헌장 52항).
15. 만물의 창조주께서 결혼생활을 인간사회의 원천과 기초로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당신 은총으로 큰 성사의 품위를 갖추게 하셨으므로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나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자 부부는 자신들 상호간에 있어서나 자녀나 그밖의 다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은총의 협조자요, 신앙의 증인들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11항)
16.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평신도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임무가 있다. (교회법 제 226조).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부모는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법 제 226조, 제798조).
17. 신자 부부는 협력하여 국가 법률 제정에 있어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 자녀 교육에 관한 의무와 권리, 가정의 품위와 정당한 자주성을 수호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행정에 있어서는 주택, 자녀 교육, 노동조건, 사회보장, 납세 등에 관하여 가정의 요망을 고려하며, 이주 규제에 있어서는 가정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11항).

경제와 사회생활

18. 경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온전한 사명과 전 사회의 공동선이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인간이 경제 사회 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목헌장 63항).
19.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노동은 경제 생활의 다른 요소들 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있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현대 사목헌장 67항)

정 치

20.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된다.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보다 완전하고 보다 쉽게 자기 완성에 도달 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의 모든 조건들의 총체를 뜻한다. (현대 사목현장 26항, 74항).
21. 가톨릭 신자들은 애국심과 국민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으로 참된 공동선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국법이 윤리원칙과 공동선에 일치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에 정통하고 신앙과 교리 지식을 충분히 갖춘 가톨릭 신자들은 올바른 정치 활동을 통하여, 공동선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14항).

복음화 실천

22. 교황 성하께서는 구세주 강생 2천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때에 세계 복음화가 18%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복음화 운동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

하신다. 신자들이 개인으로서나 신자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신자 공동체로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말과 모범적 생활로써 복음을 증거하기를 항상 강조하신다. 우리나라도 2천년대에는 복음화 비율이 적어도 세계 평균에 도달하도록 모든 신자들이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빛과 소금

23. 성직자와 수도자는 가정생활이나 국가 공무원 봉직이나 정치 활동이나 기업경영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평신도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신자들 중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통하여, 국가 공무원들은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기업인들은 경제 활동을 통하여, 문화인들과 사회 운동가들은 각각 전문분야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온 겨레의 윤리도덕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재건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된 조국에서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는 복지사회가 건설 되도록 매진할 것이다.

남에게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루카 6.38

가정은 사랑에 봉사하고 사랑은 가정에 봉사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94년 사순절 담화문—

그리스도 안에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 사순절은 주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시기로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참회의 여정을 시작하고 신앙, 희망, 사랑 안에 성장하며 하느님께서 원하신 계약에 더 가까이 다가가 은총과 화해를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에 봉사하고 사랑은 가정에 봉사합니다”라는 주제를 금년 사순절 담화의 주제로 채택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행동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회 생활과 각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치인 사랑과 연대성을 가정 안에 불러 일으키는 누룩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 무엇보다 저는 모든 가정이 교회와 세계 안에서 수행해야 할 그들의 사명감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열어주시면서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 오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의 원천에서 길어올린 이 사랑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며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형제적 삶 곧 사랑과 연대성을 지닌 삶을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첫째 장소요 으뜸가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고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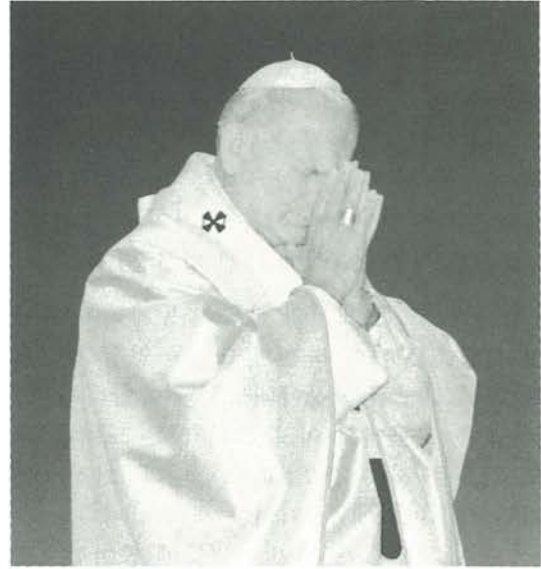
위치를 지닌 타인들에 대한 존중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의력을 배우게 되며 공동생활은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나눔의 삶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는 공유함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과 모범을 통하여 연대정신을 일깨워주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이겨내고 인격과 절제심을 기르기 위하여 유아시절부터 극기와 단식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운 것은 평생동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3. 특히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든 가정들은 사촌 엘리사벳을 서둘러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도한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1사무 9, 16)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호소에 귀먹은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로 그 수가 증가해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빈곤은 그들이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전인류의 모습을 파괴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대성과 정의의 응답을 호소하는 하나의 스캔들입니다.

4. 오늘날 우리는 가정들이 안고 있는 빈곤과 고통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이 가난의 한계를 넘어 자신들과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능력을 상실했으며 자녀들의 정신과 육체의 정상적 성장을 도와주고 정규 교육을 받게 할 기본 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가정들은 적절한 주택을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확대해 가는 실업 사태는 사회의 모든 분야와 전반 주민들의 생활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에게 떠맡겨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들을 거리에 떠돌아 다니게 하고 마약과 알코올 남용 그리고 폭력에 의존하게 합니다. 부부와 가정들은 점점 더 정신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문제들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태는 이제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들이 비인도적인 조건 속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거나 수치스러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신체 장애인들은 제정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으며 스스로 쓸데 없는 존재들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인종, 문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나라에서 배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5. 세계적 수준에 달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침묵을 지키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해 온 비참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처한 가정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협력을 함으로써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저는 가장 가난한 가정들



이 그들의 책임, 특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나눔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단지 가난하고 약하거나 혹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안됩니다. 상이성이야말로 오히려 풍요로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없는 이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구세주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특혜를 받은 이들”(니짜의 성 그레고리오, 「빈자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형제 자매들과 가진 바를 나누어 갖기를 요청합니다. 물질적 유대는 형제적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가는 표현입니다. 이는 각 인간에게 생존과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부는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땅의 풍요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나뭇에 대하여」 VIII, 33).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시대에는 쓰고 남은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

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이웃과 나누어 갖고 꼭 필요한 물건만을 지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는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삼가기로 합시다. “부자들의 단식은 가난한 이들의 잔치가 됩니다” (대 레오 성인 ; 단식에 대한 강론 20 참조).

6. 저는 모든 교구와 본당 공동체들이 가난한 가정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구책을 찾아내도록 권유합니다. 이미 많은 교구에서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사목 기관들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기관들에 참여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가정들을 도와야 하는 절박한 의무에 사람들의 주의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빈곤, 특히 가정 빈곤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정부 지도자들과 기업주들이 경제 개발 정책에 있어서 요청되는 변화와 이 분야에 주어진 그들의 의무

를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가정들은 단지 경제적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노동으로 기본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한 유엔의 창안을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세계 가정의 해의 행사에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맙시다. 하느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사순절 동안 가정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들이 실천한 애덕 행위들이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많은 형제 중에 만아들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사도적 강복을 기꺼이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삶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94 가정의 해를 앞두고 1993년 6월 5일과 6일, 로마에서는 세계 80여개국에서 모인 ‘새가정’들이 축제를 가진 바 있다. 다음은 6월 6일 삼위일체 대축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집전한 장엄미사에서 행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과 그 전날 로마 시내 에우르체육관에서 거행된 「93패밀리 페스트」에 비디오로 보낸 교황 메시지 내용이다.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계약의 하느님께서 에집트와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 내신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새 가정’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며, ‘임금이신 하느님의 제관’들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길을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은 역사상 늘 존재해 온 공동체이며, 첫 번째 공동체 즉 다른 모든 인간 공동체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또한 항상 새롭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만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사랑에 의해, 새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은 새롭습니다. 실로 부부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갱신하며 새로운 생활을 해 갑니다.

장엄 미사를 집전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모세의 말로써, 나의 애정어린 인사를 대신합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인간들 사이를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 안에서 자신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인간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통공 안에서, 남·여(...)의 혼인 계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성삼위 축일을 여러분의 ‘교황 알현’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삼위일체이며 인간 가정의 거룩한 모형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며 항상 새로운 ‘새 가정’의 모형 이십니다. 새 가정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우며, 서로 새로운 것을 내어 주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서로 내어 주는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를 낳습니다. 남자와 여자간의 교류를 낳으며, 그것은 사람들간의 새로운 교류를 낳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간에 교류가 그것입니다.

‘새 가정’들, 휘폴라레 운동의 커다란 경험에서 태어난 여러분에게 나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증거하라고 요청합니다.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느님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을 그

토록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신”하느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자신을 주시고, 이같이 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을 접목시켜 주신 하느님을.

유엔은 1994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새 가정이 이같은 삶을 증거해 보인다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각 인간 가정에 대해 지니는 크고 큰 사랑으로 이 사업에 동참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가정들의 이 국제 대회 기간 중에, 모든 크리스찬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 특별한 소식들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해의 성가정 축일로부터 이듬해 성가정 축일까지를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가정의 해로 기념할 것입니다.(...)

세계 가정의 해는 물론 이 자연적 조직체의 기본적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정을 보다 잘 알고 존중할 때, 우리는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기본 세포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보다 형제적이며 결속된 세계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교회의, 주교, 교구 및 본당 공동체, 운동, 그룹과 단체, 특히 가정 사목에 매일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 은총의 순간을 받아드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같이 하여 이 기간에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 제도이며 삶과 사랑의 교류인 가정은 오늘날 믿는 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나눔과 교류와 너그러움, 그리고 사랑이 싹터나며, 출산과 교육이라는 고귀한 과업이 수행됩니다. 인간의 인류 공동체의 운명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를 더’ 내어 주도록 요청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적 제도 위에 내려주신

존귀한 성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에 충실하며, 진정 마음을 열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가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자 난관에 부딪혀있는 가정들, 그리하여 크리스찬 공동체의 기도와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정들과 결속되어 그들 가까이 있음을 보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동은 가정의 사도직을 수행하려 노력함으로써 바로 이같은 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실로 ‘새 가정’은 하나의 생활 목표이며 크리스찬 가정은 이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되었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사라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온순히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 아래 가정들이 쇄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가정’ 여러분!

이토록 많은 가정들이 이곳에 와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 가득히 인사하며, 오늘 삼위일체 축일에 여러분과 함께 미사 성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여러분의 사도적 활동을 계속해 가도록 고무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스스로를 내 맡기시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살아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이를 전하고 증거하며, 회개와 나눔의 생활을 하십시오.

‘새 가정’ 여러분은 부부의 성소, 부모의 성소의 위대함을 오늘의 세계 모든 가정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땅 위의 곳곳에 많은 나

라, 백성, 문화 앞에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고유한 증거, 즉 가정들이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새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새로운 가정들에 대한 하느님의, 교회의, 사랑의 살아

있는 표지가 되십시오(...).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은 하느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성사

—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을 줍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 체육관에 모인 이 가정들, 휘콜라레 가정들을 볼 때, 동시에 나는 전세계의 모든 대륙에 있는 다른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휘콜라레의 가정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을 봅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정들을 바라 보지만 그들만이 아니고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전통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류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이것이 곧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러합니다. 인간 가정은 거룩한 성서에 깊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초로 수록 되었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영신적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가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가정이 이루어지며, 이 가정이 짝더 자라고 성숙하여 인간을 위한 하나의 세포, 생명과 사랑의 세포가 됩니다. 인간은 사랑함으

로써 지상에서의 행복을 찾으며, 가정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나의 말을 듣게 되는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바 그 소명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쁘게 다른 부부들, 다른 가정들, 세상의 모든 가정들 앞에서 사도가 되며, 살아있는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로마에 모여와 가정의 해를 앞당겨 기념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가정들, 교회와 세상의 모든 가정들에 대한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같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 부부들,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젊은이,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복을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비윤리 · 반생명 · 비인간적 행위’

파킨슨病환자에
태아의 腦세포이식
과연 윤리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가

1. 1993년 12월 24일, 서울대학병원은 낙태시킬 태아의 뇌를 이용, 배양하여 12년간 파킨슨병을 앓아 오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 세포의 일부가,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사지가 굳는 증상을 보이는 진행성 질환으로 뇌 질환 중 난치병에 해당합니다. 동아일보 12월 25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번 환자의 수술에 사용된 3개의 뇌세포 조직은 10주가 채 되지 않은 태아의 것입니다. 자연 유산 등으로 일단 산모의 몸에서 분리된 ‘낙태된 태아’의 뇌는 이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시킬 태아’의 뇌를 이용한 것입니다. 병원측은 모자보건법의 낙태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낙태시킬 태아’의 뇌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낙태아의 뇌를 이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술팀이 이러한 낙태아의 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며, 서울대학병원측도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낙태아를 구하느라 수술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는 이 문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2. 인간의 생명권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을 이루고 배자(胚子)가 되며, 그 후에는 태아, 신생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그리고 노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배자는 어떤 주어진 순간의 유일하고 동일한 순간의 형태학적 표현일 뿐이다”(장 프랑수아 마테이 교수, 1993년 10월 12일자 <르 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단연해 왔습니다. “배자는 수태의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

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 처럼 가능한 한 그 상태로 보호받고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4항). 임신 후 10주가 되면 태아의 발가락과 손가락이 이미 다 형성됩니다. 태아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무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우생학적, 의학적, 윤리적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태아들을 낙태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모자보건법은 유신체제하에서 비상 국회의가 통과시킨 법으로서, 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법을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법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해서 법이 법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자연법과 하느님의 법을 침범하지 않아야 법다운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생명에 대한 법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보장되어야 할 존엄성과 보호의 귀결로서, 법은 그러한 권리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온갖 행위들에 대해 적절한 형사상의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어떠한 인간 생명도, 비록 그것이 배자 단계에 있더라도 실험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명백히 금해야 할 것이다”(생명의 선물, 제3장).

3. 모자의 보건을 위한 법이 아니라 태아 살인범으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낙태시킬 태아의 뇌를 이용한 이식 행위가 법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것은 의료진의 의료 윤리에 크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 옳지 못한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유전 공학이나 의료 행위에도 엄연히 지켜야 할 윤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 특히 의학과 생물학은 각종 질병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거대한 목표와 인류의 고통을 덜어 줄

숭고한 의무를 지니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고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치 못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악이고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그 신체의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는 일입니다. 유전공학이나 의료 행위가 이러한 의료 윤리와 자연법의 한계를 침범하게 될 때, 즉 인간의 존엄성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법률적 규범들 위에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은 사악한 도구로 변하게 되므로, 이는 용납도 허용도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태어난 이’의 난치병 치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엄연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정말 모자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 14 조는 인공 유산 허용한계 규정이지 태아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는 허용 규정은 아닙니다. 태아의 뇌를 추출하여 임상 치료의 재료로 사용함은 하느님의 법과 정의와 도덕률에 위배되는 살인 행위입니다. 인간 배자나 태아는 단지 하나의 핏덩어리가 아니고, 더욱이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엄연한 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파킨슨병 환자에 태아의 뇌세포 이식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명예를 걸고 서약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임신 순간부터 하나의 독립 인격체로서 태아를 존중해 주시길 거듭 호소합니다.

1994. 1.31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 위원회

제 26 회

천주교

평신도사의날

■ 도덕성 회복

- 새 복음화
- 환경보존 • 생명존중
- 우리 상품 쓰기
- 사랑의 공동체 • 가정

1993.11.14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새 복음화와 도덕성 회복

— 참 신앙인으로 더 잘 살기 위하여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스물 여섯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창립 스물 다섯 돌을 지내는 은경축(銀慶祝)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오늘 매우 뜻깊은 해의 뜻깊은 날을 자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평신도는 매일 매일 이 세상 한 가운데 복음을 살도록 불리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예수님의 선교사로 불리워졌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하신 그분 말씀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고린1, 9, 16)이라고 한 사도 바울로의 열정(熱情)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일부 새로 태어난 교회들 중에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거나 때로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再福音化)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선교의 결의를 새롭게 할 것”(평신도 그리스도인 34)을 당부하십니다.

새로운 복음화란 성령의 새로운 열정에 힘입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리는 새로

운 선포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분의 사업과 복음을 알리되 스승으로서 보다는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모든 일의 근본에는 형제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자가 될 사람도 그러한 직책에 앞서 한 형제이며, 스승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마태 23, 8)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겸손과 애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지능면에서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감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해, 특히 보잘 것 없는 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그러한 재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마태 25, 29)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길을 걷고 고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충실하냐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각자 나름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느님의 선물

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저 돌려드려야 합니다. 처음 받은 만큼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불려서 기워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의 활동무대는 자연히 세속이기 마련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0월에 반포한 자신의 열 번째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의와 정치적 부패가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철저한 쇄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쇄신을 통해서만이 정의와 연대, 정직과 개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교황님은 살인과 집단학살, 낙태, 안락사와 자살, 지체절단, 육체적 정신적 고문, 굴욕스러운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 우리 현실에서도 깊이 헤아려 봐야 할 문제입니다.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돼 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이를 바로잡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문화의 쇠퇴와 환경의 파괴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점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학 교수 한 분이 대학사회의 위기를 고발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교정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하는가 하면 잔디밭에서 두 시간

이상 큰 소리로 떠들고 술타령을 하다가 타이르는 교수에게 “교수면 다냐”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럴 엄두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힐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복도에 까지 침을 뱉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환경을 더럽히고 폭력을 일삼는가 하면 차선위반, 불법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찌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제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직분을 다한다면 적어도 인재(人災) 즉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우리는 대체로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 본성을 엿볼 수 있어서 서글픈 심정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일수록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남의 몫까지 차지하면서 염치없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돼야 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00명에 일곱사람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 7%만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됐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지, 돌아 볼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긴요한 것은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이 아닌 존경을 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상(長上)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정직한 심성의 회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뒤진 것은 몇 해 안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몇 십년이 가도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한시 바빠 바른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회심(悔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

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특히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바르게 살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길입니다. 환경을 보전(保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상품 우리가 쓰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의 평신도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1994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정의 해'인 동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가정이 곧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항상 새로운 사랑이 꽃피게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파괴된 가정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분당 평



협 또는 사목회 대표와 교구 단위 단체 대표들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결성하고, 군종교구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구평협과 전국 규모 단체 대표들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조직해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평협은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운동을 비롯해서 도시와 농촌 교회간의 자매결연 운동, 신자 재교육과 봉사자 양성을 위한 신앙대학 운영, 그리고 신뢰회복운동 차원에서 '내 탓이오'와 '우리상품쓰기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 교구 평협에서 벌여 온 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미사 중 전국 각 본당에

서 실시하는 특별헌금은 이와 같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좋은 뜻으로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는 이에께서는 그분께서 넘치도록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 2독서의 끝부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강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1테살 5,5~6)

아멘.

1993. 11. 14.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고통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가성 굳은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다. 민족들 간에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게 되기 바란다.

전국 평협 소식

▣ 한국평협 쌀개방과 관련 성명서 발표 ▣

한 국평협은 12월 12일 농촌의 존폐가 걸려 있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사태를 맞기까지 무사안일로 일관해온 정부당국은 오늘의 국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천주교 3백만 신자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한국평협은 「오늘 우리의 농촌은 우루과이 파고로 반만년 동안 경작해온 논과 밭이 뒤덮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존폐의 위협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데 농정 전반의 개혁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평협은 쌀만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현 정부가 쌀개방 불가피로 돌변하는 등 우루과이 협상이 시작된 7년 동안 역대정권과 현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실책을 규탄하고 「경제발전에 희생되고 쌀시장 개방으로 급속한 붕괴 위협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데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루과이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한국평협은 이제야말로 「우리 상품과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애용해야 할 절박한 시기」라고 천명했다.

이어 한국평협은 「쌀시장 개방으로 죽어가는 농촌과 농민들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나의 아픔」이라며 연대성을 표시하고 「우리 교회가 가르쳐 온 사랑의 정신으로 수입농산물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은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국평협은 또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오늘의 이 고통과 위기를 희망으로 변화시킬수 있도록 3백만 신자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호소했다. (성명서 쪽)



■ 김수환추기경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미사 강론 ■

김 수환추기경은 12월 12일 6백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 「오늘의 한국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쌀개방 여하에 앞서 보다 깊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농촌에 대한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 시점을 농촌을 살려가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김추기경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쌀개방과 사수, 어느 것이 더 국익에 유익한지 지극히 균형있는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

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수환추기경은 이날 12시 명동대성당에서 서울 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고향이자 살과 피와 같은 농촌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는 농촌의 심각성을 깨닫고 농촌을 살려가는데 온 힘을 쏟아 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추기경은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지 말고 쌀을 우리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 한국민의 특수한 정서와 정치, 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 쌀 문제를 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추기경은 「무엇보다 농촌이 이토록 피해를 겪어가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농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업중심의 경제 일변도가 가져온 농촌의 피해를 예로들고 「지금이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기인 만큼 정부는 올바른 정책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추기경은 이러한 어려움도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간다면 10년후 반드시 우리 농촌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가톨릭신자들은 「우리의 이웃인 농민들의 고초를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제 3 차 상임위원회 ■

한 국평협은 1993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를 9월 4일부터 이틀간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열고 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해 온 우리상품쓰기운동의 활성화와 평신도주일이 평신도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기로 했다.

전국 14개 교구중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9개교구와 전국단체 등 40여명 상임위원들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범교구적으로 추진해 왔던 우리상품쓰기운동이 신자들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이 운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교구 평협에서 적극 나서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평신도주일이 평협에서 작성한 평신도주일 강론만을 낭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평신도주일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신도주일을 평신도의 축제날로 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평협은 평신도주일의 전례가 평신도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신도의 날 전례 개정안을 가을 주교회의 총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평신도의 날 전례는 연중 제33주일 전례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평신도주일과는 관계 없이 전례가 이뤄져 왔을뿐 아니라 주일전례와 강론이 맞지 않아 평신도주일이 평신도들에겐 별다른 의미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한국평협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된 우리상품쓰기 전국 특산물바자회는 현재 각 교구에서 별도로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바자회 개최를 미루기로 하고 그 대신 각 교구 평협차원에서 도농직거래와 우리농산물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한국평협은 회의에 앞서 원주교구 사무처장 박호영 신부의 강의를 비롯, 김인성 지도신부와 원주교구 평협 김한기 지도신부의 인사말을 들었으며 박신부는 이날 강의에서 『각 교구 평협임원들은 종의 의식이 없을 때 전 신자들을 대표하는 평협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종의 마음으로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관진 한국평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상품쓰기운동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만족할 만한 궤도에 오르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하고 『남은 기간동안 이 운동이 전 신자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아 생활실천운동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각 교구 평협임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평신도 주일 미사전례문 제정 건의 회신 ■

주 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 강우일주교, 총무 : 정의철신부)는 최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건의한 평신도주일 미사 전례문 제정에 대해 주일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서중 하나를 평신도의 날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한국평협이 요청해 온 미사전례문중 기도와 독서, 복음 등에 관한 미사전례문 제정의 요청에 대해 9월말 전체회의를 열고 전례 전체를 바꾸는 것은 전례정신에 어긋 난다고 보고 이같은 결과를 한국평협에 전달했다.

한국평협은 지난 가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평신도주일에 적합한 미사전례문을 제정하면 더욱 뜻있는 평신도주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요지의 건의문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 한국평협 우리상품쓰기 문예작품 시상식 ▣

한 국평협은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공모한 「우리상품쓰기 운동 문예작품 시상식」을 12월 4일 오후 4시 30분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평협 이관진회장과 김인성지도신부를 비롯한 평협 관계자 30여명과 성인부 수필부문 당선자로 선정된 김금자(마리아, 45세, 대전교구 오룡동본당)씨 등 10명의 수상자가 참가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을 갖게 된 문예작품 공모는 한국평협이 지난해 부터 평신도 차원의 생활실천 운동으로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운동이 실생활로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 문예작품을 공모한바 있다.



우리상품쓰기 운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심사평, 회장 및 지도신부인사로 이어진 이날 시상식에서 이관진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우리상품쓰기 운동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하고 「문예작품 공모가 우리상품쓰기 운동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총 1백 21편의 응모작품을 시인 신달자씨와 아동문학

가 김원석씨 등 가톨릭 문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0편의 당선작을 선정한 이날 시상식에는 각 지방교구에서 참가한 수상자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고 기뻐했다.

성인부 논문부문에 「우리밀과 유기농산물 먹이운동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가작을 수상한 금주연(30세, 아우구스띠노, 안동교구 휴천본당)씨는 「한국평협이 주최한 문예작품공모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우리상품과 농산물쓰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시다

오늘 우리 농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가 반만년을 경작해온 우리의 논과 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존재의 위협앞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전국 천주교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들의 다짐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정부 당국은 『쌀 개방 불가피』로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이래 7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대 정권은 무엇을 했으며 현정부는 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해온 정부당국은 오늘의 국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경제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렀고 오늘 쌀 수입 개방으로 말미암아 더욱 급속한 붕괴의 위협을 맞게 되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경제가 살아야만 나라가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2년 전부터 『우리 상품 우리가 쓰고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자』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아나간다면 우리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상품과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애용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모든 산업체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우리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산품과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현재의 농정 전반을 개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농촌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친척이요 이웃들입니다.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은 또한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곧 연대의식이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또 더불어 사는 길이고 함께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농촌이 지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고통과 위기를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하나로 모읍시다. 하느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1993년 12월 12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각 교구 평협소식

▣ 서울평협 정기총회 ▣

서울평협은 1월 22일 오후 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 24 회 정기총회를 개최, 「도덕성회복 운동」과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을 금년도 주요 활동목표로 삼기로 하는 한편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대교구 주교와 김인성 석하고 각 본 단체장, 평협 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 임기만료된 새 회장을 만장 했다.



총대리 김옥균 지도신부가 배 당 총회장과 임원 등 1백 72 가운데 개최된 서 서울평협은 회장에 이관진 일치로 재선출



감사에는 이택용씨와 남중화씨 등 현 감사가 유임됐으며 부회장단은 어관진회장에게 위임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평협 주요 활동지표로 「도덕성회복을 통한 복음화」를 설정하고 ▲2천년대 복음화 운동의 준비 ▲우리상품 쓰기의 생활화 ▲도덕성회복 운동의 전개 ▲평

신도 지도자 자질 함양 ▲평협 활성화 등의 중점사업을 확정했으며 새해 예산안으로 총 1억 7천 2백여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평협운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평신도 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자문위원을 신설하고 전례분과, 선교분과, 국제협력분과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하는 등 회칙을 일부 개정했다.

김옥균주교는 이날 총회에 앞서 집전한 미사강론에서 「한국교회가 생동적인 것은 평신도들의 활동이 눈부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103위 시성식 10주년이 되는 올해가 교회의 쇄신과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평신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관진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천년대 복음화를 향해 모든 평신도들이 합심하고 매진해야 할때 중임을 맡게됐다」고 말하고 「각 본당 총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평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평협 상임위, 우리상품쓰기 운동과 도덕성회복에 중점 두는 한해로 설정 ■

서울평협은 1월 8일 오후 3시 평협회의실에서 94년도 1차 상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목표를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의 생활화 및 도덕성회복 운동으로 설정했다.

이관진 회장과 김인성 지도신부를 비롯 30여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UR로 존폐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과 농산물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올 한해를 이 운동의 생활화에 더욱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평협은 지나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 사상으로 점차 붕괴되고 있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덕성회복 운동을 우리상품쓰기 운동과 함께 평협차원의 주요 운동으로 적극 전개키로 하고 ▲생명존중 운동 ▲환경보전 운동 ▲윤리 도덕 회복운동 ▲우리상품쓰기 운동 ▲농촌살리기 지원운동 등의 도덕성회복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9월초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각국의 평신도 지도자 1백여명이 참가하는 「아시아평신도 회의」를 안양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 서울평협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 자료집 발간 ■

서울평협 청소년분과(위원장=강수길)는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청소년분과에서 실시한 연수자료를 한데 모은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수내용을 자료로 묶어 청소년 교육 및 사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으로 총 5백 페이지 분량에 청소년 관련 각종 자료와 강의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청소년분과 연수 자료집은 그동안의 청소년분과 연수시 강의됐던 유명 강사진의 강의 내용은 물론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성교육, 불법 영화와 비디오 등 영상매체, 자녀와의 대화문제 등도 함께 다룸으로써 본당 청소년 사목의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평협 청소년분과 강수길위원장은 「청소년 분과를 맡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지식이나 자료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고 말하고 「이 자료집이 청소년교육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평협 주관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미사 개최 ▣

서울평협은 12월 12일 낮 12시 명동대성당에서 쌀개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김수환추기경 주례, 김인성지도신부 서울교구 사무처장 염수정신부, 가톨릭농민회 김승오신부 등이 공동 집전한 이날 특별기도회는 특별미사와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니다」라는 한국평협 이관진회장의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으며 평협관계자 등 1천 5백여명의 신자들이 참석, 쌀개방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개최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는 지난달 김추기경이 각본당과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수환추기경은 이날 특별기도회 강론에서 「지금이야말로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데 뜻을 합하고 힘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쌀개방을 계기로 경제성장의 희생물이 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기회로 삼아가자」고 역설했다.

김수환추기경은 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자각과 의식」이라며 「우리 신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자」고 강조했다.

지난 2년동안 평협차원의 생활실천운동으로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을 범교구적으로 전개해 왔던 한국평협 이관진회장은 이날 특별 기도회에서 「우리농촌 우리가 살립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존폐의 위협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데 농정 전반의 개혁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라」고 촉구했다.

이관진회장은 이어 「우리의 농촌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렀고 쌀개방으

로 더욱 급속한 붕괴 위협에 처하게 됐다」며 「우리교회가 가르쳐 온 사랑의 정신으로 수입 농산물이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는 사랑을 적극 실천, 오늘의 난국 해결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KBS 제1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영된 가운데 봉헌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미사」는 쌀 개방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농촌과 시름에 잠긴 농민을 살려야 한다는 전 신자들의 연대의식이 결집된 것으로 3백만 평신도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청주교구는 12월 7일 교구내 16개 농촌본당 사제단의 이름으로 「정부의 쌀 수입 개방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 수입 개방은 식량안보를 미국에 내 맡기는 것이 되고 농민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수입쌀이 국민주권을 좌우하기 때문에 절대로 쌀 개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교구도 쌀 개방과 관련해 12월 19일 31개 본당에서 각 본당별로 「쌀개방 반대 및 나라를 위한 기도미사」를 봉헌하고 한국평협과 가톨릭농민회서 발표한 성명서를 토대로 강론을 실시하는등 농촌을 지키기 위한 쌀개방 반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추기경 영명축하행사 ▣

서울대교구장 김수환추기경의 영명축하행사가 12월 27일 오전 11시 명동대성당에서 김수환추기경과 강우일주교 등을 비롯 교구사제 2백여명과 이관진 서울평협회장 등 7백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교구 송년 감사 미사를 겸해 축하미사와 축하식, 축하연 등의 순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김수환추기경은 축하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광주교구 평협 정기총회 ▣

광주교구 평협은 제 23 차 정기총회를 1월 8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새 회장에 김영진(토마스)씨를 선임했다. 94년도 사업(활동)보고와 94년도 예산안 확정, 임원개편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전임 평협회장인 강재봉(안드레아)씨가 평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구장 공로패를 받았다.

▣ 광주교구 평협 추계연수회 ▣

광주교구 평협(회장=강재봉)은 각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 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 명상의 집에서 추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광주 가톨릭대학장 김민수 신부의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와 광주 봉선동본당 주임 조철현신부의 「현대 신앙의 요체」등의 강의를 있었으며 교구 평협을 위한 교구장 윤궁희대주교 집전의 미사가 있었다.



▣ 전주교구 평협 도농 직거래상 개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황의옥)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동안 전주 전동성당 마당에서 「도시 농촌 사랑나눔잔치」를 마련, 농촌 본당의 공동 생산물과 신



자 농민들의 개별생산물을 도시 소비자라 직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 소비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원주 평협 정기총회 ▣

원 주교구 평협은 1월 22일 ~ 23일 양일간 황성 성 도밍고 수녀원에서 9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호와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평협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평협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산업 정책 때문에 많은 교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개방으로 80%이상의 교구민이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강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구내 5개지구 평협 대표들과 교구평협 산하 19개 단체 임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예산심의와 사업계획 확정을 비롯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에서 탈피,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평신도활동 여건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주교구 평협은 새 임원진을 개편하고 신임회장에



이계열(아우구스띠노, 원주 태



장동분당)씨를 선출했다.

▣ 제주교구 평협 주관, 93 신앙대회 ▣



제 주교구 93신앙대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교구장 김창렬주교 및 교구사제단과 교구내 15개본당 7천여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사랑과 기쁨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교구장 사목방침인 직접선교의 해를 맞아 지난 10개월 동안의 선교 결과를 마무리하고 제주교구민의 일치와 선교의

지를 재다짐하기 위해 거행됐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박선희, 지도=현상보신부)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가톨릭성령쇄신 봉사자 위원회장 김택구신부의 대회장 성수축성에 이어 제주교구 성령쇄신 봉사자들의 찬미운동으로 신앙대회의 열기를 북돋웠다.

이날 행사는 이어 로사리오 기도와 특별초청 강사인 미국인 아일린 초지여사의 강연, 미사 봉헌, 성체강복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신앙대회는 전체적으로 한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자들간의 우정이 어우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진행됐다.

■ 대전교구 평협 주최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



대 전교구평협 (회장=오만진, 지도=유홍식)이 주최한 제 2 회 대전교구장기 본당대항 테니스대회가 10월 10일 오전 9시 대전시 문화동 소재 국방과학 연구소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됐다. 각 본당에서 선발된 78개팀 1백 54명이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부부조 등 4개 부로 나눠 개최된 이날 테니스대회는 열띤 응원전과 함께 본당간의 화합을 이루는 장으로 이어졌는데 본당 종합 우승은 탄방동 본당이 차지했다.

■ 인천평협 정기총회 ■

인 천교구 평협은 연수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11월 20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 인천교구 평신도 신문을 제작키로 하는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10대 회장에 김건일(요한.송의 동본당)씨를 선출했다.

이날 평협연수 및 총회는 교구장 나길모주교가 집전한 미사를 시작으로 총대리 오경환신부의 강의, 회장단 선출 등으로 진행됐는데 교구 현안문제인 신학교 건립을 제 1 과제로 삼고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 인천교구 평협은 본당간의 간격을 좁히고 정보교환을 통한 본당 활성화를 위해 「인천교구 평신도신문」을 제작키로 하고 ▲자기성서 갖고 다니기 ▲가정에 가훈

만들어 달기 ▲생명운동 환경보전 운동 등의 평신도 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인천교구 평협 「가톨릭인천」신문창간 ■

인 천교구 평협(회장=김건일)은 1월 2일 교구와 본당은 물론 본당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월간「가톨릭인천」을 창간했다.

11월 20일 개최된 평협 정기총회에서 평신도신문을 제작하기로 결정한바 있는 평협은 앞으로 「가톨릭인천」신문을 본당간의 벽을 허물고 26만 인천교구 평신도를 사랑으로 이끄는 가교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톨릭인천」은 매월초 타블로이드판형 8면으로 발행될 계획이다.



■ 마산교구 평협회보 창간 ■

마 산교구 평협(회장=손춘수) 회보가 2월 5일 창간됐다.

마산교구 평협은 교구설립 27주년을 맞아 교구내 모든 신자들과 사도직 단체들간의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협의 소식지로 「마산 평협」을 창간, 평협활성화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에 창간된 평협회보는 총 62페이지 분량의 연간 회보로 평신도 논단을 비롯 「마산교구와 순교자」를 특집으로 꾸며지며 나눔마당, 평협화보, 임원명단, 각 사도직단체 현황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청주교구 정기총회 ▣

청주교구 각 본당 평협회장 및 단체장들은 1월 8일~9일 청주 가톨릭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수겸 총회를 개최, 성경을 갖고 쓰는데 매진하는 한편 생명과 환경운동에 관한 세미나를 적극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겸 총회는 「94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새 회장단 선출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평협회장에는 박종구(베드로) 현 회장이 취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회출판물 한가지씩 정기구독 및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이 크게 강조되는 한편 효율적인 신자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청주교구 찬미예수의 날 행사 ▣

성가 발표회로 도농신자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청주교구 「찬미예수의 날」행사가 청주교구 평협 주최로 11월 4일 공군사관학교 성무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교구내 24개본당 1천 4백여명이 참석, 정성껏 준비한 성가곡 2곡씩을 발표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본당간의 우의를 다진 이날 행사는 참가팀 모두가 수준높은 성가곡을 한껏 자랑해 본당 성가대가 전체적으로 질적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경연대회가 아닌 성가발표회 형식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주교좌 본당인 내덕2동

본당을 비롯한 청주시내 14개 본당이 시외 10개 본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등 믿음과 화합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다.

▣ 대구대교구 성 이윤일 축제 ▣

대 대구대교구는 1월 21일 오후 7시 계산동성당에서 교구의 제2주보인 이윤일성인의 삶과 정신을 본받기 위한 「성 이윤일 축제」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교구장 이문희대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국악 반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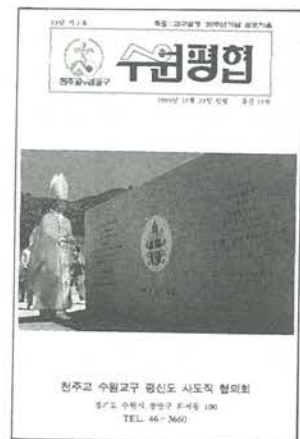


맞춰 봉헌된 축하미와 계산문화관에서 마련된 축하연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문희대주교는 이날 강론을 통해 「자신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복음 말씀처럼 이 세상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윤일성인으로부터 똑똑히 배웠다」며 「성인의 모범을 우리시대에 함께 살기를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 수원교구 설정 30주년 ▣

수 원교구는 11월 4일 교구 설정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고등동 성당에서 갖고 그 역사적 고찰을 통한 미래 방향을 조명했다.



각교구·각본당 의사소통에 역점



金 建 一 / 인천평협 회장

“나이와 연륜에 걸맞지 않게 중책을 맡아 과분하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각 본당의 평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2월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 10대 평협 회장으로 선출된 金建一씨(50·요한)는 “다함께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 단위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각 본당의 신자들에게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본당의 평협 임원들과 진지한 대화의장을 자주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일치가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金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 10대 평협은 출

범 즉시 평신도 신문 제작에 착수, 최근〈가톨릭 인천〉(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교구 안팎의 소식을 담아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각 본당 평협간에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교구의 최대 관심사는 신학교 건립입니다. 지난 12월에 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른 사업이지만 신자들의 관심을 결집해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金회장은 “M.E, 꾸르실료등 평신도 운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인천”이라며 현재와 같은 신자들의 호응도라면 신학교 건립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평신도 위상의 문제는 교회내 권한이나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즉 파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위상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임기동안 파견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 10대 평협은 올해 ‘가정의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라 25만 신자와 함께 전개할 운동으로 △자기성서 갖고 다니기 △각 가정 가훈 만들기 등 4개 항목을 정했다. 또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교구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

치과 의사인 金회장은 바쁜 병원 업무에도 불구하고 승의동본당 평협회장을 11년간(81~92년) 연임했는가 하면 전국 M.E 대표부부(89~91년)를 맡는 등 교회일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는 일꾼이다.

쓰러져가는 광산·농촌 回生 앞장



李 啓 烈 / 원주평협 회장

“교구내 총 신자수가 4만 5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교세이지만 신자들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일 열린 원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된 **李啓烈**씨(53·아우구스띠노)는 “광산촌과 농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이지역의 교구민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취임인사를 대신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촌이나 폐광이 속출하고 있는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다는 **李**회장은 “이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도시와 농촌 본당 간의 농산물 직거래,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우리 농·축산물 애용운동, 협동농업·주말농장 등을 적극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그는 “탄광촌의 폐기물과 농촌지역의 농약문제 등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당지역 신자들의 실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5개로 구분되어 있는 지구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내실있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평협의 운영방침을 밝힌 그는 “지구별 평협의 발전은 신자들간의 결속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소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3월 12일이면 선종 1주년을 맞이하는 고(故) **池學淳**주교의 기념사업에 대해 **李**회장은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池**주교님의 뜻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원주교구 신자의 의무”라며 이를 위해 사진집 발간, 자료전시관 마련 등의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벌여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진광 고등학교 교감인 **李**회장은 현재 주간을 맡고 있는 원주교구 꾸르실료 활동을 지난 20여년간 해왔으며 원주 환경운동 연합 부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우리商品 애용 · 도덕성 회복 역점



李寬鎭 / 서울평협 회장

“저를 다시 뽑아주신 것은 한번 더 열심히 하라는 채적으로 알고,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협의 위상의 교회 안팎으로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새회장으로 재선된 李寬鎭 회장(베드로)은 이같이 유 임 소감을 밝히면서 그러나 평협의 활성화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만큼 각 단체장과 본당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협조를 호소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상품 쓰기와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은 교육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봄

니다. 이 운동은 우리 농촌과 경제의 사활이 달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운동으로 계속 전개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명절을 맞아 선물을 교환할 때 만이라도 반드시 우리 상품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도덕성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李회장은 특히 가정의 쇠신을 제일차적인 목표로 설정, 중점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참다운 윤리 도덕의 회복은 개인의 쇠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인의 쇠신은 바로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그 시간에 가족이 함께 성서 묵상을 하며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 하기 등을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103위 순교성인 시성 10주년임을 상기시킨 李회장은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시성식 때의 그 열정과 다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며 시성식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한 행사를 교구와 의논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신도 재교육·전교활동에 심혈



金永鎭 / 광주평협 회장

광주 대교구는 현재 각 지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목포, 여수, 중남부 지역등으로 세분, 지역 연합회를 구성해 놓고 이들과 많은 사항을 협의하면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자들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金회장은 또한 작금의 수질오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회에서 환경에 대해 침묵할 수 있겠느냐며 교구내 신자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평화방송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광주대 교구 신자들이 오래 전부터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 방송국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노력이 무산됐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평화방송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대정부 차

원의 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움직임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목포대학교 교수(교육학)인 金永鎭 회장은 교육부 대학교육 심의위원을 역임하는 한편 농성동분당 사목회장을 맡고 있다.

“평신도들의 재교육과 전교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80년대 사회 참여 타인지 그후 한동안 가톨릭 신앙 열기가 뜨거웠는데 요즘 냉담자 증가, 입교자 둔화현상 등 신앙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앞으로 신심 고취와 전교 활동에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1월 8일 열린 광주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金永鎭씨(63·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신도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신심 고취와 전교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냉담자 증가의 문제는 사제뿐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당면해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은 어떤 한 단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만큼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의 민주적인 운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평화신문 인터뷰」에서)

역대 한국 평협 회장



류 홍 열(라우렌시오)
초대 전국회장
<1968. 7. ~ 1972. 7.>



이 창 복(로베르토)
2대 전국회장
<1972. 8. ~ 1974. 8.>



김 기 선(요셉)
3대 전국회장
<1974. 9. ~ 1980. 9.>



최 상 선(마르띠노)
4대 전국회장
<1980. 9. ~ 1982. 2.>



엄 익 채(요한)
5대 전국회장
<1982. 2. ~ 1986. 2.>



한 응 회(암브로시오)
6대 전국회장
<1986. 2. ~ 1988. 4.>



박 정 훈(요한)
7·8대 전국회장
<1988. 2. ~ 1992. 1.>



이 관 진(베드로)
9대 전국회장
<1992. 1. ~ >

26년 연륜의 한국평협

우재철 / 가톨릭신문기자

3백만 평신도들의 구심체로 지난 사반세기 동안 복음선포와 현세질서의 성화라는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을 일깨우는데 헌신해 왔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적협의회가 지난해 발족 25주년의 은경축을 지내고 26년째 해를 맞았다.

정신운동인 신뢰회복운동과 생명운동인 낙태반대운동에 이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우리 상품(농산물)쓰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생활실천운동을 벌여왔던 평협은 그동안 많은 신자들의 공감속에 착실히 자기역량을 다져왔다.

평협에서 범교회적으로 벌이고 있는 우리 상품쓰기운동은 크게 변화되고 있는 평협운동의 한 단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세속에 사는 평신도들이 자기자신부터 먼저 극기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신뢰회복의 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8년 주교회의의 승인을 거쳐 태동한 한국평협은 현재 15개 전 교구에 결성된 교구평협과 25개 전국단체로 구성돼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신자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우기 평협은 한국교회의 독특한 창설 배경이 말해주듯 막중하게 부여된 평신도사도적의 사명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이땅에 뿌려진 복음의 싹을 가꾸는데 보이지 않는 자

양분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평협활동의 일대 분수령이 될 평협 창설은 경축을 맞은 한국평협은 또한 성년으로서 짊어져야 할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청되고 있으며 그동안 교회일치는 물론 교구 평협간의 정보교환과 유대, 평신도 재교육, 민족복음화 사명, 국제 평신도 단체와의 교류등을 통해 이러한 역할들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

평협은 그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89년도에 신뢰회복운동인 내탓이오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교회는 물론 타종파와 사회단체, 언론매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사회저변에 깔린 불신과 이기주의를 불식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공산품을 애용함으로써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우리상품(농산물) 쓰기운동은 내탓이오 운동의 정신





운동에 이은 생활실천운동으로 승화돼 신자들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꿔 놓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실제로 우리상품쓰기운동이 시작된 이후 신자들이 양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아직도 외제 물품을 쓰고 있느냐」는 인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평협은 우리상품쓰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가기 위해 평협내에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상품쓰기의 당위성을 계도해 나가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예작품 공모에 나서 많은 신자 비신자들의 동참을 얻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와 지방교구와의 격차로 야기되는 교구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안으로 도농간 직거래를 주선한 한국평협은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각 교구 평협의 조직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9대 회장에 취임한 이관진회장은 상임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각 지방을 돌며 개최하고 수시로 지방 교구를 방문, 교구간 화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평협은 다양화 되고 개방적인 국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가을 동아

시아 평신도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한국교회 평신도의 위상을 한차원 높은 위치로 격상시킨바 있다.

평협은 이러한 외적 활동과 병행,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 3백만 신자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가톨릭대상을 11회째 시상하고 있으며 종파를 초월한 사랑 정의 문화부문의 가톨릭 대상자 발굴을 통해 우리의 전도된 가치관을 확립해 가려는 노력을 계속 펼쳐가고 있다.

또한 평협은 다양해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신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협내에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협회보 발간과 우리상품쓰기 문예공모, 각종 연수회 등도 각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되고 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정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평협은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사회복지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평협의 활동은 무엇보다 지난 25년 동안 쌓아온 선배 평신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중 81년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와 84년도의 2백주년 행사 및 103위 시성식, 89년 서울성체대회에 평협이 기획과 재정, 행

사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협활동의 중흥기를 앞당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낙태가 인간생명 파괴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전개된 낙태반대 서명운동에 평협이 주체적으로 참가해 최단시간 1백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평협의 역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협은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나친 성직자 의존성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복음화 노력 부족, 협력자로서가 아닌 수직적인 성직자와의 관계등에서는 아직도 해결 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다.

평협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신도 지도자의 발굴, 육성을 통해 평신도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성직자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는 일도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냉담자 증가와 신자증가율 감소문제 또한 성직자의 몫으로만



머 넘길 것이 아니라 「현세질서 성화」의 사명을 띤 평신도 스스로 증거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먼저 반성해 볼 문제이다.

무엇보다 평협은 평신도를 대하는 성직자들의 태도가 수직적 명령 하달식에서 협력자로서의 바람직한 관계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평신도의 자기역량을 기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평신도를 대하는 성직자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6년 연륜의 한국평협이 제2의 탄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내가 곧 교회」라는 3백만 평신도들의 자각과 성직자들의 배려가 함께 요청된다.



국제 회의 참가기 ICCM-UNUM OMNES



한 홍 순(토마스)
평협 부회장

필자는 1993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의 타가이타이에서 개최된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atholic Men-UNUM OMNES) 운영 위원회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ICCM-UNUM OMNES)는 평신도들의 국제협력을 통해 복음화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1948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20여개 국의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운영 위원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안톤 루슬리 회장(스위스), 빈센트 갈라허 부회장(아일랜드), 프리드리히 불프람 총무(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 대표 등 14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한국은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 특별 초청으로 참석하

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ICCM-UNUM OMNES)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다루고 난 다음 각 대륙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나누었다. 필자는 주최 측의 특별 요청으로 한국 교회와 평신도 활동의 근황을 설명하고 특히 평협이 전개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 우리 상품쓰기 운동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신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일치를 촉진하기 위한 반성의 원리요 판단 기준이자 행동 지침인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아시아 상황에서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필리핀의 프란치스코 클라베 주교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1994년 「세계 가정의 해」에 대비하여 필리핀의 「아시아 사회 연구소」의 소장인 미나 라미네스 박사의 「아시아 문화들에서의 가정 문제」에 대한 강연이다. 독일의 지그프리트 쉰델레 신부의 「교회의 시각에서 본 가정의 의의와 남성의 책임」에 대한 강연을 듣고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에 대해 심도있는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회의 내용을 종합하며 「세계 가정의 해」를 맞는 가톨릭 남성 평신도들의 결의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필리핀의 평신도 단체인 카파티랑 고펜부르사(Kapatirang Gomb-

urza)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부자촌과 빈민 지역을 끌고루 보여 주며 극심한 빈부 격차의 실상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교회와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필리핀 교회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참석자들은 필리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방문하여 간부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우선

필리핀 평협은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세계 가정의 해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필리핀 실정에 맞게 소책자로 엮어 평신도 교육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필리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커다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94년 국제 「세계 가정의 해」에 즈음한 성명서

「세계 가정의 해」는 우리 가톨릭 남성들에게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특히 아내와 자녀, 교회와 사회와의 우리의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훌륭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가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성(父性)이란 생활에서의 참으로 값진 목표요 임무이며 남성의 인격 발전에 크게 기여 한다는 점이 더욱 인식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의미에 있어서 부성과 모성은 모두 하느님의 영원한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370> 참조)

더 나아가 우리는 부부간의 협력에 대한,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인격 발전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수태된 순간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합니다. 「인간의 생명」 회칙이 반포된지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명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언제나 곳곳하게 「생명의 편」에서 온 교회와 합치하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필리핀 교회가 책임성있는 부모 구실을 「지지」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의 문화」를 위해 투신하고 계심에 대해, 특히 1993년 여름 테베에서 개최된 「세계 젊은이의 날」에 하신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회칙 「진리의 광채」의 주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특히 남자 어린이는 물론 여자 어린이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권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로서의, 신앙을 대대로 전달하는 천부적 원천으로서의 가정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 사제직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또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지지」와 따라서 「가정 위주의 정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숙하고 충실히 개발된 인격의 견지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의 견지에서 남성은 자기의 공통 사제직을 충실히 인식하는 보다 나은 남성, 보다 나은 남편, 보다 나은 아버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가정을 올바로 강조하는 정책들을 지원하는 시민 사회의 보다 나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배움과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적 단체들은 유익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가이타이 회의에 즈음하여 우리는 특히 가정을 항상 중시해 온 아시아 문화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이 문화의 첫번째 사자(使者)가 되도록 함은 남성 교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가난한 가정들과의 연대성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있는 신자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이두 추세에 처하여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강력히 투신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UNUM OMNES)의 모든 회원 단체들에게

- 세계 가정의 해를 활용하여 남성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준비 및 후속 교육을 위한 노력을 새로이 할 것.
- 특별 행사들과 출판물들을 통해 가정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
- 「가정 위주 정치」를 주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1993년 11월 22일

필리핀 타가이타이에서

국제 가톨릭 남성 협의회 운영위원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합니다.

~~~~~ 루카 16.10

## 전국 평협의 역할과 위상



류 덕 희  
한국평협 사무국장  
(서울평협 사무총장)

“  
고통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가장 굳은 마음까  
지도 녹일 수 있다. 민족들 간에 두려움이 아  
니고 사랑이 지배하게 되기 바란다.  
”

3백만 평신도의 구심체인 전국 평협이 발  
족된지 25주년이 지났습니다. 1968년에 태동  
한 평협은 초창기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제 15개 전교구에 결성된 교구 평협과 23개  
전국 단체로 구성돼 교회는 물론 명실상부한  
사회단체의 하나로써 공익활동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9년 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를 회복시  
키기 위한 신뢰회복의 일환인 “내 탓이오” 운  
동을 전개해 우리들 신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  
가 되었고 지금도 스티커를 요구하는 곳이 있  
을 정도로 널리 홍보된 운동이었습니다. 또  
1992년도에는 깨어있는 평신도의 역할을 주  
창하며 “우리상품쓰기”와 “우리농산물먹기”  
정신 운동을 전개해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정과 직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실천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 상당한 성  
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극단적인 이  
기주의의 팽배와 사회 저변에 깔린 불신을 불  
식시키기 위한 평협의 운동은 우리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 타종파와 사회단체, 언  
론매체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 정화운동 차원  
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선조들이 스스로 우리 신앙을  
받아들여서 오늘의 교회를 발전시켜 왔듯이  
그들의 자랑스런 후예인 평신도들은 평협 운

동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성직자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고 앞으로는 평신도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활동으로 한국의 복음화와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제2의 평협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전국평협에서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항들은 교구마다의 특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결정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새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협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어떤 사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구가 있는 반면 소극적인 교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구가 다르고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

은 단일 민족이라는 긍지를 갖고 교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곧 국가에 이바지 한다는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평협의 일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평협에서 하는 일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발전에만 머문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사회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체 각교구에서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신앙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협 사업에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힘을 모으고 국민의식을 개혁시키는데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평신도 사도직과 레지오 마리아



조 금 양 (마태오)  
한국평협 부회장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단장

레지오 마리아(성모님의 군대)가 창설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21년 성모 성탄축일(9월 8일) 전날인 9월 7일의 일입니다. 이날 저녁 8시에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프랭크 더프씨를 비롯한 14명의 신자들이 토허 신부님의 지도 아래 성모상을 모신 제대를 차려 놓고 회합을 가진 것이 오늘날 레지오 마리아 단체가 생기게 된 시초였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모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업은 윤락녀들을 선도하는 것으로서 더블린 시내 슬럼가를 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많은 활동과 확장으로 로마 교황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레지오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씨가 로마를 방문하여 비오 11세 교황 성하께 보고 드렸으며 레지오 마리아 단체가 첫 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레지오 마리아는 전세계로 급속히 확장 보급되어 교회에서 가장 큰 활동 단체가 되었습니다.

레지오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을 성교회로 인도하는 선교 활동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대한 봉사 활동이 주된 활동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가 정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또한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미사는 물론 모든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기도와 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활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레지오 교본에서는 “활동은 형태를 달리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레지오 활동입니다. 재속 수도 단체라고 할 만큼 기도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 단체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창설자 프랭크 더프씨가 평신도 입회인으로 초청되어 세계 각처에서 모인 주교님들 앞에서 소개 되었습니다. 이때 평신도의 역할에 관해 공감한 주교님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의회가 끝난 후 이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강조되기 시작한 평신도 사도직은 실제로 1921년에 이미 레지오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평신도 사도직의 의무가 주어졌으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조직을 통해 신자의 본분인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단순한 신심 단체가 아니고 활동 단체입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함으로써 성화되고, 또한 신앙으로 뜨거워진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성화시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과 레지오 마리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의 필요성이 오늘날 만큼 절실한 때는 없습니다. 많은 외인들과 타종교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국민의 신자 비율은 7.5%에 불과하며, 세례받은 신자 중에서도 신앙 생활을 온전히 계속하고 있는 신자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평신도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면서 교회에 산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

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부조리가 만연되고 향락과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짧습니다. 허송 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에 보화를 쌓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 대전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아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을 수월하게 완수하는 데 지름길인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 되어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레지오 안에서 성취해야 합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말합니다. 사제직은 미사에 참여하여 사제와 한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며, 예언직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며, 왕직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종처럼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님의 정신입니다.

첫째, 성모님의 겸손한 덕을 본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어떠한 사람과도 대화의 문을 열어 줍니다. 겸손은 레지오 단원의 향기입니다.

둘째, 성모님의 순명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일생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순명

없이 신자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천사와 같은 온유함을 지니신 성모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넷째, 천상의 지혜를 지니신 성모님을 닮는 것입니다. 지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신 성모님의 희생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모님은 한없이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동정이셨고 하느님만을 생각하신 한 점 티없이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순결한 마음을 본받아 순수하고 소담한 봉사활동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겠습니다.

일곱째, 성모님은 영웅적인 인내심으로 가시밭길 같은 역경을 잘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하며, 봉사 활동이 제아무런 어렵더라도 인내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덟째, 성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홉째, 성모님의 깊은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성모님의 일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아홉 가지 성모님의 정신으로 레지오 활동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화와 세상의 성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오래 고인 물은 썩지만 계속 흐르는 물은 생명수가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우리는 수동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하나의 그리스도간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 행동하는 신앙으로 건강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주역



황 의 욱(파로)  
전주교구 평협회장

“반성하고 명시하고 발언하는 일만으로는 정말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행동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할 시간이 다 지난 것은 아니지만 행동하고 실천할 시간이 극적 절박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활동을 창안해 내야 할 순간이며 성령의 과감성과 교회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는 활동을 창안할 순간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갖고 행동이 없음을 꾸짖는 말씀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성을 창출할 때임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 강령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92년도 한국 종교년감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4천 9백만이 넘게 기록되었음을 봅니다. 4천 2백만 실제인구에 종교인구는 이처럼 불려져 있습니다.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 신자수를 확대 포장한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 이기주의, 교육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 각종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의 편을 갈라 놓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신자수가 3백만을 넘었다는 통계입니다. 그것도 20년 사이에 거의 2백만 신자가 늘어날 만큼 엄청난 신자 증가를 보였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독재와 항거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끝없는 투쟁 속에서 일반 민중들에게 천주교가 유일한 안식처란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냉담자는 늘고 영세자는 줄고 있다는 걱정스런 통계가 각종 종교지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창설 초기의 온갖 박해와 역경을 이기고 이미 10C초 전에 200주년을 보내면서 거룩한 103위의 성인을 탄생시켰고 종교 올림픽이라 일컫는 제44회 세계성체대회를 훌륭히 치루어 내고 이제 3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이 소중한 때에 왜 늘어나야 할 영세자가 줄고 있으며 냉담자는 늘어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며 또한 최대의 현안 문제이며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 기도 소리는 요란한데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 목주반지를 끼고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는 목주반지 끼고 다니지 말라고 항의를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만원버스에서 어린 학생들이 책가방이 무거워 끄끙거리고 서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은 자리에 앉아서 책가방은 들어 줄 생각도 않고 혼자 목주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구원받고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좋은 학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기복신앙이 만연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한번쯤 상상해 봅시다. 참으로 또 하나 걱정은 우리교회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중산층화 되면서 진정 교회가 챙겨줘야 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교회의 대형화 호화 성전을 신축하는 데만 열심하다 보니 다른 곳엔 소홀한데서

나오는 소리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내에서도 대도시 본당과 시골 본당과 경제적인 큰 격차를 보입니다. 요즘 시골에서 성전하나 신축하려면 거의 본당신부님들이 대도시에 가서서 강론을 통한 도움을 청합니다. 어찌보면 시골 본당은 대도시 본당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농촌 본당 대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10만원 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요즘 피폐화된 농촌을 떠나는 신자가 많아 농촌 본당은 운영이 더욱더 어려워 교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발한 사목활동은 고사하고 본당 운영이 어려워 교구에서 지원을 받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교리교사 절대부족, 성가대는 구성조차 못하는 등 이런 속에서 나눔이란 생각조차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도시 본당은 많은 신자들 때문에 주일 봉헌금과 교무금 등에서 재정적 여유를 갖고 어려운 시골 본당을 더러는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교회 일체감 부족, 봉헌정신 희박, 사회에 대한 무관심, 가톨릭의 첫째 자랑인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뼈아픈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희망을 주려면 첫째는 사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선 평신도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평신도들은 자기 탓보다 사제와 수녀님에 대한 핑계를 많이 합니다. 이제 평신도는 각자 몫을 찾아 구체적인 삶을 통해 시대의 징표로써의 표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구 평협에서는 지난해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몇가지 사업계획을 세워 한해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첫째, 마구 버려지고 있는 수은 건전지(카

메라, 시계, 보청기 등)를 회수하기 위해 수거함을 다량 제작하여 본당과 학교 등에 보내어 큰 수거함 통을 봄으로써 얻는 시각적 캠페인 효과와 많은 양의 수은 건전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경보호 운동을 앞장서야 할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창조 질서 보전 사진 공모전을 개최, 전국에서 출품된 다수의 작품 중에서 30점씩 고발쪽과 자연보전쪽으로 선택하여 원하는 본당을 순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교구 가톨릭센터에서 2주간 사진전을 갖기도 했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내에 조직되어 있는 연구위원들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세미나를 회원 연수와 겸하여 개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넷째, 도시와 농촌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도·농간 사랑나눔 잔치를 개최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거래 가능성을 발견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다섯째, 93년도 주교님 사목교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에서 “선교 수기 공모전 (체험, 성공사례)”을 개최하여 많은 신자들이 응모하여 주교님께서 최종 심사하셔서 우수 작품 2편을 선정하여 전주교구 94년 신년 하례회 때 응모자가 직접 발표를 하는 동안 식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농촌 본당과 도시 본당간의 자매

결연으로 공동체 의식으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수의 일상회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선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희생없이 얻을려는 생각이 바로 종교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요즘은 우리 주위엔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청소년 문제, 마약범람, 환경보전, 우리상품쓰기운동, 도덕재무장운동, 사회복지문제, 정의사회구현 등 또 요즘은 해외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방치할 일만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다고 생존을 위해 찾아온 한 인격체를 국적이 다르다 하여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요. 진정 누가 깊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일까요.

우리는 2천년전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며 200년전 선교초기 박해 시대의 삶도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질서 창조를 위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빌면서 건강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뜨거운 열정으로 삽시다.

십자가는 이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겁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자에게는 달다.

## 교회 발전과 평신도의 소명

이창훈 / 평화신문기자

“자기 능력대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2항의 한 구절이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 평신도는 마땅히 그 능력대로 교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단순한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교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는”이라는 주부(主部)와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술부(述部)로 나눌 수 있다. 주부에는 “자기 능력대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말하자면 교회 발전에 기여하되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술부에도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따라서 교회 발전에 기여하되 ‘자기 능력대로’ 기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단지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지체, 곧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신자로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의 평신도들에게 이

대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선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위상을 살펴보자.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의 활동은 온 세계 교회가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만큼 활발하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토록 발전해 온 것도 다름 아닌 평신도들에 의해서임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신도는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라는 자조의 소리가 바로 평신도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평신도들은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능동적인 주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탄의 소리이다. 동시에 그것은 ‘성직자 중심주의’, ‘성직자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 경향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평신도들은 “자기 능력대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출발점, 즉 ‘교회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은 이제 거의 없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의 발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자의 수가 많아지는 외적인 발전은 물론 신자 공동체의 질적인 성숙, 곧 초기 교회 공동체와 같이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신

비가 더욱 깊어지는 공동체상을 구현하는 일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차고 넘치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데 있다. 신자의 수를 많게 하고 그 신자 공동체의 질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문제의 핵심을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교회의 발전을 '신자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할 때, 그에 대한 일차적 책무는 하느님 백성을 맡아 돌보는 이들, 곧 주교와 그들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있다.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예컨대, 냉담자 회도와 비신자 권면, 성사생활의 능동적 참여, 교회내 각종 사도적 단체 및 신심 단체를 통한 활동 등이 있지만, 교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성직계에 속한 사목자들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병신도'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평신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다. '평신도는 병신도'라는 말이 '반 성직자 중심주의'(anticlericalism)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한, 적어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을 반성하고 그 처방을 제

시하는 일은 바로 성직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교회의 발전을 그 존재 이유와 결부시켜 생각할 때, 곧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평신도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평신도 고유의 특성인 세속성에 기인한다.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와는 달리 오로지 세속 안에서 살면서 세속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표현을 빌자면, 평신도의 일은, "자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교회 헌장 31항)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파견된 것이 교회의 자본을 투입해 시민 사회의 차원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누룩처럼 세상에 침투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에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세속 안에서 생활하는 평신도의 역할이다.

오늘의 한국 평신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능력대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

빨리 지나가 버리는 단 하나의 일생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오직 하나의 비결이 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 ❖❖❖❖❖ ❖❖❖❖❖ ❖❖❖❖❖ ❖❖❖❖❖  
끼아라 루빅

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들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간 1백 50만 이상의 태아 살해를 비롯한 극심한 인명 경시 풍조, 사치 향락을 부추기고 있는 과소비 풍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 오염, 윤리 도덕 의식의 실종 및 부정 부패의 만연,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의 횡포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가치관이 뒤바뀌어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나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평신도 사도직의 세 가지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예언직'의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평신도의 예언자적 사명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세속 사회의 불의를 거슬러 정의를 위해 투신하고 거짓을 거슬러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

한국의 평신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다. 주일을 지키고 교회 모임에 나가고 봉사하는 데는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점에서 열심히 못한 신자들은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면서 부족함을 메우고자 노력한다. 열심히 한 신자들은 '레지오 마리아에 들어 활동해 보시지요' '어디서 하는 성서공부가 좋다는데 함께 가 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일에는 함께 봉사 좀 합시다'라는 식으로 권면하고, 이 말을 듣는 신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또는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요'라는 식으로 답변하곤 한다. 한 마디로 교회 활동에 열심한 것을 곧 신앙 생활에 열심한 것과 결부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의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 참여로 그치고 만다면, 그래서 더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이나 정의를 위한 투신 등이 이차적인 것으로 격하되고 만다면, 그것은 참하느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느님의 모습을 오히려 가려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 평신도들의 교회 생활은 세속 안에서 그 소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과 활력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평신도들은 특히 예언직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의 뒤바뀐 가치 질서가 창조주의 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이 사회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의 평신도들이 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제도적 교회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병신도'라는 자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데 없는 지체"가 되어 그 응분의 샘을 하느님께 치러야 할지 모른다.

## 94년 한국 교회의 전망

李吉宰 / 가톨릭신문기자

94년은 국제화·세계화에 발돋움하려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한국 가톨릭교회에도 그 어느해 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한 해이다.

교계 차원에서 94년은 국제 가정의 해를 맞아 2천년대 복음화의 기초 토대가 될 「가정의 복음화」를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며 대사회적으로는 UR 협상 타결로 파생될 사회 전반의 피폐현상을 상쇄시키는데 전신자가 주력해야 할 긴장된 한 해가 될 조짐이다.

또한 아시아 평신도 국제회의 및 생명수호와 가정성화를 위한 전국대회등 굵직한 대외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국 가톨릭교회의 94년 한 해는 민족복음화의 신기원을 창출하는 중요한 한 해로 점철될 전망이다.

### 94년 사목동향

94년 국제 가정의 해를 맞아 한국가톨릭교회의 사목동향은 「가정의 복음화」에 집중돼 있다.

경제 우선 정책과 물질 지상주의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정과 부부,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교회는 94년을 「가정 복음화」의 원년으로 설정, 생명수호의 첨병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주교회의는 가정 수호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금년 3월 춘계 정기총회에 즈음해 주교단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보다 원활한 가정 사목 증진을 위해 전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주교회의는 또한 10월경 「인간생명수호와 가정성화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 국제 가정의 해 설정 의미와 인간의 생명권 수호를 위한 교회 의지를 홍보할 전망이다.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도 이에 동조 94년을 「도덕성 회복을 통한 복음화 운동의 해」로 설정하고 지도자 자질함양과 평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UR에 따른 농촌대책

94년 한국가톨릭교회는 쌀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민의 대변자로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UR협상 타결과 때를 같이해 농촌 수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 가톨릭교회는 농업회생을 위한 일차사업으로 「천주교 우리 농업 살리기운동 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가톨릭 농민회가 주축이 되고 전국평협과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 하늘 땅 물 벗모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등 교회내 각 단체들의 적극지원아래 추진하고 있는 「천주교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 교육과 광범위한 우리농산물 애용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농민회의 94년 한 해동안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가톨릭농민회의 94년 중점 활동사안은 오는 3월 초순에 열리는 전국대의원 총회에 가

서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나 쌀개방에 당면한 우리 농촌의 현상학과 조건에 맞춰 국제화, 개방화에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농업의 향후 진로를 찾는 방향 설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가톨릭농민회는 94년 한 해를 UR이후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는 농업회생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농촌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조짐이다.

그 내용으로 가톨릭 농민회 대표 김승오신부는 생산자 농민들이 협동 활동을 통해 군·면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농업 발전 모형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김신부는 또한 94년을 농업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 운동을 강화하는 한 해로 설정하고 △ 소비자교육 △ 도농직거래상 확산 △ 우리밀 생산면적 확대와 수송, 가공, 유통사업체계 확립 △ 우리농산물 상표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톨릭 농민회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결코 낙관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동안 해외교회로부터 지원 받아왔던 농민회 활동기금이 올 하반기부터 중단됨에 따라 재정자립을 이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결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의 기반이 다져져야 일련의 농민회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가톨릭농민회는 재정자립을 위해 회관대여, 농산물유통 및 수송사업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교계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요청되고 있다.

## 문화사업

94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문화사업은 그 어느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학술, 출판사업으로는 향후 5년에 걸쳐 새로 편찬될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 간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들 수 있다.

한국 교회사 연구소가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을 맞아 간행했던 기존의 「한국가톨릭대사전」을 만 10년이 지난 금년에 그 내용을 보완, 확대하고 한국 가톨릭의 문화를 다시 한번 집대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 간행사업이 2천년대 복음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금년에 본격화 된다는 것은 교회 밖의 일반인들에게 가톨릭시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미래 복음화의 정신적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사뭇 크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사업과 함께 94년은 한국 가톨릭 미술 문화 토착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톨릭미술가협회는 금년 2월 18일에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한국교회 2백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계 대표와 미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교회미술을 위한 학술세미나」와 미협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성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 건축 양식을 비롯한 한국교회 성 미술의 토착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로 준비되는 이번 학술 세미나와 성물 전시회는 가톨릭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한눈에 진단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입체적인 문화행사로 치뤄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주교회의의 매스컴 위원회와 한국 가톨릭 영상인 협회, 한국 가톨릭신문 출판인 협회,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가 주체가 되어 94년 홍보주일에 맞춰 금년 5월 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개최할 「가톨릭 홍보」행

사는 전통 문화의 복음화와 대중매체를 통한 가톨릭시즘 홍보에 대한 한국교회의 보다 성숙한 위상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권 노동 문제

94년 한국가톨릭교회의 인권운동 동향은 그 사안이 첨예한 만큼 정부 조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전망이다.

계 이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방침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남자 수도회 장상 협의회도 93년 추계 정총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 후원금 운영 사업을 확정해 이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 사업이 전개될 방침이다.

한국 가톨릭 노동운동의 대표주자인 JOC도 94년을 「젊은 노동자의 복음화와 대중운

“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남는 것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

특히 여러 사안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여성성폭력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교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조짐이다.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는 93년도 인권 주일 담화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를 2월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그 결과를 춘계 주교회의에 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분명히 규명할 방침이다.

정평위는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인권 침해 사례를 우려하고 5월 「모자보건법과 형법 제 135조의 위헌 문제를 다룰 학술 세미나」와 함

동의 해」로 설정한 만큼 94년 한 해의 한국 가톨릭 교회의 노동운동 동향은 노동자를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및 대중 문화 창달에 총력을 다할 조짐이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회의 여성 인권보호 활동은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협의회가 93년 추계 총회에서 여성분과를 신설하고 메리놀 수녀회가 성폭력 근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예견된 문제이지만 정신대 문제와 함께 94년 한 해도 각 수녀회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방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어 우리나라와도 수교를 맺은 공산주의 중주국인 소련의 변화야말로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수천만의 푸른군대 회원들에게는 가슴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20세기의 최대 사건이라 할 동구권 및 소련의 변화야말로 죄인들의 회개, 무신론 공산주의 특히 소련의 회개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쳐 온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파티마 성모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은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통한 세계 평화」를 약속하신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생활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1947년 미국 뉴저지주의 헤랄드 골겐몬시놀(당시는 신부)에 의해 만들어진 영신적 기도 단체이다. 평화의 상징이며 교회론적으로 참회를 상징하는 푸른색깔을 선택해 무신론 공산주의의 붉은군대에 대항하는 평화구현의 정신으로 무장된 기도의 십자군이라는 의미에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Blue Army]이라 부른다.

회원들은 제 1 차 세계대전이 절정

에 이른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인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일상생활의 임무에서 요구되는 희생을 매일 바치며 하자 없으신 성모성심께 각자가 스스로 봉헌하고 그 봉헌에 따라 생활하며 이 봉헌의 표시로 가르멜산의 스카폴라(성의)를 착용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매월 첫 토요일에 보속의 정신으로 고백성사와 영성체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주최로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 중 매년 5월 13일과 10월 13일을 전후하여 자유의 다리 앞 임진각 광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갖는 신심단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 매우 애석하다.

성모신심이 유달리 깊은 한국 교회지만 많은 신자들이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레지오 마리아와 혼동하는 등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레지오 마리아」가 있는데 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은 레지오 마리아와 같이 외적인 활동단체로서의 조직체가 아니라 내적인 신심단체로서 파티마 성모님의 요청에 따

라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다른 신심단체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고 들어온 것은 6·25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53년 3월 11일 주한미 해병 1사단 군종신부로 활동하던 마태오 제이 스트롭스키 신부가 미국 파티마 성모상을 한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53년 4월 5일 관문점 인접한 미해병 제1사단본부 광장에서는 스트롭스키 신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도착한 공인된 순례 성모상 제막식이 개최되었으며 이날 수 많은 신자 장병들이 최초로 회원에 가입 서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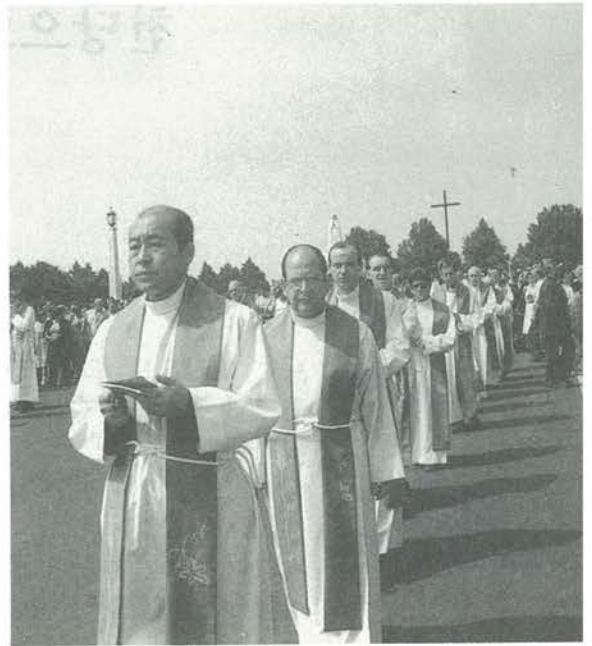
이후 순례 성모상은 최전선 연대, 대대, 중대 순방을 시작으로 1년내 동안 남한 전역 주요 도시에 피난민이 상주한 곳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순례를 통한 신자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많은 회원이 증가되었다.

활발하게 전개되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스트롬스키 신부의 갑작스런 본국으로의 귀국길에 올라 침체되었다가 10년후인 1964년 7월 부산 교구에 선교사로 활동하던 독일인 하안토니오 신부에 의하여 재건되었고, 이때 다시 파티마 성모상을 한국에 들여왔으며 정식으로 한국지부를 설립 전국적으로 메시지 전파에 전력하게 되었다.

66년 5월 31일 부산역 광장에서 2만여명의 신자들이 참여 「부산교구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였고, 67년 11월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세계본부 책임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성모성심께 봉헌하는 예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춘천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약 18만명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안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통한 희생 교속을 드리는 「평회원」과 가까운 친구, 친지, 가족, 이웃 또는 반모임을 통한 소 그룹모임 형태인 「썰」회원, 24시간 교대로 성체가 모셔진 경당이나 성당에서 감실안에 계신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성체회원」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성체조배실이 따로 갖추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성체회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



회원확장, 썰 조직 강화, 본당차원의 첫 토요일 신심미사 확산에 힘쓰고는 있지만 본당내의 어려움과 성직자 수도자님들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정세 및 북한을 비롯한 중국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분명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되는 영신적 싸움인 악의 세력인 붉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지고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고 이 민족전체가 성모성심께 봉헌되는 그날까지 기도와 교속, 희생을 바칠 것을 다짐해 본다.

## 천당으로 보내는 편지



최 현(베드로)  
방송작가

성탄절을 보낸 다음 날 밤이었다. 나는 천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천당의 무재론(無在論)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쓴다는 것에 대해 크게 조소(嘲笑)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대상(對象)을 향해 동경(憧憬)할 자유는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든 천당을 한번쯤은 동경해 본다.

돌아 갈 시간이 가까운 인간일 수록 더욱 더 천당을 향한 동경에 대한 미련이 강렬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천당을 동경한다고 해서 천당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천당을 관리해 오던 그분으로부터의 승락이 있어야만 천당의 출입도 안주(安住)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분만의 절대적 특권이다.

천당에도 천당으로 온 편지를 배달해 주는 우체부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은 양 어깨에 흰 날개를 단 천사들일 것이다.

나는 늦은 밤, 창밖의 거리를 가로질러 달아나는 겨울 바람소리를 듣는

다. 우편번호와 행정구역명과 번지를 곁봉에 적어 넣는다.

하늘나라 그리스도 마을 1번지.

우편기호(번호), + (십자가), 받을 사람, 소산(素山)가시미로님.

그렇다.

이 가시미로님을 세상에서는 시를 쓰던 시인이라고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시인으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가시미로님은 이 세상에 와서 시만 쓰다가 돌아간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는 하느님을 조용히 섬겼다. 하느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자기 생애의 의미의 가치를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데 자기시간을 집약(集約)시켰다.

그런 그를 나는 형님이라고 했으며 선생님이라고도 했고 또 아버지라고도 불렀다.

다시 말해서 가시미로님은 문인(文人)으로서의 형님이었으며 연륜(年輪)으로서의 선생님이었고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대부(代父)님으로 고리가 이어져 있었다.

내가 처음 ㅁ성당에서 베드로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샘물처럼 나즈막히 솟는 잔잔한 감격을 나의

가슴에 안겨 준 분도 이분이다. 부드러운 양손이 나의 머리위에 얹어졌고 나의 두 어깨를 그분은 만져주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를 사랑했다. 마리아 릴케의 눈물의 의미도 그를 통해 알았다.

존경했다.

그의 인간성을,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그리스도 정신을. 교회생활에 있어서의 자세에 뜨거운 감명과 더불어 많은 것을 그로부터 배웠다.

그의 아름다운 시는, 늘 그의 생활과 그의 마음씨의 생김새와 쌍립(雙立)을 이루었다.

그는 나무랄데가 없는 분이였다.

흠이 없었다. 흠이 없다는 그 자체가 흠이기도 할 만큼 선량하고 깨끗했다.

나는 그분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있을 천당을 향해서 천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남들은 회답을 받아 볼 수 없는 편지를 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보낸 천당에의 편지의 회답을 그분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이 확신이 끝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상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회답을 이 땅에서 받아 보지 못한다면 죽은 다음에 있을 내세(來世)에서의 어딘가에서 그의 편지를 아니 회답으로서의 천당에서 쓴 최근의 그의 시라도 받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대부님.

당신이 떠나고 해(1993년)가 바뀌

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살던 이 곳 현세(現世)가 싫어 천당으로 살 곳을 옮기시던 그날. 당신의 선종(善終)의 소식을 받고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사 하실때 책 몇 권과 자그마한 가방이라도 들고 당신이 새로히 살아 갈 천당의 문 앞까지 쫓쫓거리며 뒤 따라 배웅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당신의 마음이 야속히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당신과 있었던 많은 날들을 회상(回想)해 봅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저 노화현상(老化現狀)에서 오는 일종의 흔히 있는 증세이려니 생각했던 것을 나의 철 없던 생각이었던 것으로 당신이 가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맥주 서너병으로 후퇴하시려는 당신을 내일부터는 함께 아주 술을 끊자는 말로 어거지를 부리면서 서너병을 더 나누어 마시던 밤을, 어쩌다가 몇 주(週)쯤 연락이 끊겨서 만나지 못했을 때 전화로라도 통화가 이루어지면 큰 소리로 퍼붓던 궤변적(詭辯的)인 공격,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지고(至高)한 미학(美學)의 개념(概念)으로 잔잔한 물살을 일으켜 주면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궤변적인 나의 전술(戰術)에 으레히 상습적으로 되받아 치며 크게 웃던 웃음을 생각하고 행복보다는 불행 속에서 우매(愚昧)한 희열(喜悅)로 서글픈 시간을 흘려 보냈던 시간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부님.

이 편지의 글속에서 저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아버지(대부를 지칭하는 뜻)가 아들 녀석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없이 버려 둘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식을 대해서도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발 우리 대부님만은 천당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구할거예요.

핫... 핫... 핫...

으레히 말 끝에 꼬리를 달고 웃어대던 “핫... 핫... 핫...”라는 웃음소리는 이제 지는 꽃잎보다 더 애처로운 추억의 파편(破片)으로 변했습니다.

대부님.

천당이 좋습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고서도 집들이 하겠다는 초청의 말씀마저 없는 것을 보니 천당이 생각보다는 좋은 곳이 못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쓸쓸한 곳은 아닙니까?

적어도 대부님 곁에는 만나면 술만 권하는 저 같은 사탄이 있어야만 천당의 삶에도 윤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당신이 계시던 때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시시하게 아직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정기적으로 궤도(軌道)한번 쯤 탈선하지 않고 회전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루합니다. 봄, 여름, 가을 없는 겨울만의 1년이 계속된다든가 아니면 악인없는 착한 사람만이 사는

지구에 변화가 일어난다던가 해야만이 시시하고 지루한 삶을 지금보다는 소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변화의 모색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삶이 시시하고 지루합니다. 죽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을 충동도 느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에 응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성(知性)의 반론(反論)에 굴복하고 맙니다.

대부님.

아직도 문제의 해답을 못풀고 있습니다.

정답(正答)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을 대부님께서 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천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당은 천주가 계시는 곳입니다. 천주곁에 당신이 있기에 문제의 정답을 이제는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태어난 것입니까?

어째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한계(限界)가 표출(表出)된 현상만 가지고 문제의 답을 구한다는 것은 위험한 사고(思考)의 경솔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강이 바라다 보이는 강길을 거닐었습니다.

낡은 목교(木橋)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상하게 메마른 갈잎도 언젠가의

겨울에 보았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오늘 천당으로 보내는 당신에게 향한 편지를 쓰는데 대한 이야기를 내일 짚은 <요셉의 집>에 나가시는 마리아 자매님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님 또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구에 있는 <요셉의 집>은 가난한 분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마리아님은 이곳에 몸 담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헌신(獻身)하고 있는 이 일을 봉사라고 지칭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표현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는 이분의 헌신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반응(拒否反應)의 이유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정신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책무(責務)요, 의무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행이었습니다.

글을 써야 돈을 만져볼 수 있는 나로서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여행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끝에 돌아와 얻은 고통

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대부님은 짐작하시겠습니까?

내가 얻은 고통은 수치의 결론으로 끝난 자기반성의 후회였습니다. 이 후회의 파문은 나의 정신의 영역(領域)을 지배한 채 한 동안 오래오래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님.

생애 처음이며 마지막이 될 여행. 여기서 얻어진 후회.

‘차라리 그만한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왔더라면……’ 하는 것이 후회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님은 지난 날 유럽여행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여비(旅費)로 소외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돌아와 과거에 있었던 그분의 이런 거룩한 행위에 고개를 숙이고 회오(悔悟)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님. 뵙고 싶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답장에는 천당의 이야기를 길게 써 주십시오.

시시하고 지루한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늘나라 그리스도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지옥의 냄새를 잊을 수 있도록 길게 써 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평협,

“우리 상품 우리가  
쓴시다” 문예작품

당선작 발표

## 身土不二

애써가꾼 농산물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남맛을 짜리문을  
고쳐세워 바로 하니  
동구밤 때까지소리  
소식담고 들리네.

사나운 밭길따라  
움뻑 파인 밭이랑에  
길묻는 뜨내기의  
밭걸음이 와 닿고  
호미든 구리빛 손이  
얼싸안고 반기네.

농부의 땀방울이  
촉촉히 배어있는  
낮익은 농산물에  
입맛을 도로 찾고  
주고받는 기쁨속에  
눈시울을 적시네.

## 농부의 정성

### 추곡수매

최효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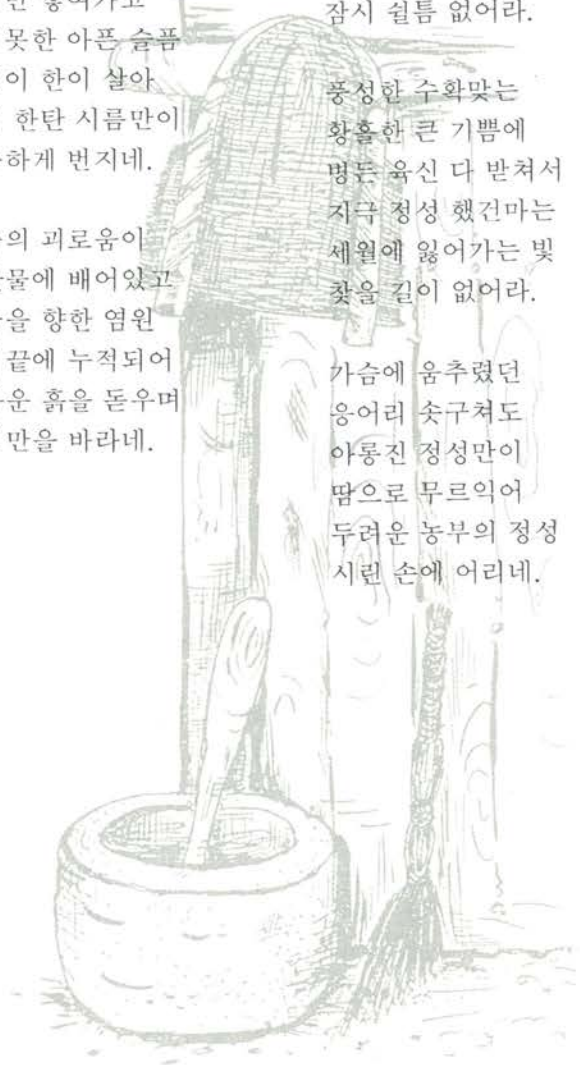
추곡수매 기다림에  
먼지만 쌓여가고  
수매못한 아픈 슬픔  
한덩이 한이 살아  
신세 한탄 시름만이  
아득하게 번지네.

온몸의 괴로움이  
농산물에 배어있고  
하늘을 향한 염원  
호미끝에 누적되어  
차가운 흙을 돌우며  
수매만을 바라네.

소리없이 밀려드는  
외국산 농산물에  
쟁기에 어린 정성  
어둠에 휘감겨도  
분주한 손 바쁜 마음  
잠시 설름 없어라.

풍성한 수확맞는  
황홀한 큰 기쁨에  
명든 육신 다 받쳐서  
지구 정성 했건마는  
세월에 잃어가는 빛  
찾을 길이 없어라.

가슴에 움추렸던  
옹어리 솟구쳐도  
아롱진 정성만이  
땀으로 무르익어  
두려운 농부의 정성  
시린 손에 어리네.



## 詩가 있는 우리 농산물

김금자(마리아)

“야! 냄새 근사한데?”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며 통통튀는 탁구공처럼 한마디 던져 온다. 봄 들판에서 소쿠리에 쭈욱 도려내어 담으면 번져오던 형용할 수 없는 쭈욱내음이 가스불 위의 냄비에서 보글보글 집안가득 끓어 넘치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친정을 지척에 두고 소위 만딸인 나는 안부전화 한 번도 변변히 못하고 산다. 여러번 집에 다녀가라시던 어머니의 전화에 자식된 도리로 친정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화창한 모처럼의 휴일이었다. 아들 녀석 둘은 농구를 하러간다. 도서관에 간다하며 내빼고, 일요일이면 등산을 간다. 결혼식이다 하고 나가던 남편이 그날도 조개잡으러 간다며 1박2일의 행장을 꾸려 떠난 후이니 “에라, 나도 모르겠다”하며 오히려 흥가분하게 집을 나선 것이다. 친정 과수원의 나무들이 스멀스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던 날, 친정집 아카시아 울타리에 들어서 앞산을 보니 진달래가 무릉도원을 무색케 했다. 진달래로 화전을 지지고, 진달래 술을 담그어 술이 맛있게 익던 날, 어머니는 어린 딸 여섯과 아들 둘에게 진달래 술 한모금과 화전을 안주로 주셨었다. 나는 그때 술 한모금에 얼굴이 진달래 꽃잎처럼 발그레하여

방한쪽 구석에서 잠들었던 생각에 지금까지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진달래에 얽힌 추억이 내겐 지금도 재미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어린시절 무엇을 해 주었던가? 핫케익이나 도너츠, 닭튀김, 오징어튀김. 건조하고 느끼한 것들 밖에 없었던것 같다. 내가 자라던 어린 시절엔 음식에 詩가 익고 있었다.

향기 짙은 쫄깃쫄깃한 쭈욱떡이며 오동나무 아래서 여름날 밤, 명석을 깔아 놓고 나무잎새로 언뜻언뜻 보이는 별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먹던 찰옥수수와 감자, 고구마등. 재료와 음식이 모두 시적이던 것들을 먹고 자라서 지금까지도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항상 작가가 되어 있는 착각속에 살고 있다.

내 어머니는 하룻밤도 못자고 떠나갈 딸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며 겨울 이불을 빨아 두기 위해 서두르던 손길을 잠시 미루고 나를 밖으로 이끄신다. 소담하니 여기저기 다부룩한 쭈욱을 도리며, 고기국 보다 더 쭈욱국을 좋아하는 만사위를 위하여, 그 짝인 당신 딸을 더욱 사랑하고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쭈욱내음을 마음껏 바구니에 담고 계시는 것이다. 당신은 수건하나 둘둘 말아 쓰시고 오십이 가까워 오는 딸의

얼굴을 봄벌레 그을릴까봐 커다란 밀 집모자를 꺼내 주시는 모정,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 전체가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다. 봄이 되어 씨를 뿌리면 가을이면 거둬 들일 수 있는 꿈. 그것을 자손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아름다운 인정, 소박하고도 풍성한 그들의 꿈이 또한 하늘님이 주신 가장 시적인 선물인 것 같다.

내 아이들은 꿈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 깨워야 일어나고, 밥상에 앉으면 고프지 않은 배에 어쩔 수 없이 한술 뜨고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로 간다. 그들의 간식은 우유와 빵, 과일, 과자 등. 그들의 꿈은 무엇인가? 그들에겐 시가 없다. 음식조차 때때로 고, 삭막하기 때문이다. 어찌다 어렸을 때 먹던 썩개떡이나 인절미, 고구마, 감자를 찌주면, 한 개나 먹을까? 말라서 꾸들꾸들 해질 무렵 나는 아까워서 먹어 치우곤 한다. 어렸을 때의 추억을 꺼내 먹듯이……. 그래서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게 되고 혹시나 맛있게 먹으려나 하는 기대에 수입식품도 사곤 한다.

내가 사는 구역에 교수 부인이 한분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은 수입품이 훨씬 싸고 맛도 좋으며 평택의 안정리까지 가서 벼라벌 물건들을 구입한다.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구경도 할 겸 동행을 했었는데 아무리 결심이 굳은 사람도 견물생심이라 했던가? 물건을 보니 욕심이 생겨 같이 간 사람들은 조금씩 모두 사게 되었다. 다녀 온 다음날 우연히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자식들에게 우리 것 쓰기에

대한 훈계를 들었다고 고백들을 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다 부끄러웠다. 그 이후 다시는 평택의 미군부대 앞동네에는 가지 않았으며 수입상품은 가능한한 외면하기로 했다. 타이밍이 맞았다고 하나?

그 주의 목요일에 구역회를 했는데 구역회보에는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수입품을 추방하자는 교육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필 수입품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그 부인 차례가 되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읽게 되었다. 구역장인 나에게 그녀는 의도적으로 읽힌 것이 아니냐고 웃으며 팔을 곱게 꼬집었지만 우연한 일치였다. 우리의 모임은 자연스레 수입상품을 멀리하게 됐고 하루에 서너 잔 마시던 커피도 한두 잔으로 줄이게 됐다. 대신 건강에 도움도 되고 맛이 독특한 인삼차나 생강차, 오미자차 등을 마시게 된 것이 그 부인덕이라 해야 할까보다. 보글보글 끓는 썩토장국과 바삭바삭한 썩튀김을 먹으며 남편도 어린시절을 회상하리라. 우리 농산물을 먹던 어린시절과 지금 우리들의 자식이 좋아하는 외국 과일이나 과자, 피자파이 등, 사기만 하면 되는 상품들엔 꿈이 없고 시가 없다. 외제로 차려진 식탁에도 정이 없어 느끼하기만 하다.

언젠가 내 대녀가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부부와 또 다른 부부. 독일에서 10년을 살다 온 그 부부는 제과점에서 사온 타케트빵, 식빵 등과 햄, 베이컨, 과일과 차로 저녁을 내왔다. 촛불을 두개 밝히고, 찻잔도 예쁜 부부잔으로 앞앞이 높아 분위기는 살았지

만 베이컨도 포장만 뜯은 채로이고 햄도 그대로 떨어져 접시에 담겨 있었다. 베이컨은 지져서 기름을 빼자는 나의 제의에 그렇게 했지만 내심 나도 내 남편도 이것이 독일식인가 하고 떨떠름했다. 그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식사초대로 배탈이 난 나는 다음날부터 사흘을 앓아 눕게 되었다. 한국사람은 얼큰한 찌개나 구수한 된장찌개에 김치가 곁들여져야만 식사를 한 것 같으니 나도 외국가서 살기는 틀렸나보다. 체질 자체가 외국식사에 곁들여지지 않아서인지 느끼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무우장아찌나 김치 한조각이라도 집어 먹어야 하는 촌스러움을 어이하리. 그 후 또 한번 식사에 초대했는데 우리는 은근히 걱정을 하며 그럭 현관을 들어섰다. 모두의 얼굴이 환해지며 “오늘은

비빔밥이네!” 다행이라는 글씨가 말하지 않아도 초대된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진 듯했다. 언제 한번 그들을 초대해 순 한국식의 식사를 대접해야지. 풋고추를 송송 썰어넣은 우렁토장국에 얼큰한 얼갈이 배추김치, 꽃게회(빨간게 무친), 삶은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곁들여 내 놓으면 여러가지 반찬을 하지 않아도 푸짐함을 느끼게 되리라. 후식은로는 가을에 말려둔 꽃감을 넣고 차게 한 수정과를 먹고 나면 입안 구석구석까지 산뜻함을 맛보리라. 벌써 내 마음은 식사가 끝난 것처럼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다. 예쁜 부부차잔이 없어도, 분위기를 돋구는 타오르는 촛불이 없어도 순 한국식의 토속적인 정이 흐르고, 초가집 박넝쿨같은 詩가 주렁주렁 열리리라.

## 심사평

성인수평에서는 김근자씨의 <시가 있는 우리 농산물>을 우수작으로 뽑았다. 농산물에 용을 무리하게 강요함이 없이 우리의 것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끊어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시적인 정서로 끌어올려 상식감과 희소함을 잊게 해 주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좋았다고 느껴졌다. 구성과 문장의 아쉬움은 그래서 접어 두기로 했다.

성인 시·시조에서는 최 훈근씨의 <신토불이>로 결정했다.

간결한 구성에 억지가 없이 시조의 특성을 잘 살린 평균작이라 할 만하다. 전통성이 탄탄히 바탕을 이룬 이 시조는 오늘의 우리 농산물이 힘껏 당하는곳에 누구에게나 읽히게 하고 싶은 작품이다. 이 힘에 수평에서나 시·시조의 가작, 입선작품도 나뉘대호 충실한 작품이 있었으나 너무 의도적으로 농산물을 강조하는데 그친 감이 작품성을 떨어뜨렸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시장에서 수입품을 (특히 식품에서) 사게 되는 실수를 겁내는 주부도 많다.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잘 가꾸는 노력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키우는 마음을 국민 모두가 도약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 아쉬운 점은 청소년부의 시·시조에 입선작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불안한 정서를 대변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프다. 좀더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청소년부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한다.

•심사위원 신 달 자(시인)

## 옥수수와 피자의 고향

전 태 련

나는 쥘 옥수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름 늦도록 참 많이도 먹었다. 강원도 산 찰옥수수는 어느 것보다 맛이 좋다. 쫄깃쫄깃 하고 구수한 강냉이알을 한 알한알 떼어 씹을 때마다 고향의 맛이 나고, 어머니의 채취가 풍기는 것 같다. 마음은 어느새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푸근해진다. 고향 밤하늘의 별빛이 스며있고, 한낮 매미 노래 소리가 배어 있는 옥수수. 나는 옥수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먹는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 고향을 떠나 그 옛날 어릴 적 고향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내 마음을 옥수수를 먹으면서 달래보곤 한다. 어느 계절보다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골 여름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돌아가고픈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계절이다.

한낮의 열기가 걷힌 선선한 밤공기 속에서 마당 가운데 깔아놓은 명석에서, 또는 대청마루 위에 누워서 바라보던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무리들. 대기가 맑아 한꺼번에 우루루 쏟아질 듯, 석류알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여름 밤하늘의 가까이 떠있던 그 별들, 하늘의 별을 따 먹듯 한알한알 떼어먹던 음식이 바로 옥수수다. 중년이 된 내 몸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듯 그런 것을 요

구한다. 매캐한 모기불 속에서 먹던 옥수수, 고구마, 감자, 수박 등을.

사람의 마음의 정서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사람의 몸도 식욕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가끔 찾아보는 고향길. 버스 속에서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고향집 삼분의 이쯤의 지점에서부터 벌써 고향집 냄새가 나고 공기는 푸근해지고 몸의 긴장은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풀어진다. 차창 밖의 경치들이 정겨워지고 가슴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낀다. 버스에서 내려 고향집으로 향하는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일어서 “어머니”를 외쳐 부른다.

어머니와 고향.

고향과 어머니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이미지다. 고향을 떠나 멀리 타향에 와 있지만 늘 어머니의 情을 그리워하듯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

어릴 적부터 맛들여온 음식이 햄버그, 핫도그, 피자 등의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이고 보면, 그들 몸의 고향은 그들 햄버그, 피자의 나라가 되지 않겠

는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우리네 고향 음식을 그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 몸의 고향을 피자과 햄버그의 나라, 그 인스턴트 문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도 외국산이요, 쓰는 학용품도 외제요, 일용품마저도 외국산을 쓰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인스턴트 음식에 입맛이 들어버린 아이들의 몸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우리의 아이들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의 나라, 그 인스턴트 문화의 나라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참을성이 적고 폭력적이 되는 것도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밤하늘에 윤기있게 반짝이는 별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고향의 햇볕이 담긴 인정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계가 만들어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 그들 마음에서 어떤 정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네 정서로 키워야 국적있는 아이들로 자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음식이 고향같은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소들의 젖이요, 자라면서 배우는 말이 우리말의 올바른 훈련이 아니라 혀꼬부라지는 영어이고 보니, 그들 가슴에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구심

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할머니, 어머니의 아릿한 연기 냄새가 배인 치마자락에 누워 긴긴 밤, 옛날 얘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 이들에게 음식만이라도 고향의 것을 먹여 그 정서를 그들의 몸에, 마음에 심어 줘야 할 것이다. 어른이 되어 먹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음식이 아니고, 입덧을 할 때 찾는 음식이 피자요, 햄버그라면 참 슬픈 노릇이 아닌가. 이리다간 누구의 말처럼 제삿상에마저 피자가 오르고 햄버그로 차려지는게 아닐까?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실정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쓰지 않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다면 몸의 부조화, 또한 그에 따른 정서의 불균형은 뻔한 노릇이 아닌가. 우리의 몸은 수천년을 걸쳐 우리의 것으로 길러져 내려온 우리의 유산이다. 여기에 인스턴트 음식을 집어 넣으면, 우리 몸은 반란을 일으키고 불균형을 초래하여 약한 체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의 빨간 고추잠자리가 내려 앉아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우리 옥수수. 우리의 땅에 뿌리내려 우리의 정기를 먹고 자란 고구마, 감자 등을 먹이자, 그래서 도회의 내온 빛으로 바래져 가는 아이들의 동심에 물을 주고 여유와 꿈을 심어 주자.

옥수수의 고소한 맛과 함께 여름내 스쳐 지나간 솔바람의 세상 얘기를 듣게 하고, 몇 수십번도 더 어루만졌을 햇볕의 따스한 열기를 우리네 아이들의 몸에 넣어 주자.

살진 찢 고구마를 먹으면서 고향의 구수한 흙냄새와 함께 달디단, 농부의 人情을 먹게 하고, 여름 새벽 하늘에서 살짝 내려온 이슬의 투명함과 매미의 노래가 흘러나올 듯한 수박의 과육, 그 분홍빛 살을 깨어물면서 피약벌에 등허리 굽히고 김을 매었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 하자.

고향은 어머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농부는 하늘과 대지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

우리의 농산물을 먹지 않아서 우리의 농촌이 피폐해지고, 농부들이 우리의 어머니기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난다면 우리는 고향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는 실향민이요, 고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고향을 버리지 않는 한, 농부는 결코 땅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입맛의 감각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 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우리의 맛과 함께 고향을 물려주자. 진정한 우리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자.



## 별이 된 씨앗들

박 남 희(나탈리아)



헛간은 언제나 캄캄한 어둠입니다. 마당에는 봄빛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헛간 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헛간 안으로 봄빛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터진 나무문 사이로 그 모양보다 더 길다란 빛 한줄기가 무심히 들어와 안을 들여다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밝은 천조각같은 빛줄기를 바라보며 허수아비는 아무렇게나 구석에 처박혀, 뜨겁게 내리쬐던 햇살과 무리지어 하늘을 차고 오르던 참새떼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벌써 2년째야……”

허수아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헛간에 있는 친구들을 툭툭 건드리고 지나가자 여기저기서 부시럭거리며 일어나더니, “나두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우린 언제쯤 이 캄캄하고 냄새나는 헛간에서 나갈 수 있을까?”

봄이 되면 누구보다도 서글퍼지는 쟁기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울 동안 잠자던 흙을 깨우려 논으로 가는 쟁기는 땅속에 깊이 들어가 흙에게 고함지르곤 하였습니다.

“야, 이 게으름뱅이들아! 얼른 일어

나 씨앗 품을 채비를 해야지.”

쟁기의 고함소리에 놀란 흙들이 후다닥 일어나서 경례를 붙였는데…… 쟁기는 꿈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누렁이 생각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작년에 읍에 들어온 소장수에게 팔려간 누렁이……

“나는 냄새가 나도 좋으니까, 내 몸에 거름이나 실컷 지고 다녔으면 좋겠어.” 개구장이 거름통이 말하자 친구들이 모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거름통이 다시 씩씩하게 냄새나는 거름을 나르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휴-우……”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낮의 한숨소리입니다.

“너희들 마음도 알겠지만 나처럼 괴로운 사람도 없을꺼야”

“……”

“추수때엔 알이 제일 잘 영글은 벼의 첫 단을 베는 영광을 누렸었는데 일년 내내 농사를 짓기위해 수고한 모든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을 선물했었는데……”

결국 낮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헛간 안은 슬픔으로 가득차서 누군가 옆에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

양 하고 모두다 울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덜커덩. 헛간문의 빗장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짝 문이 열리더니 화안한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헛간 친구들은 모두 눈이 부셔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굴까? 어두운 헛간 속으로 넘치는 햇살을 보내준 사람은 누구일까, 모두 궁금해서 사알짝 눈을 떠보니 성자였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자라는 이름보다 성돌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 많은 이 집 외동딸이 처음으로 헛간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평소에 냄새난다고 싫어하던 헛간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벽에 기대어 있던 명석을 바닥에 툭 펼치더니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잠시 먼지들이 자욱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난 안갈꺼야……”

뭐라구? 무슨 소리야?” 허수아버기가 물었습니다.

“난 안간다니까! 나보고 그 답답한 도시로 가서 살라구? 어렵도 없지.”

“어딜 안간다는거야?”

“넌 모르면 잠자코 있어. 이 바보야. 우리 이사 간단 말이야!” 성자가 소리를 썩 지르는 바람에 허수아버기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뻔 했습니다.

헛간에 있던 친구들도 성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자네는 성자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이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아빠가 이젠 농촌이 필요가 없어졌

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곡식들이 훨씬 싸기 때문에 농사지는 것들이 팔리지 않고, 또 농촌 사람들도 차라리 곡식을 사먹는게 이익이라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깐 여기서 살 수가 없는거지. 바보야, 바보! 다들 바보 멍청이야!”

그래도 성자네는 조금씩 밭농사도 지으면서 살았는데...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에 성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가난 성자는 명석 위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주먹으로 마구 명석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먼지들이 헛간안을 짹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콜록...콜록...콜록...”

모두들 기침을 하기 시작하자 명석이 들썩거리더니 별안간 성자를 태우고 지붕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어...어라, 성자가 날아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날아온 성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엄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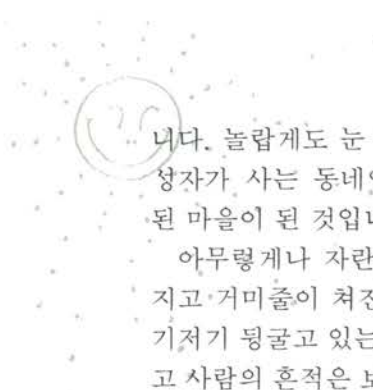
얼마 후 명석 위로 자욱하게 피어올랐던 먼지들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모이더니 보석같은 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별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어떤건 벼이삭 같아 보이고 어떤건 배추, 고추같이 생긴 것도 있고, 잘 익은 보리 이삭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벼이삭같이 생긴 별이 많았습니다.

“성자야 겁내지 말고 저 아래를 좀 봐.”

그것은 어떤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세상에.....!!”

성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합



니다. 놀랍게도 눈 아래 보이는 마을은 성자가 사는 동네인데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풀과 나무들. 부서지고 거미줄이 쳐진 창문, 깨어진 채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장독들……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우리 마을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성자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자가 떠나가 버리면 마을은 저렇게 되고 말거야.”

벼이삭별이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성자의 어깨를 다독겨려 주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사먹는 외국산 곡식과 채소들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린 사실은 너의 헛간에 있던 씨앗들이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면 차라리 먼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했단다.” 수수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릴 가없게 여기셔서 하느님 옆에서 우리 모양대로의 별로 살게 해주셨지.”

성자 주위에 맴돌고 있던 별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자, 가만히 구석에 있던 제일 작은 참깨씨별이 훌쩍이며 말합니다.

“흐으윽…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따뜻하고 포근한 흙 속이야.”

“힘차게 고개짓을 해서 흙 속을 뚫고 나올 때의 그 당당한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우리가 쑥쑥 자랄때 쓰다듬어 주시

며 대견해 하시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저씨…들의 손길이 정말 그리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봤으면……”

곡식별과 채소별들이 추억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우리 마을을 떠나살기 싫어. 난 이곳이 좋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옛날처럼 살릴 수 있지? 너희들은 알고 있을꺼야, 제발 가르쳐 줘. 응?”

성자가 애원하며 팔을 뻗어 별들을 잡으려하자 명석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그렇게 정신없이 떨어지는데 난데없이 얼굴 위로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깜짝놀라 눈을 떠보니 여전히 어두운 헛간이었습니다. 성자는 얼굴에 떨어진 것을 주웠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해마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담아놓은 씨앗주머니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자는 씨앗주머니에 얼굴을 문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성자는 벌떡 일어나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다시 헛간 안은 빛으로 가득찼습니다. 헛간 안에 있던 낡은 것들이 새롭게 반짝거렸습니다.

“모두들 따라와!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거야. 우리의 살아있는 농촌을 위해서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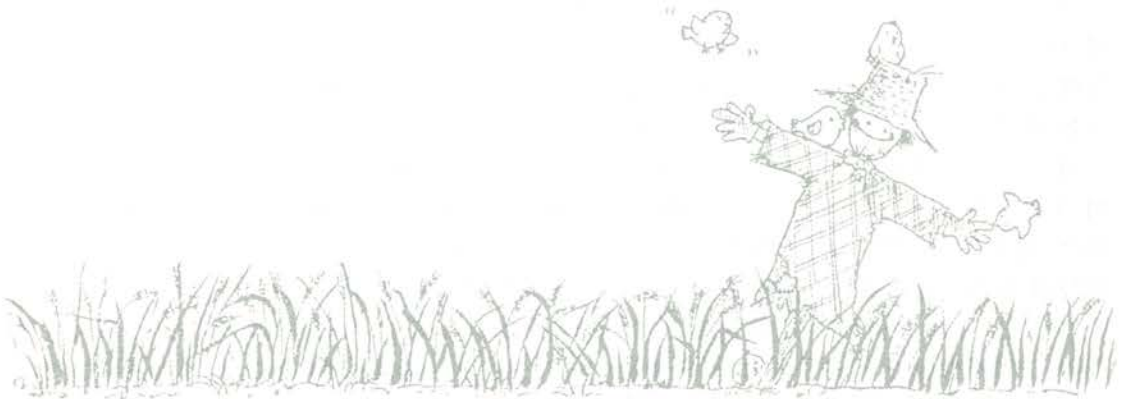
성자는 씨앗주머니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붕 위를 맴돌던 봄빛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성자는 개선장군처럼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 뒤로 손에 손을 잡고 허수아비와 쟁기, 호미와 낫이 어깨를 당당

히 펴고 걸어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농촌을 위해서.....



### 심사평

동화는 이야기가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은 이야기도 별로 없고 시적인 글도 없다

작품 거의 다가 주제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끝났다 다시 말하면 주제를 소란해 그것을 작품으로 한 것이 없다 박 나탈리아의 “별이 된 씨앗들”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나 동화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 가작으로 뽑았다

• 심사위원 김원석(아동문학가)

# 우리 밀과 유기 농산물 먹기 운동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동) 생명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금 주 연 (아우구스띠노)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467-5 10/5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목적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3%가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창세 6,12)는 성경말씀처럼 환경오염문제는 과거의 전능하신 하느님의 걱정사항이 아니라 오늘날 부족한 인간들마저 심각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 먹거리도마음놓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 몸의 피가 되고 살이되는 우리의 농산물이 오염되고,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에서는 사람에게 유해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수입 농산물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밀에서는 수확 후에만도 수입과정 중에서 21종의 각종 농약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이러한 심각하고 일상화된 ‘반창조와 반생명’ 즉 농산물 오염과 오염된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땅을 살리고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리며 지구를 살리는 ‘창조와 생명’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한다<sup>3)</sup>. 그러자면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농산물(밀)과 유기농업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유기농은 땅을 살리는 자연 농법이며 우리 밀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무농약 먹거리이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에는 국수주의적인 애국심이나 이웃을 미워하는 배타심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하느님의 ‘창조와 생명’의 말씀으로 세계와 더불어 공존과 화해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한다<sup>4)</sup>.

이러한 삶의 한 모습으로 (안동) 생명의 공동체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와 생명의 삶을 살고자하는 주민의 모임이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물질중심, 소비중심, 경쟁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가치관, 공생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반창조와 반생명’에 대하여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삼아 우리 밀과 유기 농산물의 사용가능성에 관하여 (안동) 생명의 공동체 회원과 일반 여성 주민고 의식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물음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밀에 대한 의식과 회원가입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로,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의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제 2 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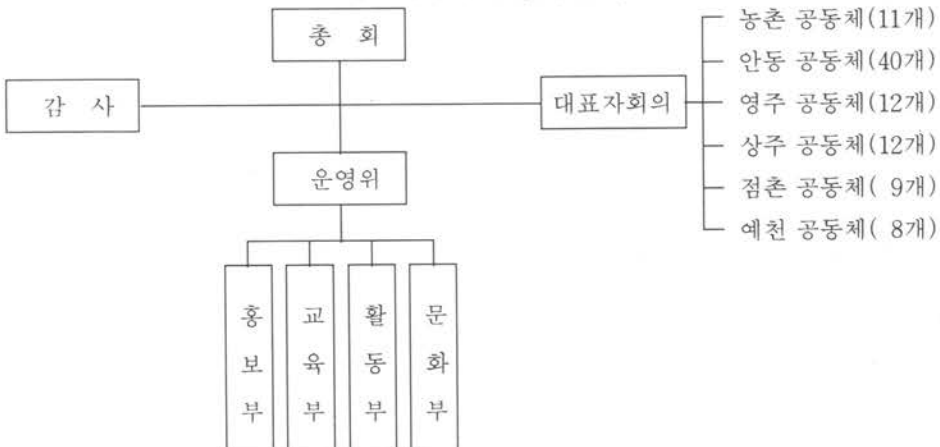
연구방법은 여성으로 구성된 생명의 공동체(이하 '생공') 회원과 일반 여성들의 의식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호비교하였다. 농산물 선택과 먹거리에는 여성들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여성의 경우는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3개의 학교에서 각각 한 학급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학급단위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124매로 회수율은 90%정도였다. 이 표본은 영주시 인구 82,393명-21,482 가구-중에서 124 명꼴로 1,000가구당 5~6가구 정도의 비율이다. 생공가입 회원의 경우는 안동지역에 약 800명 정도 있으나 영주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생공 대표자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44매로 회수율은 약 40% 정도였다. 분석방법은 회수된 설문지를 SPSS PC+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생공의 여러가지 활동중에 이 논문과 관련하여 우리 밀 회원운동과 유기 농산물 먹기 운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제 2 장 생명의 공동체의 역할

### 제 1 절 구조

생공은 도시 소공동체 80여개와 농촌 소공동체 9개로 결성되어 있다. 도시 소공동체는 구역별로, 아파트내에서는 동별로 5~10가구 정도를 하나의 소공동체로 구성하여, 물건나누기나 일을 협동으로 하기 쉽도록 조직하여 안동 40개, 영주 12개, 상주 12개, 점촌 9개, 예천 8개를 이루고 있다. 농촌 소공동체는 한 동네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여 교육이나 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었다. 본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운영위원이 뽑혀 4개 부서로 역할을 나누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표는 아래와 같다.

〈도표 1〉 생명의 공동체 조직표



## 제 2 절 기 능

생공은 민주적 협동조합의 운영형태를 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물질중심의 가치관, 소비중심의 가치관, 경쟁중심의 가치관에서 존재 그 자체, 생명의 그 자체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가치관, 공생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회원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 강력한 삶의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작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②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생활양식의 변혁, ③ 생태계 살리기, ④ 건강한 생산과 소비, ⑤ 먹거리의 공동구매, ⑥ 공해추방, ⑦ 공동체간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생공의 이러한 여러 활동 중에서 ④ 건강한 생산과 소비운동의 기본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거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고 나눔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의논하고 필요에 의한 생산계획과 소비계획을 세워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소비한다. 생산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구하며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짐으로서 상호책임을 진다.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공동체 현장방문체험이나 농촌공동체의 도시 공동체 초청 등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조직내의 학습활동을 생활화하며 유기농을 비롯하여 우리 밀 회원 운동과 유기농산물 먹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 제 3 장 우리 밀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의식

### 제 1 절 독립변인의 특성

#### 제 1 항 출생배경

나이는 일반인, 생공회원 모두 30~40대가 주축을 이루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 학력이 약 29%를 이루고 있다. 생공회원의 50대가 약 15%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일반인은 중학교 학부모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학력은 일반인은 중학교 학력이 제일 많아 39%를 이루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 학력이 약 29%를 이루고 있다. 생공회원은 고등학교 학력이 제일 많아 약 57%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대학교 약 32%를 이루고 있다. 생공회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2〉 나이와 학력 ( )는 일반인

|    |     | 빈도수             | 퍼센트           |    |    | 빈도수             | 퍼센트             |
|----|-----|-----------------|---------------|----|----|-----------------|-----------------|
| 나이 | 20대 | 1 ( 0 )         | 2.3 ( 0 )     | 학력 | 무학 | 0 ( 2 )         | 0.0 ( 1.6 )     |
|    | 30대 | 18 ( 60 )       | 40.9 ( 49.6 ) |    | 국민 | 1 ( 33 )        | 2.3 ( 26.8 )    |
|    | 40대 | 18 ( 60 )       | 40.9 ( 49.6 ) |    | 중학 | 4 ( 48 )        | 9.1 ( 39.0 )    |
|    | 50대 | 7 ( 1 )         | 15.9 ( 0.8 )  |    | 고등 | 25 ( 35 )       | 56.8 ( 28.5 )   |
|    | 60대 |                 |               |    | 대학 | 14 ( 5 )        | 31.8 ( 4.1 )    |
|    | 합계  | 44 ( 121 )      |               |    | 합계 | 44 ( 121 )      | 100.0 ( 100.0 ) |
|    | 평균  | 2.705 ( 2.512 ) |               |    | 평균 | 4.182 ( 3.065 ) |                 |

종교는 일반인은 불교가 제일 많아 48%, 무교가 32%, 기독교 14%, 천주교 4%를 나타내고 있다. 생공회원은 천주교가 제일 많아 약 66%, 종교 없음이 18%를 나타내고 있다. 생공회의 주축은 천주교 신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성장지는 도시 출신이 일반인은 15%이고 생공회원은 33%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2배 이상으로 도시 출신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도표 3〉 종교와 출생 ( )는 일반인

|    |      | 빈도수      | 퍼센트                 |    |               | 빈도수      | 퍼센트                |
|----|------|----------|---------------------|----|---------------|----------|--------------------|
| 종교 | 종교없음 | 8 ( 40)  | 18.2 ( 32.8)        | 출생 | 시골            | 12 ( 61) | 28.6 ( 50.4)       |
|    | 유교   | ( )      | ( )                 |    | 면             | 10 ( 21) | 23.8 ( 17.4)       |
|    | 기독교  | 4 ( 17)  | 9.1 ( 13.9)         |    | 읍             | 6 ( 21)  | 14.3 ( 17.4)       |
|    | 천주교  | 29 ( 5)  | <u>65.9</u> ( 4.1)  |    | 중소도시          | 10 ( 12) | <u>23.8</u> ( 9.9) |
|    | 불교   | 3 ( 60)  | 6.8 ( <u>49.2</u> ) |    | 대도시           | 4 ( 6)   | 9.5 ( 5.0)         |
|    | 합계   | 44 (122) | 100.0 (100.0)       |    | 합계            | 42 (121) | 100.0 (100.0)      |
|    |      |          |                     | 평균 | 2.619 (2.017) |          |                    |

직업은 일반인이나 생공회원이나 모두 가사 이외의 직업을 가진 자는 약 30%정도이며 일반인은 개인사업자가 더 많고 생공회원은 공무원이 더 많다.

소득은 일반인은 50~100만원 정도의 중산층이 제일 많아 45%를 나타내고 생공회원은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제일 많아 약 55%를 나타내고 있다. 생공회원은 주로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도표 4〉 직업과 소득 ( )는 일반인

|    |      | 빈도수      | 퍼센트                  |    |          | 빈도수           | 퍼센트                  |
|----|------|----------|----------------------|----|----------|---------------|----------------------|
| 직업 | 없음   | 29 ( 86) | 70.7 ( 71.1)         | 소득 | 50만원 미만  | 2 ( 24)       | 4.5 ( 21.2)          |
|    | 공무원  | 5 ( 3)   | <u>12.2</u> ( 2.5)   |    | 50~100만원 | 17 ( 51)      | 38.6 ( <u>45.1</u> ) |
|    | 회사원  | ( 4)     | ( 3.3)               |    | 100만원이상  | 24 ( 38)      | <u>54.5</u> ( 33.6)  |
|    | 개인사업 | 7 ( 28)  | 17.1 ( <u>23.1</u> ) |    | 합계       | 43 (113)      | 100.0 (100.0)        |
|    | 합계   | 41 (121) | 100.0 (100.0)        |    | 평균       | 2.512 (2.124) |                      |

제 2 항 공해나 오염에 대한 인식도(생명인식정도)

〈도표 5〉 공해나 오염에 관한 인식도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 매 우 무관심 | 2 ( 2)   | 4.8 ( 1.6)         | 4.19<br>(3.87) |
| 무관심     | 1 ( 6)   | 2.4 ( 4.8)         |                |
| 보 통     | 2 ( 26)  | 4.8 (21.0)         |                |
| 관 심     | 19 ( 62) | <u>45.2 (50.0)</u> |                |
| 매 우 관 심 | 18 ( 28) | <u>42.9 (22.6)</u> |                |
| 합 계     | 42 (124) | 100.0              |                |

공해나 오염 기사보도에 관한 인식은 관심과 매우 관심이 일반인은 약 73%, 생공회원은 약 88%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약 88%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환경운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내에서의 높은 참석율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제 3 항 사회단체 가입

사회단체에 가입한 정도는 일반인은 17명으로 약 14%를 나타내어 낮은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회원의 그 단체 내에서의 활동정도는 대체로 참석과 모두 참석을 정상적인 참석으로 정의할 때 일반인은 약 47%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공회원은 18%를 나타내고 있어서 생공회원들의 조직내에서의 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2항에서 나타난 생공회원의 높은 관심은 조직내에서 높은 참석율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표 6〉 사회단체 가입정도와 활동정도 ( )는 일반인

|          |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
| 가입<br>정도 | 미가입 | 107 | 86.3        | 1.14 | 활동<br>정도 | 거의 불참  | 9 ( 1)  | 40.9 ( 5.9)        | 2.27<br>(3.35) |
|          | 가 입 | 17  | <u>13.7</u> |      |          | 대체로 불참 | 2 ( 3)  | 9.1 (17.6)         |                |
|          | 합 계 | 124 | 100.0       |      |          | 때때로 참석 | 7 ( 5)  | 31.8 (29.4)        |                |
|          |     |     |             |      |          | 대체로 참석 | 4 ( 5)  | <u>18.2 (29.5)</u> |                |
|          |     |     |             |      |          | 모두 참석  | ( 3)    | (17.6)             |                |
|          |     |     |             |      |          | 합계     | 22 (17) | 100.0              |                |

제 4 항 환경운동

주방기구세척은 천연세제사용이 일반인은 약 26%, 생공회원은 약 41%를 나타내고 있어서 생공회원이 더 잘 하고 있다. 빨래세탁은 천연세제사용이 일반인은 54%, 생공회원은 약 39%

를 나타내고 있어서 일반인이 더 잘 하고 있다.

우유팩 재활용은 일반인은 43%, 생공회원은 77%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더 잘 하고 있다. 쓰레기의 정상적인 분리 수거는 일반인은 약 40%, 생공회원은 약 65%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더 잘 하고 있다.

〈도표 7〉 각종 환경운동의 정도 ( )는 일반인

|                |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
| 주방<br>기구<br>세척 | 세제사용 | 25( 89) | 59.5(74.2)        | 1.41           | 우유팩<br>재활용<br>합계 | 쓰레기     | 10( 65) | 22.7(57.0)        | 1.77           |
|                | 천연세제 | 17( 31) | <u>40.5(25.8)</u> | (1.26)         |                  | 재활용     | 34( 49) | <u>77.3(43.0)</u> | (1.43)         |
|                | 합계   | 42(120) | 100.0             |                |                  | 합계      | 44(114) | 100.0             |                |
| 빨래<br>세탁       | 세제사용 | 27( 57) | 61.4(46.0)        | 1.86<br>(1.54) | 쓰레기<br>분리<br>수거  | 전혀 못함   | 9( 33)  | 20.9(27.0)        | 3.40<br>(2.73) |
|                | 천연세제 | 5( 10)  | 11.4( 8.1)        |                |                  | 거의 못함   | 2( 25)  | 4.7(20.5)         |                |
|                | 비누가루 | 3( 17)  | 6.8(13.7)         |                |                  | 생각날 때   | 4( 15)  | 9.3(12.3)         |                |
|                | 비누   | 9( 40)  | 20.5(32.3)        |                |                  | 대체로 함   | 19( 40) | <u>44.2(32.8)</u> |                |
|                | 합계   | 44(124) | 100.0             |                |                  | 철저히 함   | 9( 9)   | <u>20.9( 7.4)</u> |                |
|                |      |         |                   |                | 합계               | 43(122) | 100.0   |                   |                |

제 5 항 농산물에 대한 오염인식

심각할 정도 이상으로 오염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입 농산물은 일반인은 59%, 생공회원은 91%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 일반 농산물은 일반인은 10%, 생공회원은 38%를 나타내어 일반농산물에 대한 우려도 생공회원이 더 높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부공해 정도는 일반인은 17%, 생공회원은 40%를 나타내어 생공회원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

〈도표 8〉 농산물에 대한 오염인식도 ( )는 일반인

| 오염도     | 수입 농산물      |                  |                | 일반 농산물      |                  |                | 유기 농산물      |                              |                |
|---------|-------------|------------------|----------------|-------------|------------------|----------------|-------------|------------------------------|----------------|
|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빈도수         | 퍼센트                          | 평균             |
| 벽지못할 정도 | 18<br>(15)  | 45.0<br>(12.9)   |                |             |                  |                |             |                              |                |
| 심각할 정도  | 17<br>(53)  | 42.5<br>(45.7)   |                | 15<br>(12)  | 37.5<br>(10.1)   |                | ( 2)        | (1.8)                        |                |
| 먹을 정도   | 5<br>(44)   | 12.5<br>(37.9)   | 1.68<br>(2.34) | 24<br>(71)  | 60.0<br>(59.7)   | 2.65<br>(3.26) | ( 7)        | 18.4<br>(42.2)               | 4.21<br>(3.71) |
| 안심할 정도  | ( 2)        | (1.7)            |                | 1<br>(29)   | 2.5<br>(24.4)    |                | 16<br>(42)  | 42.1<br>(38.5)               |                |
| 대체로 부공해 | ( 2)        | (1.7)            |                | ( 7)        | (5.9)            |                | 15<br>(19)  | <u>39.5</u><br><u>(17.4)</u> |                |
| 합계      | 40<br>(116) | 100.0<br>(100.0) |                | 40<br>(119) | 100.0<br>(100.0) |                | 38<br>(109) | 100.0<br>(100.0)             |                |

제 6 항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인식

조금 비싸도 우리의 농산물을 먹겠다는 응답은 양자 모두 비슷하게 약 70~75%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싼 농산물을 먹겠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약 10%, 생공회원은 5%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먹겠다고 응답이 일반인은 15%, 생공회원은 24%를 나타내어 일반인이 외국산 농산물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표 9〉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인식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 매우 비싸도 외국 농산물 사용 | ( 0)     | ( 0 )         |        |
| 조금 비싸도 외국 농산물 사용 | ( 1)     | ( 0.8)        |        |
| 무조건 싼 농산물 사용     | 2 ( 12)  | 4.9 ( 9.8)    | 4.20   |
| 조금 비싸도 우리 농산물 사용 | 29 ( 91) | 70.7 ( 74.6)  | (4.03) |
| 매우 비싸도 우리 농산물 사용 | 10 ( 18) | 24.4 ( 14.8)  |        |
| 합 계              | 41 (122) | 100.0 (100.0) |        |

제 7 항 공동체의식

도시와 농촌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응답은 일반인은 65%, 생공회원은 79%, 身土不二 즉 몸과 흙은 하나라는 응답은 일반인은 79%, 생공회원은 95%를 나타내어 이상의 두 질문에서 생공회원이 더 높은 공동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10〉 도시와 농촌간의 공동체의식 ( )는 일반인

|           | 도시와 농촌간의 일치 |             |        | 身土不二(몸과 흙) |             |        |
|-----------|-------------|-------------|--------|------------|-------------|--------|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진혀 그렇지 않다 |             |             |        | 1 ( 2)     | 2.3 ( 1.7)  |        |
| 그렇지 않다    | 1 ( 7)      | 2.4 ( 5.8)  |        | ( 3)       | ( 2.5)      |        |
| 그저 그렇다    | 8 ( 35)     | 19.0 (29.2) | 4.024  | 1 ( 20)    | 2.3 (16.9)  | 4.49   |
| 그렇다       | 22 ( 50)    | 52.4 (41.7) | (3.83) | 16 ( 66)   | 37.2 (55.9) | (3.96) |
| 정말 그렇다    | 11 ( 28)    | 26.2 (23.3) |        | 25 ( 27)   | 58.1 (22.9) |        |
| 합 계       | 42 (120)    | 100.0       |        | 43 (118)   | 100.0       |        |

제 2 절 우리 밑에 대한 인식

제 1 항 우리 밑 회원 가입의사와 가입정도

우리 밑 회원에 대한 가입의사는 일반인은 약 79%가 긍정적이며 가입회원은 약 0.8%정도이다. 생공회원은 74%가 긍정적이며 가입회원은 약 21%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생공회원이 더 높은 회원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직내에서의 교육이나 홍보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생명운동의 정도에 따라서는 약 80%의 우호적인 일반인들을 얼마든지 우리 밑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표 11〉 우리 밀 회원 가입의사와 가입정도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 가입의사 없음 | 2 ( 24)  | 4.8 ( 20.3)   | 2.83<br>(2.03) |
| 생 각 고 려 | 12 ( 67) | 28.6 ( 56.8)  |                |
| 가입생각 있음 | 19 ( 26) | 45.2 ( 22.0)  |                |
| 가입하고 있다 | 9 ( 1)   | 21.4 ( 0.8)   |                |
| 합 계     | 42 (118) | 100.0 (100.0) |                |

제 2 항 우리 밀 회원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반인에 대하여 우리 밀 회원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15개의 독립요인을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7개의 독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8개의 독립요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요인을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생명공동체(0,3868)에 가입할수록,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0,3208)를 가질수록, 환경이나 생명에 관한 단체(0,3442)에 가입할수록, 학력(0.2935)이 높을수록, 공해의식(0.2461)이 높을수록, 농촌과 도시간의 일치도(0,2115)가 높을수록, 소득(0,2030)이 높을수록 우리 밀 회원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인 중에서 불교인이 빠진 것은 처음 분석과정에서 불교인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독립변인이 되지 못하였고 불교인을 생략했을 때는 독립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불교신자가 전체의 49%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명존중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밀 회원에 대한 확보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표 12〉 우리 밀 회원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는 일반인

| 상관관계 있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상관관계 없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
| 생명공동체가입     | .3868 | 0.000 | 연 령          | -0.263  | 0.403 |
| 종교(기독교+천주교) | .3208 | 0.001 | 직 업          | 0.1350  | 0.104 |
| 환경·생명단체가입   | .3442 | 0.000 | 환경운동(3개), 폐품 | 0.1385  | 0.098 |
| 학력          | .2935 | 0.003 | 수입농산물 오염의식   | -0.1569 | 0.071 |
| 공해의식        | .2461 | 0.010 | 농산물 수입개방     | 0.1620  | 0.065 |
| 공동체         | .2115 | 0.023 | 유기 농산물 사용    | 0.1649  | 0.061 |
| 소득          | .2030 | 0.028 |              |         |       |

### 제 3 절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 제1항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

일반 농산물보다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무조건 짠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약 9%, 생공회원은 약 5%를 나타내고 유기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63%, 생공회원은 95%를 나타내어 유기농업의 발전에 밝은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도표 13〉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 매우 비싸도 일반 농산물  | ( 3)     | ( 2.5)        | 4.10<br>(3.37) |
| 조금 비싸도 일반국 농산물 | ( 30)    | ( 25.4)       |                |
| 무조건 짠 농산물      | 2 ( 11)  | 4.8 ( 9.3)    |                |
| 조금 비싸도 유기 농산물  | 34 ( 68) | 81.0 ( 57.6)  |                |
| 매우 비싸도 유기 농산물  | 6 ( 6)   | 14.3 ( 5.1)   |                |
| 합 계            | 42 (118) | 100.0 (100.0) |                |

#### 제 2 항 유기 농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반인에 대하여 유기 농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15개의 독립요인을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4개의 독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의 독립요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요인을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소득(0.3668)이 높을 수록, 학력(0.3208)이 높을수록,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0.2553)를 가질수록, 환경운동(0.2378)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유기 농산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표 14〉 유기 농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는 일반인

| 상관관계 있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상관관계 있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
| 소 득        | .3668 | 0.000 | 종 교        | .2553 | 0.008 |
| 학 력        | .3208 | 0.001 | 환경운동       | .2378 | 0.012 |

### 제 4 장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우리 밀 회원가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제3장 제2절에서 밝혀진 것처럼 생명 공동체 가입(0.3868), 종교(0.3208 기독교와 천주교), 환경이나 생명 단체가입(0.34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세 요인은 생명의 공동체와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영주의 생공회원 117명 중에 천주교 약 66%, 기독교 9%를 나타내어 기독교인이 75%를 나타

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여 우리 밀 먹기운동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먹기 운동을 주도하는 유일한 운동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공동체의 활성화는 바로 우리 밀과 유기농산물 먹기운동과 활성화와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생명공동체에 관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 절 생명공동체에 대한 가입의사와 가입정도**

기존의 가입자는 겨우 1.7%뿐이다. 일반인의 43%는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으로 생명공동체에 대하여 듣는 자가 60%씩이나 나타나는 것은 홍보나 교육과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처음 듣는 자 중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자는 42%나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도표 15〉 생명공동체에 대한 가입의사와 가입정도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평 균  |
|-----------------|-----|-------|------|
| 알고 있으나 가입 생각 없음 | 25  | 20.8  | 2.52 |
| 처음 들으나 가입 생각 없음 | 42  | 35.0  |      |
| 알고 있으며 가입 생각 있음 | 21  | 17.5  |      |
| 처음 들으나 가입 생각 있음 | 30  | 25.0  |      |
| 이미 가입           | 2   | 1.7   |      |
| 합 계             | 120 | 100.0 |      |

**제 2 절 생명공동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반인에 대하여 생명의 공동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14개의 독립요인을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4개의 독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의 독립요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요인을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환경이나 생명에 관한 단체(0.3050)에 가입할수록, 학력(0.2714)이 높을수록, 직업(0.2139)을 가질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생명의 공동체에 회원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 확보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표 16〉 생명공동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는 일반인

| 상관관계 있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상관관계 있는 변인 | 상관계수  | 유의수준 |
|------------|-------|------|------------|-------|------|
| 환경·생명단체 가입 | .3050 | .002 | 직업         | .2139 | .022 |
| 학력         | .2714 | .005 | 소득         | .2108 | .024 |

### 제 3 절 생명의 공동체의 문제점

일반여성과 생공회원을 상호비교함으로써 홍보와 교육부족, 조직의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계층인 종교인위주, 중산층 이상과 고학력 위주의 편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일반 대중화 할 것인가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실지로 농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표 17〉 물건 나누기상의 문제점 ( )는 일반인

|           | 빈도수 | 퍼센트   |             | 빈도수 | 퍼센트 |
|-----------|-----|-------|-------------|-----|-----|
| 친척·고향서 구입 | 10  | 24.4  | 방법·구입처 잘 모름 | 4   | 9.8 |
| 구입 불편     | 8   | 19.5  | 믿을 수 없다     | 2   | 4.9 |
| 비싸다       | 17  | 41.5  | 품질·포장이 나쁨   |     |     |
| 합 계       | 41  | 100.0 |             |     |     |

유기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것은 유기 농산물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연농이 많아지고 유기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어 과학적 유기농법이 보급된다면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약 20%가 구입불편을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되는 것과 일정한 상설 구판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농산물 오염된 수입 농산물의 일상화된 ‘반창조와 반생명’에 대하여 우리들은 ‘창조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농산물(밀)과 유기농업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 밀 회원의 가입율은 일반인은 약 0.8%, 생명의 공동체회원은 약21%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밀 회원의 가입의사는 70~80%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공회원이 더 높은 회원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직내에서의 교육이나 홍보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생명운동의 정도에 따라서는 약 80%의 우호적인 일반인들을 얼마든지 우리 밀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밀 회원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은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생명공동체(0.3868)에 가입할수록,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0.3208)를 가질수록, 환경이나 생명에 관한 단체(0.3442)에 가입할수록, 학력(0.2935)이 높을수록, 공해의식(0.2461)이 높을수록, 농촌과 도시간의 공동체의식(0.2115)이 높을수록, 소득(0.2030)이 높을수록 우리 밀 회원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밀 회원에 대한 확보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들을 우선적으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 농산물보다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의식정도는 일반인은 63%, 생공회원은 95%를 나타내어 유기농업의 발전에 밝은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유기 농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소득(0.3668)

---

이 높을수록, 학력(0.3208)이 높을수록,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0.2553)를 가질수록, 환경운동(0.2378)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유기 농산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밀과 유기 농산물 사용운동의 주체로서 생명의 공동체에 관하여 일반인의 43%는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으로 생명공동체에 대하여 듣는 자가 60%씩이나 나타나며 이들 중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자는 42%나 되고 있다.

생명의 공동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은 영향력이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환경이나 생명에 관한 단체(0.3050)에 가입할수록, 학력(0.2714)이 높을수록, 직업(0.2139)을 가질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생명의 공동체에 회원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생공회원 확보전략은 이러한 독립요인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명의 공동체의 문제점은 홍보와 교육부족, 일부의 종교계층, 중산층 이상과 고학력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구입불편이 제일 큰 문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되는 것과 일정한 구관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나 우리 밀과 유기 농산물의 사용 가능성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된다.

---

1) 중앙일보 창간 28돌 국민의식조사, 1993년 9월 23일 31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56.0%), 심각한 편(37.6%), 그저 그렇다(3.9%), 심각하지 않은 편(1.2%), 전혀 심각하지 않다(1.0%), 잘 모르겠다(1.3%)라고 응답하여 심각다가 93%를 차지.

2)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p. 202.

3) 창세기 1장 31절 :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요한 10, 10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4) 성서와 함께, 「보시니 참 좋았다」, (서울 : 분도 인쇄 출판사, 1992), p. 163.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 다음과 같이 해석 인간의 잘못된 단결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 20세기에 들어와 여러 나라에서 자행된 국수주의나 총화단결이란 미명아래 이 땅에서 저질러진 많은 일들이 그 예이다. 우리는 역사와 삶안에서 우리가 단결하는 이유를 거듭물어야 한다.

##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는 '생명의 공동체'라 하여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연구하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공동으로 저공해(최대한의 농약억제), 유기농법(비료대신 거름사용)으로 농산물을 생산, 소비하는 안동·영주지역 시민의 모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여러 생활모습을 연구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은 정답이 없고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생명과 환경연구에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주부님의 평상시의 모습과 생각을 진솔하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부님 평소의 생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란에 V표 공백에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1. 주부님의 연령은? 만 (        )세
2. 주부님의 학력은? ① 무학 ② 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③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④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⑤ 대학교(전문대포함) 중퇴 또는 졸업
3. 주부님 전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만원 이상
4. 주부님의 종교는? ① 종교없음 ② 유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불교 ⑥ 기타(     )
5. 주부님은 가사이외 다른 직업(부업)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공무원 ③ 회사원 ④ 개인사업
6. 주부님의 어릴 때 주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① 시골 ② 면소재지 ③ 읍 ④ 중소도시 ⑤ 대도시
7. 주부님 가정의 가족수(부양가족)는?

|    | 유아,유치원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배우자 | 조부,조모 | 기타 |
|----|--------|------|-----|------|-----|-----|-------|----|
| 나이 |        |      |     |      |     |     |       |    |

8. 주부님은 생명이나 환경에 관련된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9. 주부님은 이 단체에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불참 ② 대체로 불참 ③ 때때로 참석 ④ 대체로 참석 ⑤ 모두 참석
10. 주부님은 생명이나 환경 이외에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1. 주부님은 이 단체에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불참 ② 대체로 불참 ③ 때때로 참석 ④ 대체로 참석 ⑤ 모두 참석
12. TV나 신문 등에서 공해나 오염에 관한 기사를 보고 들어도 솔직히 말해 나오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치 않다. ⑤ 전혀 그렇치 않다.
13. 주방기구 세척은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 합성세제 ② 천연(자연)세제
14. 빨래 세탁은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 합성세제 ② 천연(자연)세제 ③ 비누가루 ④ 비누
15. 주부님은 마신 우유팩을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로 버림 ② 모아서 교환, 폐품수집
16. 주부님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생활화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못함 ② 대체로 못함 ③ 생각날 때만 ④ 대체로 하는 편 ⑤ 철저히 하는 편

17. 주부님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먹지 못할<br>정도 | ② 심각할<br>정도 | ③ 먹을<br>정도 | ④ 안심할<br>정도 | ⑤ 대체로<br>무공해 |
|--------------|---------------|-------------|------------|-------------|--------------|
| 수입농산물(밀, 과일) |               |             |            |             |              |
| 우리의 일반농산물    |               |             |            |             |              |
| 저공해 유기농산물    |               |             |            |             |              |

18. 일반 농산물은 제외하고 저공해 유기농산물을 먹거리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① 사용 없음 | ② 반이하 | ③ 반정도 | ④ 반이상 | ⑤ 전량모두 |
|----|---------|-------|-------|-------|--------|
| 쌀  |         |       |       |       |        |
| 채소 |         |       |       |       |        |
| 과일 |         |       |       |       |        |
| 계란 |         |       |       |       |        |

19. 바로 위의 설문 18번에서 대체로 전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① 비싸다  
② 불신 ③ 방법·구입처 모름 ④ 친척·고향서 구입 ⑤ 품질·포장불량 ⑥ 구입불편
20. 저공해 유기농법으로 경작하는 우리 밀 먹기운동 회원모집에 관하여  
① 가입생각 없다 ② 생각해 보겠다 ③ 가입생각 있다 ④ 가입하고 있음
21. 농산물 수입 개방시에 가격차이가 난다면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비싸도 외국 농산물 ② 조금 비싸도 외국 농산물 ③ 무조건 쌀 농산물  
④ 조금 비싸도 우리 농산물 ⑤ 매우 비싸도 우리 농산물
22. 일반 농산물과 저공해 유기농산물이 가격차이가 난다면 어느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비싸도 일반 농산물 ② 조금 비싸도 일반 농산물 ③ 무조건 쌀 농산물  
④ 조금 비싸도 저공해 유기농산물 ⑤ 매우 비싸도 저공해 유기농산물
23. 생명공동체에 관하여  
① 알고 있으나 가입생각 없음 ② 처음 들으며 가입생각 없음  
③ 알고 있으며 가입생각 있음 ④ 처음 들으며 가입생각 있음 ⑤ 이미 가입
24. (바로 위의 질문 ⑤에 응답하신 분만) 생명공동체의 교육내용은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모르겠다 ④ 도움이 된다 ⑤ 정말 도움이 된다
25. 농촌의 생산자와 우리 소비자는 정말 가까운 이웃이라고 여겨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26. 身土不二(땅의 흙과 우리 몸은 하나다)라는 말은 정말 공감이가는 말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27. 생명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래에 관하여 좋으신 말씀 몇마디 적어 주세요.  
① 물건나누기 ② 조직·회원관리 ③ 교육·홍보활동 ④ 기타

## 건전한 소비 文化의 暢達

전 윤 표(바오로)

###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高度成長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先進國 진입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정신적인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시키므로서 우리는 지금 가치관, 이념, 정신의 혼돈속에 놓여있다.

한편 최근들어 교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가는 가운데 후발개도국들의 추격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우리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하면 민주화의 물결이 기업과 경제분야 및 전국민에게 확산 되면서 社會의 變化要因이 다발적으로 표출되어 相互和合이나 目的意識, 合理性의 추구보다는 物質的·否定的 가치관이 수단화 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文化의 定立」이야말로 공동체적 자각을 도출하고 우리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대공약수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우리 고유정서의 발견을 통하여 이를 적극 수용 하므로써 흐트러진 우리의 가치체계와 소비정신을 정립시키고 그것을 근간으로 개방화·국제화의 시대조류에 부합되는 경제윤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 사회문명과

융화 조화될 수 있는 건전한 한국적 소비文化의 暢達을 위한 탐색을 그 目的으로 하고있다.

### 1. 소비文化의 개념

최근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있는 文化의 개념은 원래 文化人類學者들에 의해 定立 研究되어 왔으나 지금은 여러분야 즉 사회학·정치학·심리학등에서 활발히 論議되고 있다.

예를들면 A. William은 「文化는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할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受容할 수 있는 일정한도내의 偏差範圍속에서 행동을 산출하는 規則·基準의 集合」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을 유형화하고 각 개인이 표출하는 特定行動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해 주는 文化는 그 社會集團의 부단한 歷史의 산물인 동시에 그 사회집단의 반영체라 할 수 있다. 文化는 실제 人間社會에 끊임없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강력한 영향체로서의 文化現象은 사회의 存續과 發展을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소비자의 내부환경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비文化(Consumption Culture)의 개념이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文化는 다원적이고 특정한 거시문화(macro-culture)에서 수립되고 이어받은 아이디어·개념·습관·전통·버릇등의 공

통적 實績을 포괄하면서 정치·경제·교육·기술등의 다양한 制度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理念體系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정의 이념, 제도, 관습을 소비자 성향에 적용한 것이 소비文化의 定義라할 수 있으며 유사개념으로 소비의 풍토, 환경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文化는 이러한 개념보다 더욱 創意的이고 合目的의 意味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소비文化는 오랜세월을 지나오면서 생성되고 쉽사리 변모되지 않는 固着性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自律性을 동시에 지니게 되며 만약 국민전체의 기본가치, 전통, 관습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적용되고 바람직한 方向으로 형성되었을 때에는 「건전한 소비文化」가 定着되어 국민경제의 活力素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역할을 하게된다.

## 2. 소비文化의 定立方向

### 1) 價値體系의 定立

不可逆的인 흐름으로 진행되는 한시대의 歷史는 그시대의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갖는다. 또한 모든 文化作業이 그러하듯 새로운 가치창조는 뿌리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의 이념, 제도, 관습이 새로운 시대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전통가치의 충분한 이해와 현대적 재평가 위에 바람직한 규범이 새롭게 定立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資本主義의 理論이 合理性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Fordism이나 Taylorism과 같은 科學的·合理的관리방식도 異文化속으로 이전할 수는 있어도 그 기능의 효율성은 고유文化의 특징에 따라서 差異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념, 제도, 관습이라도 다원적 사회

체계와의 현실적인 접촉은 분명히 전통과 현실의 가치체계를 근거로 여과되고 정제되어져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이 인간행동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合理主義的 思考와 전통적 가치관을 非合理的인 것, 전근대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文化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생산확대와 효율향상을 받아들여 傳統思想과 文化에의 접목을 적극시도하여야 하며 새로운 價値와 文化의 體系는 이미 존재했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文化를 기반으로 하여 검증되고 탐색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산업사회를 낳게 한 서구적 가치체계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전통가치와 사상에 대한 재음이 필요하다.

### 2) 소비文化의 定立

西歐의 자본주의가 우리의 물질적 환경개선은 가져왔을지 모르나 정신적 만족은 결코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東洋의 자본주의는 지금부터 그 윤리의 원천을 찾고 自律的으로 自己統制를 하지 않으면 동양적 자본주의는 서구자본주의의 모방이라는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으며 거기서는 결코 새로운 문화창조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전래사상의 수용과정에서도 儒·佛·道 장점만을 취하여 내것으로 만드는 「思想의 實用性」을 찾을 줄 아는 현명함을 보였듯이(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P.228, 1986) 이제는 자본주의의 合理性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통사상의 소생과 환기를 통하여 우리의 풍토와 체질, 경제환경에 알맞는 소비文化를 定立하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에 뒤지게 되며 종래에는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 이들 국가들은 2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계속성장을 지속하면서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종교윤리와 경제윤리를 잘 조화시켰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막스웨버는 「절약과 근면의 德」을 「자본주의 精神」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는 서구의 청교도윤리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유래함을 밝히고 서구 자본주의 발전이 근본원인을 여기서 찾으려 했다. 실제로 이들은 中世의 中心思想이었던 서구의 가톨릭과 동양의 유교사상은 본질적으로 신분과 직분에 기초한 봉건사회의 위계적 사회질서를 合理化시킨 사상으로 결론짓고 이러한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人間욕망의 해방, 利己心의 自由도 함께 가져왔으며 이러한 要因들이 근대시민사회 성립 후 경제발전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 (2) 利己心과 탐욕

앞절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利己心은 인간이 자기를 성장·확대시키려는 욕구와 개개인이 좀더 잘 살아보려는 動機에서 비롯되며 이기심의 자유로운 추구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찾으려는 것이 근대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스미스(Adam Smith)는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 私利를 우선하는 것이 國益을 우선하는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國益을 더 증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本性은 사리추구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애국심보다 私心에 따라 경제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도 우리국민 각자의 좀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과 국민각자가 이를 발휘하도록 허용한 「利己心의 自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이기적욕구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할 때 인간의 自發的·創造的 능력은 발휘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익추구 욕망이 경제·사회발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의 욕망은 공익과 조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 명예, 재산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이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욕망은 자유경쟁질서와 조화하기 위하여 윤리, 도덕, 규범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때 個人的·集團的 이기심은 탐욕으로 변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私利를 추구하는 利己主義者들은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균형있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은 물론 다른사람과 국가경제발전에도 큰타격을 입히게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소비, 사치, 향락산업을 번창시키고 각종 경제부조리를 양산시킨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만들어 낸 탐욕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根本을 흔들어 놓을 것이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성경말씀대로 인간의 탐욕은 모든 「惡의 根源」이 된다.

## 3) 전통가치의 退潮

해방후 美國에 의해 도입된 西歐式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社會의 主要한 構造的 變化를 가져왔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채택은 전반적으로 전통적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지난날 한국인의 가치관은 平等的이고 個人主義的인 방향으로 점차 변모되어 왔는가하면 정치, 경제, 교육등의 분야에서 機會의 自由가 보장되게 되었다.

한편 工業化와 都市化의 진전에 의해 자본주의적 生産方式이 확대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팽배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인 道德主義, 금욕주의적 선비精神 등은 크게 퇴조하고 말았다. 특히 경제성장 제 1주의는 황금만능주의라고 불리우는 物質主義와 함께 인간경시풍조를 팽창시켰고, 다양한 가치체계의 표출은 국민적 親和力과 求心力을 급속히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후발공업국인 경우에는 産業化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괴리가 보다 심각했으며 물질문명의 역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4) 賤民資本主義化 경향

청교도윤리를 그 정신적 기초로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중에는 최근 천민자본주의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청교도윤리가 타락하게 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이른바 「先進國病」을 앓고있는 국가가 생기고 있다. 美國의 경우 청교도정신이 어느나라 보다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近代産業國家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근대산업화 시대를 선도해온 美國의 機能的적·合理的 경제요소가 이제는 거꾸로 美國의 산업사회를 붕괴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美國의 쇠퇴는 한나라의 흥망을 의미하기 이전에 근대산업문명 그자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찌서 근대문명을 주도해온 서양의 산업이 저조하고 반대로 근대화의 지각생들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어느지역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제는 남의 시각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조류를 헤쳐나갈 새로운 인식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 5. 소비文化의 定立方案

#### 1) 소비文化의 體系設定

앞절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소비文化는 특정사회집단의 현실적인 이념, 제도 그리고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文化가 논리적 토대위에 구축된 이념체계에 따라 제도가 설정되고 관습이 정착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高度의 응집력과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인류역사의 경험으로 보아 이데올로기 편향의 硬直性이 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제도나 관습은 항상 이념체계와 일치하지도 않고 이탈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관습의 경우는 心理的 本性에 근거하므로 이념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면 자체가 지니고 있는 自律性, 生動感, 에너지 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세 가지 관계의 운영은 기계적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절과 조화라는 방법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소비文化의 體系는 이념, 제도, 관습을 하나의 有機的 관계로 파악하여야 하며, 自律과 統制가 잘 조화 될때만이 소비文化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認識의 전환이나 확산이 필요하다하여 각종 소비文化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인식의 뿌리는 매우 깊고 다양하며 오랜시간과 넓은 공간을 포함하는 집단인식이 固着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주변상황은 이미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제도와 관습의 變化를 이끌어 내지않으면 안된다할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은 소비자 個人 또는 생산자의 人格과 사회환경 조건으로부터임은 당연하다할 것이며 소비文化의 체계는 우리정서의 근본적인 출처가 되는 생긴 그대로의 正體性(Identity)과 普遍性있는 생활주변의 내용이나 문제점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文化의 체계정립은 항상 직접적인 正面대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당위성보다는 대중적 에너지 발산을 통합하기 위한 일체감을 먼저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를 호흡하기 위한 변별력있는 사고, 주체성있는 소비정신, 정서적 친화력등 발전적인 인식의 전환과 동기부여가 가능토록 유도하여 소비文化가 요구하는 정신적 공감대와 행동지침들이 소비자들의 소비性向과 삶의 질 향상에 대폭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성적인 민주적 리더쉽에 의해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국산품애용, 농촌살리기, 생명운동등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共同體活動들은 구심점있는 유연성을 견지과 동시에 새로운 開放時代의 소비文化에 알맞는 틀을 제공하게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구조체계에 의하여 우리의 소비文化는 사회자체를 조절하는 有機的 장치로서의 機能과 統制機能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점차 實效性교성을 갖게 되므로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가치의 內在的 學習과 大乘的 結集이 이루어질 것이다.

## 2) 과소비의 개념과 문제해결방안

오늘날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중에서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過消費 風潮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드세라.

合理的 소비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에반해 과소비란 市場經濟에서 소비자가 행하는 非合理的인 소비를 말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외제선호 풍조와 맞물려 국산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부진과 수입증대를 가져와 경제발전을 침체시키고 농촌피폐, 국민건강 침해론까지 이어지는데 기인한다.

여기에 우리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합리적 참여자로서의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탓이로소이다」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物神숭배의 重病을 앓게된 사실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소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利己의 自由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道德的·倫理的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소비를 근절하는 처방에 대한 탐구는 건전한 소비文化를 정착시키는데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앞절에서 논의된 소비文化의 체계설정을 準據로 국제산업사회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조화로울 수 있는 근원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범위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價値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확립은 일시적이고 관주도행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흐트러진 소비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참여의식을 바탕으로한 정신적 공감대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는 간단하고 편리하며 알기 쉽고 즐거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生命을 존중하는 정신을 밑바탕으로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生産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오직 價格과 品質만이 승패를 가름하는 市場에 獨創性없는 조악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외제선호를 비난하거나 불매운동만을 고집할 때 그것은 正義로운 일이 아니다. 싫건 좋건 기업경영의 성과는 국민의 소비文化가 규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과소비가 자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우리기업에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개발초기 단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선택의 확대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우선하는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창의력과 자주능력을 쇠퇴시켜 경쟁력약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정당성 있는 요구와 소비자의식을 위주한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先進國을 이룩하겠다는 욕구가 마치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강력한 희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각종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단체는 각 경제주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 행위로서 정해진 질서와 제도안에서 自己利益을 극대화 하는지를 객관성있게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 根本的 主體인 소비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精神을 함양시킨다 하여 우리 농

산물먹기나 외제안쓰기 같은 排他的, 소극적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농산물 수입이 지난해 무려 71억달러(년간 1,200만톤, 무역적자의 76%차지)나 되는 이시점에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몽이전에 가정소비의 주체인 주부의 역할, 맹목적으로부터 分類를 지키는 일의 아름다움,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고르는 소비生活의 지혜, 건강이나 우리것의 소중함등 구체적인 의식고취 방법이 제시되어 범국민적 공감대와 동기유발이 선행된다면 실천가능한 行動指針들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

현대사회는 地球村이라는 말이 시사하고 있듯이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같은 환경에 부딪치고 있다. 또 地球규모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과거의 경험이나 좌우의 모델들은 시원한 해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편견으로 作用하기 일쑤다. 또한 그 變化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보다많은 희생을 치를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변화에 內在한 原理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층적 사회에서는 우리고유의 調和合一의 精神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개방화는 이질적 대상을 自己化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조화의 정신은 創造的이고 平和的이어서 서로 돕고 풀어 나가며 더불어 사는 未來指向의 동반자 관계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의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積極的인 자세이다. 시장개방을 人間的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떻게 하면 개방을 피할 것인가 또는 최대한 연기할 것인가등의 단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개방의 빚장을 풀되 어떻게 하면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두번째는 애국심이나 사명감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排他的 애국심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이 자기조국을 비난하는 배타적 애국심을 조장함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입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자세 아래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해 보면

#### 1. 정 부-개방과 관련된 기본전략이나

그내용, 일정등의 결정은 결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로 장기적인 시각과 국익우선의 원칙 아래 일관성 있는 전략을 구비하여야 하며 나아가 공정한 이해조정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익에 치우치므로써 국가의 대세를 그려쳐서서는 안된다.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를 위해서 국산과 외산의 농약이나 유해물질 함유량등을 정확히 측정비교해서 공표해 주므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외산이건 국산이건 오염도를 간단히 발표하거나 함구한다면 우리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는 약화시킴은 물론 지속되는 「식탁의 공포」는 국민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로 개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충분한 豫示性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발표를 듣고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각자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히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의 자세가 전제되는 것이다.

#### 2. 생산자-개방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

하는 계층은 대체로 생산자들이다.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대응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變動可能性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응함을 말한다. 종종 우리는 특정집단의 「生存權」운운 하면서 그 생존권을 개방이전에 누리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타 부문이나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오고 있었음을 반성해야할 것이다. 개방은 이제 「홀로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이미지나 상품은 국제화만이 살길이라는 인식하에 전세계 소비자와 함께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革新, 品質革新, 經營革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企業精神을 갖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한국적 경영이 미국의 合理主義나 일본적 集團主義의 모방에 주력하여 혼합적 경영형태로 길들여져 왔으나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인간존중의 기업윤리에 바

탕을 둔 독창성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미래의 한국기업은 전세계 소비자에게 生命水와 같은 훌륭한하고 효율적인 상품생산을 가능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우리국민은 누구나 소비자입장이며 개방은 우리의 소비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주게됨이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애국심이나 국익차원의 行動方式을 요청 받아 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국산품애용 운동을 하면서도 문방구에서는 얼마든지 외제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現實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二重化되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와 국제화의 한가운데 서있는 소비자 각자는 외제가 정말 값싸고 좋으면 당당하게 외제를 쓰는 풍조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외제상품에 예민한 소비패턴이 우리생활 깊이 뿌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터에 걸으므로 국산품애용을 외치면서 남몰래 외제를 쓰는 풍조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개방화는 소비자가 싸고도 좋은 제품의 선택을 통해 기업의 우열과 성쇠를 가름하는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외제든 국산이든 왜 그 제품을 쓰는지 분명하고 합리적인 理由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開放化時代의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결 론〉

한나라의 경제발전은 그나라 國民의 意識水準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文化水準 그리고 국민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特有한 전통문화와 종교윤리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건전한 경제윤리를 기초로 勤儉節約하는 풍토를 조성하므로써 높은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한때 버렸던 우리의 精神主義的 가치와 그 文化的 대응력을 回生시킨다는 것이 復古的 感傷主義가 아니라는 것을 검증했다. 따라서 우리정서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身土不二는 육체와 땅만이 하나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란 몸과 精神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말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귀절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깊이 음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眞理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빛과 소금의 機能이 절실히 요청됨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文化 暢達을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 1. 名分主義의 회복

만물의 원리인 「理」와 현실존재의 물질적 구성요소인 「氣」에 대해 불가분의 존재나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인간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理를 상위개념에 두어 氣를 통제·제압했던 우리조상들의 정신적 윤리관을 바탕으로한 名分主義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훌륭한 遺産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탐하지 않음을 보배로 삼았던 조상들의 생활양식은 메마른 우리 정서를 一新시키고 우리의 正體性 확립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調和合一 思想의 수용

서구의 여러나라는 하나의 종교윤리에 기초한 경제윤리가 국민정서를 점유하고 있음이 보편적이거나 우리는 종교 多元化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多樣性이 바탕이 된 사회일수록 遠心力을 중화시킬 수 있는 求心力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각자가 믿는 神이 부여하는 召命대로라면 진리는 하나이고 근본에서는 통합이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체계를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共存의 공감대를 하루 빨리 형성하여 소비文化의 바탕이 될 물질적, 정신적 가치관을 새롭게 定立시키고 우리의 이념, 제도, 관습과 유연하게 調和시킨다면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기업정신은 물론이고 건전한 우리의 소비 文化가 굳건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올바른 資本主義 精神의 확립

우리의 주변상황은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의 資本主義 精神이 수치스럽게

賤民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의 물질관과 인생관을 바꾸어 건전한 생활양식의 소비윤리와 인간존중의 기업윤리를 시급히 확립시켜야 한다. 또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람은 누구나 分類에 따라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지극히 평범한 眞理인 근면, 검소, 청렴,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4. 종교윤리의 極大化

이땅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완전한 이념과 제도는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항상 온전해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윤리는 경제윤리의 씨앗이고 뿌리이다. 따라서 物質은 어떠한 경우에도 人生의 目的이 될 수 없고 삶의 중심이나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수만 천오백만을 헤아리고 있지만 우리사회 각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인간에 대한 최초의 벌은 수치심의 자각이 있듯이 철저한 자각만이 헝크러진 신앙인의 명예와 신뢰를 回復하고 새로운 세상을 創造하는 일에 선택된 우리가 끝없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개화기에 불과 전국민의 0.2%의 기독교인들이 새시대의 불을 밝혔고 사목자없이 평신도들만이 용감하고 열심한 신앙 共同體를 형성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의 良心을 바로 세우지 못할 理由가 없다.

우리는 지금 信仰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 심사평

당 두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먹라 유기 농산물 먹기 운동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안동 생명의 공동체를 중심으로)를 보내주신 경북 영주시 굽주연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그리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달이라는 논문을 보내주신 대전의 전문표 바오르 형제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이라는 딱딱한 형식을 빙어 글을 쓴다는 사실만으로도 아파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의 폭이 상당히 좁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논문은 내용을 떠나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논문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우선 굽주연씨의 논문은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먹라 유기 농산물 먹기 운동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논문의 신뢰성이 크게 돋보였습니다.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전문표 형제님의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달이라는 논문은 소비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종교적 경제윤리, 그리고 소비문화의 정립방안,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 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두 방향의 논문이 가지는 특성과 중요성을 모두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가작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좋은 작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윤 자 (가톨릭 신문 취재국장)



## 한제(韓製)가 뭐예요?

박진희(나탈리아)



수정리와 나는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한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펜들이 어찌나 이쁘고 귀엽던지……

시간이 꽤 흐른 후 드디어 파스텔 계통의 연한 꽃분홍색의 펜과 하늘빛 같이 연하고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파아란 색을 골랐다.

펜의 가운데에 'JAPEN'이라고 새겨 하이얀 글씨로 만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죄책감과 꺼림직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무늬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기분을 삭힐 수 있었다.

펜 두자루에 이천원.

나에겐 거금이었지만 아이들의 필통 속에서 매일 보아온 펜들이었기에 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지갑을 꺼냈다. 이때였다.

“아저씨, 콤파스 있습니까?”

발음도 안되는 소리로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 돌아보니 우리 학교의 유학생인 프랑스 남자아이다.

아저씨는

“얼마짜리 줄까?” 하고 물으셨다. 그 아이는 하얀 손으로 뒤적거리더니 오백원을 꺼냈다. 아저씨께서 보고 웃으시더니

“여긴 그렇게 싼 콤파스는 없어. 그

돈으로는 아마 동네 문구점에서 한제 물건을 사야 할꺼야.”

“한제? 한제가 뭐예요?” 되물음을 하는 그 아이. 난 펜을 들고 있는 손을 무의식적으로 감추었다. 펜시리 식은 땀이 났다. 아저씨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물건이 한제야. 알겠니?”

“근데 그럼 여긴 왜 한제 없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래진 나와 수정리를 보고는 나가버렸다. 아저씨는 짜증을 내셨다. 돈을 지불하고 나와서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음식이 나올동안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야, 개 말이 맞는것도 같다. 그치? 아까 심장떨려 죽는줄 알았어.”

“나 아까 펜 뒤로 감춘것 봤냐?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 으이구 나라도 그 아저씨처럼 굉장히 어색했을꺼야.”

“우리 펜을 너무 비싸게 산것 같아. 그런 생각 안드니? 박진희! 야, 대답좀 해라. 입두었다가 무엇에 써?”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나의 펜값에 대해,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 대해 말이다.

“내 펜값이면 진짜로 많은 펜을 살 수

있었을거야. 한제라면 한 대여섯 자루는 샀겠다. 근데 일제가 더 오래 쓰잖아. 하지만 우리 나라꺼를 너도나도 안 쓰면 어떡하지? 아마 공장에서 만들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그럴거야. 그럼 우린 계속 다른 나라의 펜을 쓰고…… 아까 그 후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그러겠지? 참 이상한 나라라고. 자기 나라 물건은 써서 안파는 나라라고.”

빨갭게 익은 떡볶기가 입맛을 돋아 주는 것 같았지만 넘어가질 않았다.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펜 두 자루가 내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처량하게 만들었다.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 햄버거 집하고 분식집하고 비교가 된다.

햄버거집에는 사람이 가득 차있다. 분식집에는 사람이 없다. 일제펜은 자주 사가는데 한제펜은 싸다고 물건도 안가져다 놓았다.

나 정말로 개혁해야 할 것 같다. 나 자신의 새로운 개혁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다. 외국 후배들이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나 자신으로.

“야! 윤수정, 너 햄버거집 가면 안 돼. 알았지?”

무작정 으름장을 놓는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한참을 쳐다보는 수정이가 갑자기 웃는다.

“뭇뚱인줄 알아? 바보야!”



## 심사평

수필과 논성문을 구별하지 못하고 쓴 작품들이 더러 있었다. 그렇지만 주제를 잘 소화해 쓴 작품들이 많았다.

박진희의 “한제가 뭐예요?”는 도입 부분이 좋았다.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써 나갔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글쓴이의 의도가 너무 짙게 깔렸다. 은근하게 표현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 심사위원 김원석(아동문학가)

## 우리 밀 이용은 회원 가입으로

김 호 진(안젤라)



지난 일요일입니다. 신부님 강론시간에 우리 신부님이 아니고 다른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신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가운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이해가 잘 안가는 어려운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들으니 우리 밀로 된 상품을 사먹자는 얘기 같았습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해 온 밀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꾼 밀에 비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 건강에 무척 나쁘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결국은 우리 상품인 우리 밀을 먹자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낱말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공부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얘기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아버지 왜 외국에서 수입해 온 밀을 사지 말고 우리 밀로 만든 상품을 이용해야 되나요?” 하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안젤라야!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단다. 하느님께서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살도록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을 먹어야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농민들은 애써서 더 좋은 밀을 생산하도록 애쓴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바쁘신 아버지를 대신해 나는 가끔 도시락 반찬을 만들곤 한다. 나는 밀가루로 동태전을 언니와 함께 가끔 만들곤 한다. 그리고 빈대떡도 만들어 먹고 제과점에서 빵을 사다 먹고는 했다. 그 밀이 외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 외국 밀은 농약을 많이 썼고 값이 우리 밀보다 싸지요?”

“그렇단다. 외국 밀은 아주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온단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밀이 상할까봐 우리 몸에 해로운 농약을 많이 친단다. 그리고 외국은 밀을 넓은 땅에서 기계를 이용해 밀을 가꾸기 때문에 값이 싼것은 사실이란다” 하고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엄마가 안계신다. 약 4년전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다. 우리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외국의 밀가루를 잡수셔서

암이 생겨 돌아가신지도 모르겠다. 이 제는 외국 밀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밀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우리 밀을 많이 심을수록 신선하고 공기가 많이 생기고 우리 농촌이 더욱 더 부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밀은 농약을 외국 밀에 비해 안 치니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꼭 우리 밀을 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우리 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여쭙어 보니 아버지께서는 “안젤라야 생각 잘했단다. 지금은 우리 밀이 부족해서 사고 싶어도 못산단다. 그래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한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단다. 그래야만 한사람이 일년에 3키로그램의 밀

가루를 살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다섯이라 5만원인데 아빠는 이웃과 함께 우리 밀을 나누어 먹기 위해 15구좌에 가입했단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참 고마웠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 저도 용돈과 심부름 값을 아껴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회원으로서 가입금을 보태겠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 천주교신자들 만이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다짐했다.

값이 다소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 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싸지게 될 것이다.

이 운동에 가입하여 우리 밀로 된 상품을 이제 많이 이용하자.

## 신 사 평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었던 아니면 외국 상품에 대한 것이든 글쓴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처럼 동떨어진 글을 썼기에 좋은 글을 못 쓰는 것이다.

김효진의 ‘우리 밀 이용은 회원 가입으로’는 성당에서 강론을 듣고 잘 모르는 것을 아버지께 여쭙어 아는 얘기이다. 이야기를 자기 생활에서 잘 끌어내었으나 정리가 좀 덜된 것이 흠이다.

•심사위원 김 원 석(아동문학가)

## 바 나 나

배 철 균(루가)

엄마랑 손잡고 시장갔어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다 사달래지요

저쪽에 키 큰 아저씨  
목소리 한번 크네요

“콜라 콜라 이 천원  
갓 수입된 바나나  
5개에 이 천원”

우리 엄마 지갑 속에  
이 천원이 꿈틀 꿈틀

내가 든 시장바구니 안에  
노오란 바나나

그 옆에 감 파는 아줌마  
울상지어요

“엄마, 엄마 이 바나나  
먹기 싫어요.”

## 주먹만한 자몽

배 철 균(루가)

때르릉! 쉬는 시간.  
엄마가 싸주신 주먹만한 자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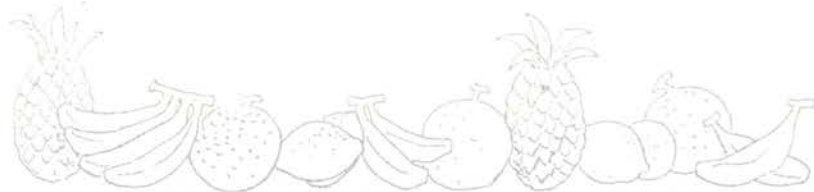
옆 짝꿍이랑 사이좋게 나눠먹어요  
암암 짹짹

다음 시간 자연 시간.  
내 짝이 배가 아프대요.

“철균아, 배아파.”  
“나두 배아파.”

예쁜 양호 선생님께서  
“다시는 이런 것 먹지 말아라.”

그래요. 나 이젠 자몽 안먹을 테어요  
새빨간 수박, 노오란 귤만 먹을테어요.



### 심사평

우리 상품에 대한 것들을 억지로 쓴 글들이 많았다.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났던 일들을 썼으면 좋았겠는데 글감을 나뉠 동떨어진 데에서 찾아 그렸다.

배철균의 '바나나'는 글감을 자기의 생활 안에서 찾아서 좋았다. 마지막 여기 이글을 친있게 해주었다.

•심사위원 김원석(아동문학가)

## 전국평협 사업계획 대 실적 비교표

| 계      획                                                                                                                                                                                                                                                                                                                                                                                                                                                                                            | 실      적                                                                                                                                                                                                                                                                                                                                                                                                                                                                                                                                                                                                                                                                                                                                                                                                                                                                                                                                                                                      |
|-----------------------------------------------------------------------------------------------------------------------------------------------------------------------------------------------------------------------------------------------------------------------------------------------------------------------------------------------------------------------------------------------------------------------------------------------------------------------------------------------------|-----------------------------------------------------------------------------------------------------------------------------------------------------------------------------------------------------------------------------------------------------------------------------------------------------------------------------------------------------------------------------------------------------------------------------------------------------------------------------------------------------------------------------------------------------------------------------------------------------------------------------------------------------------------------------------------------------------------------------------------------------------------------------------------------------------------------------------------------------------------------------------------------------------------------------------------------------------------------------------------------|
| <p>1. 회의</p> <p>가. 정기총회<br/> 일 시 : 1993. 2. 27.<br/> 장 소 :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br/> 참가범위 : 교구평협회장단, 전국 5개<br/>           상임단체 각 1명, 각분과위<br/>           원장<br/> 안 건 : 1호 - 1992년도 사업 및 결산<br/>           감사 보고<br/>           2호 - 1993년도 사업계획 및<br/>           예산안 심의<br/>           3호 - 기 타</p> <p>나. 상임위원회</p> <p>1) 연중 4회(4, 6, 8, 10월) 각 교구 순회<br/>           개최<br/> 2) 매회 개최시 교구 평협 및 단체의 현<br/>           황과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하여 상호<br/>           정보의 교환으로 각 평협간의 친교와<br/>           활성화에 활용토록 한다.</p> | <p>1. 회 의</p> <p>가. 정기총회 (제 26 회)<br/> 일 시 : 1993. 2. 27. 15:00-18:00<br/> 장 소 :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br/> 참가범위 : 교구평협 회장단 전국 5개<br/>           상임위 단체장 각 1명, 각 분<br/>           과위원장<br/> 안 건 : 1호 - 1992년도 사업실적 및<br/>           결산 승인<br/>           2호 - 92년도 사업 및 결산<br/>           감사 보고<br/>           3호 - 93년도 사업 계획 및<br/>           예산 심의<br/>           4호 - 기 타<br/>           (1) 우리상품쓰기 결의문 채택<br/>           (2) 4월 전국평협 상임위원회<br/>           의를 제주에서, 6월 회의<br/>           를 전주에서 개최기로 합<br/>           의함.<br/>           (3) 우리상품쓰기 운동을 전<br/>           국 성당과 단체에 확산되<br/>           도록 추계 주교회의에 건<br/>           의기로 함.<br/>           (4) 저녁식사는 로얄호텔에서<br/>           하였으며 서울에서 주무<br/>           실 지방교구 회장님들의<br/>           숙박편의를 제공하였음.</p> <p>나 상임위원회<br/> &lt;제 1 차 회의&gt;<br/> 일 시 : 93. 4/17 - 4/18 (1박 2일)<br/> 장 소 : 제주교회 평협 (이시돌 회관)<br/> 참가범위 : 15개 교구중 12개 교구 평협<br/>           회장단 26명, 5개 상임위단체<br/>           중 3명과 7개분과위원장 중 5<br/>           명 배척으로 36명 참석</p> |

| 계 회 | 실 적                                                                                                                                                                                                                                                                                                                                                                                                                                                                                                                                                                                                     |
|-----|---------------------------------------------------------------------------------------------------------------------------------------------------------------------------------------------------------------------------------------------------------------------------------------------------------------------------------------------------------------------------------------------------------------------------------------------------------------------------------------------------------------------------------------------------------------------------------------------------------|
|     | <p>회의진행 : 말씀의 전례-제주평협 주관 시작기도와 회장인사.<br/> 지도신부님의 말씀이 있었고 참석인사 소개와 제주교구 평협 임원진 소개에 이어, 제주교구 현황(별도 유인물)을 설명하다.</p> <p>- 사무국장은 전차 회의 결과 보고를 간략히 하고 본 회의 토의에 들어가다.</p> <p>안 건 : 1호 - 분과위원회의 신설 인준 및 임원 개선의 건을 상정.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임원 개선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구한바, 만장일치 재청 삼청으로 가결하다. 신설 분과위원회는 문화분과(위)이며 임원개선 내용은 부회장에 정정순(여성연합회장), 국제협력 분과위원장에 오용길(서울평협 부회장), 기획분과위원장에 정구영(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 사회정의분과위원장에 김진석(서울평협 사회정의분과위원장)의 선임에 동의하다. 이어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은 회장에서 인사하고 박수를 받다.</p> <p>2호 -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진행 사항 보고 및 금후 구체 방안 논의의 건을 상정하다.</p> <p>✧ 포스타 도안을 보이며 인쇄 배포기로 하자는 제안에 동의.</p> <p>✧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문에 대한 회신받은 사실 보고.</p> |

| 계 획 | 실 적                                                                                                                                                                                                                                                                                                                                                                                                                                                                                                                                                                                                                                                                                                                                                                                                                                                                       |
|-----|---------------------------------------------------------------------------------------------------------------------------------------------------------------------------------------------------------------------------------------------------------------------------------------------------------------------------------------------------------------------------------------------------------------------------------------------------------------------------------------------------------------------------------------------------------------------------------------------------------------------------------------------------------------------------------------------------------------------------------------------------------------------------------------------------------------------------------------------------------------------------|
|     | <p>           ◆ “우리상품 우리가 씹시다.”<br/>           문예작품을 각계 각층(초·중·고·일반구분)으로 부터 공모하자는 안에 동의하다.<br/>           ◆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TV 출연등도 하기로 하다.         </p> <p>           3호 - 가톨릭대상 후보 추천을 상정하고 각계 각층에서 숨은 작은 그리스도를 발굴해 각교구에서 각각 (사랑, 정의, 문화)1명씩 추천해서 연내 심사해서 시상하기로 하는 안에 모두 동의하다.         </p> <p>           4호 - 1.3운동 전개의 건<br/>           (대구 대교구 제안사항)<br/>           (1) 자기부터 성화<br/>           (2)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 전교(입교)하기<br/>           (3) 한사람이 한사람이상 냉담자 회두시키기등의 운동을 전국차원으로 하기로 하다.         </p> <p>           5호 - 신자 자질 향상<br/>           (의식개혁)<br/>           (수원교구 제안사항)<br/>           (1) 성서 휴대하기<br/>           (2) 찬미예수로 인사하기<br/>           (3) 성호긋기 (모든일, 모임 시작과 끝에)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자는데 동의하다.         </p> <p>           6호 - 기 타<br/>           (1) 다음 회의 일정은 6 / 12 - 6 / 13. 전주교구 평협에서 개최기로 하다.<br/>           (2) 신부님들 권위주의의 배격과 평신도 위상 찾기를         </p> |

| 계 획 | 실 적                                                                                                                                                                                                                                                                                                                                                                                                                                                                                                                                                                                                                                                                                                                                                                     |
|-----|-------------------------------------------------------------------------------------------------------------------------------------------------------------------------------------------------------------------------------------------------------------------------------------------------------------------------------------------------------------------------------------------------------------------------------------------------------------------------------------------------------------------------------------------------------------------------------------------------------------------------------------------------------------------------------------------------------------------------------------------------------------------------|
|     | <p>교회 개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함에(인천 신현대회장), 지도 김인성 신부님들이 평신도의 의견(중심으로)을 참고로 사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다.</p> <p>- 그날 저녁 친교의 모임을 가졌으며, 다음날 4/17(일) 정난주 순교자 묘소 참배를 하고 김창렬 주교님께서 마련하신 오찬후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p> <p>&lt;제 2 차 회의&gt;<br/> 일 시 : 1993. 6/12-6/13(1박 2일)<br/> 장 소 : 전주교구 평협(나바위 교육관)<br/> 참석범위 : 전국 및 각 교구 평협회장단<br/> 전국평협 단체장, 분과위원장 37명</p> <p>시작기도 (류덕희 사무국장 인도)- 회장 (이관진) 인사-토의안건</p> <p>&lt;토의안건&gt;<br/> 1호 안건 :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전개 방안 강구의 건</p> <p>이관진 회장은 이 운동의 확산으로 많은 성과가 있다는 예화를 설명하고 그간 회장단에게 위임한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역과 편성표를 설명하고 타 교구도 이에 준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각 본당 마다에서도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후 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취지문의 낭독과 조직기구표와 구성원 내역등을 상세히 설명케 하자, 원안대로 무수정 채택기로 결의하다. 이어서, 회장은 우리상품쓰기 포스타와 스티카를 배부하니 각 교구별 부착식을 가지는 여부는 교구 형편대로 하고 이 운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자고 하여 일동의 찬의를 얻다.</p> |

| 계 획 | 실 적                                                                                                                                                                                                                                                                                                                                                                                                                                                                                                                                                                                                                                                                                                                                               |
|-----|---------------------------------------------------------------------------------------------------------------------------------------------------------------------------------------------------------------------------------------------------------------------------------------------------------------------------------------------------------------------------------------------------------------------------------------------------------------------------------------------------------------------------------------------------------------------------------------------------------------------------------------------------------------------------------------------------------------------------------------------------|
|     | <p>아울러 류 사무국장은 지난 4/24 서울평협 총회장단 연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과 교회 이웃과 직장에서 실천 과제를 찾아본 사례들을 참고로 보고 하였음. 따라서 이 운동의 포스타와 스티카등을 전국의 각 본당과 가정과 상가등 여러곳에 부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고 하였으며 이 운동의 취지문은 각 교구 평협에서 인쇄하여 적의 활용토록 하자는데 모두 찬성하다.</p> <p>2호 안건 : 평협 25주년 기념 행사 검토의 건</p> <p>이 안건 제안 설명에 전국교구의 특산물 전시회 등을 서울이나 대전 등지에서 가지는 안이 나왔으나 9월(제3차)상임위원회(원주평협에서 개최 예정)때 논의키로 하고 유보 결의하다.</p> <p>3호 안건 : 금품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의 건을 상정하고(여성 연합회에서 제안 사항임)</p> <p>이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받아들여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다.</p> <p>4호 안건 : 가톨릭대상 후보 추천의 건 각 교구에서 숨은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추석안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직격자 물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p> <p>5호 안건 : 평화방송 지방국 증설 건의의 건을 상정하고 그간 광주·대구교구 신청에 대구교구 1개소 승인 경위와 천주교(광주지역)에 1개의 방송국 추가인가등이 타당하다는 건의문(김영삼 대통령께 보낸 공개서한)내용을 전폭 지지 결의하고 김 추기경 건의문에 대한</p> |

| 계 획 | 실 적                                                                                                                                                                                                                                                                                                                                                                                                                                                                                                                                                                                                                                                                                                                                                                                                                                             |
|-----|-------------------------------------------------------------------------------------------------------------------------------------------------------------------------------------------------------------------------------------------------------------------------------------------------------------------------------------------------------------------------------------------------------------------------------------------------------------------------------------------------------------------------------------------------------------------------------------------------------------------------------------------------------------------------------------------------------------------------------------------------------------------------------------------------------------------------------------------------|
|     | <p>회신을 보고 우리 입장을 천명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다.</p> <p>6호 안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티카 배부한다는 내용 설명</li> <li>(2) 다음 상임위원회는 9/4 원주교구 평협에서 개최기로 하고</li> <li>(3) 각 교구 평협의 유익한 운동은 각 교구평협으로 알려져 주지시키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고 산회하다.</li> </ol> <p>&lt;제 3 차 회의&gt;</p> <p>일 시 : 1993. 9/4~9/5(1박 2일)</p> <p>장 소 : 원주교구 평협(배론 성지)</p> <p>참석인원 : 서울 3명, 대구 2명, 대전 1명, 마산 4명, 수원 3명, 안동 2명, 원주 2명, 청주 1명, 춘천 1명, 레지오 1명, 20명과 분과위원장 및 사무국 7명과 지도신부 2명, 기자 2명, 계 33명과 원주평협 임원진 20여명이 함께 함.</p> <p>회의시작기도 : 류덕희 사무국장 인도<br/>회장인사-신부님 말씀의 순으로 진행</p> <p>&lt;토의안건&gt;</p> <p>1호 안건 : 우리상품쓰기 전국평협 주최 각 교구 특산물 바자회 개최 여부의 건에 대하여는 바자회는 어렵고 홍보에 치중하여 의식개혁이 되도록 유도하며 각 교구 또는 본당별 바자회 등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나 모임때 주보와 평협 회보에 널리 홍보하기로 하고 바자회는 안하기로 하다.</p> <p>2호 안건 : 평신도의 날 포스타 및 강론자료 사전 준비의 건에 대하여는 평신도 주일 1,2 독서와 복음 및 미사 본기도와 봉헌기도 등 전례까지도 평신도 주일에</p> |

| 계 획                                                                                                | 실 적                                                                                                                                                                                                                                                                                                                                                                                                                                                                                                                                                                                                         |
|----------------------------------------------------------------------------------------------------|-------------------------------------------------------------------------------------------------------------------------------------------------------------------------------------------------------------------------------------------------------------------------------------------------------------------------------------------------------------------------------------------------------------------------------------------------------------------------------------------------------------------------------------------------------------------------------------------------------------|
|                                                                                                    | <p>맞도록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각 교구장 신년도 사목지침을 전국평협으로 모아서 우리상품쓰기와 생명 환경 문제 및 도덕성 회복등을 내용으로 담은 강론 자료를 사전에 작성 배부하며 전국교구 후보에 일제히 게재하여 참고가 되고 인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p> <p>3호 안건 : 기타 교구 제안 사항</p> <p>(1) 수원교구 조태로 회장 제안사항 : 통일성금 모금 관계 제안<br/>여러가지 북한 사정 논의 하였으며 금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다.</p> <p>(2) 대전교구 오만진 회장 제안사항 : 천주교 신자 부정에 가담자 속출보도 유감 표명에 우리 모두 진정한 의식개혁과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도덕성 회복에 임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다.</p> <p>(3) 평화방송 지방국 증설에 따라 6/12 전주회의의 결과 문의에 고위층(추기경) : (청와대)의 양해 사항을 간접 전달하고 이 문제의 후속 거론은 유보하기로 하다.</p> <p>(4) 대전 엑스포에 수고한 대전교구 평협 오만진 회장께 노고 치하하고 9·19(일) 바키칸의 날 행사에 모두 오셔서 만자고 하다.</p> |
| <p>2. 신뢰회복운동<br/>가. 신뢰회복(내탓이오 포함)을 위한 계몽 운동을 계속 실시<br/>나. 지방자치 선거의 공정 일시와 공명 선거 캠페인(선거가 있을 경우)</p> | <p>2. 신뢰회복운동<br/>가. 내탓이오 스티카 계속 배부 중</p>                                                                                                                                                                                                                                                                                                                                                                                                                                                                                                                                                                    |

| 계 획                                                                                                              | 실 적                                                                                                                                                                                                                                                                                                                                                                                                                              |              |              |           |           |           |  |         |  |
|------------------------------------------------------------------------------------------------------------------|----------------------------------------------------------------------------------------------------------------------------------------------------------------------------------------------------------------------------------------------------------------------------------------------------------------------------------------------------------------------------------------------------------------------------------|--------------|--------------|-----------|-----------|-----------|--|---------|--|
| <p>3. 우리상품쓰기 운동<br/>우리상품쓰기의 생활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각 교구 평협과 본당 사목회를 통하여 전개</p>                                            | <p>3. 우리상품쓰기운동<br/>우리상품쓰기운동의 전개에 즈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리상품쓰기 결의문 채택</li> <li>② 취지문</li> <li>③ 포스타</li> <li>④ 스티카</li> <li>⑤ 우리상품쓰기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전국 및 각 교구 본당 단체)</li> <li>⑥ 각 교구 특산물 소개로 도농교류에 박차 (각 교구 및 본당 간)</li> <li>⑦ 교구 특성에 맞는 바자회 개최(전주교구)</li> <li>⑧ 각종 모임과 회의끝에 공지사항으로 우리 상품쓰기운동의 취지 주지 시킴.</li> <li>⑨ UR 협상 체결 무렵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모임” 각 교구 본당 실정에 따라 개최<br/>- 서울, 마산, 안동, 청주교구 등 -</li> </ol> |              |              |           |           |           |  |         |  |
| <p>4. 교구간의 일치<br/>교구간의 친선 교류를 위해 상호방문 등으로 이해와 친교로 일치를 도모한다.</p>                                                  | <p>4. 교구간의 일치<br/>전구평협 상임위원회의를 각 교구 순회 개최하여 해당 교구의 현황 파악과 성지순례 및 친교 모임등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음.</p> <p>4월 - 제주교구 평협<br/>6월 - 전주교구 평협<br/>9월 - 원주교구 평협</p>                                                                                                                                                                                                                                                                                  |              |              |           |           |           |  |         |  |
| <p>5. 사랑과 나눔<br/>불우이웃과 소년소녀가장돕기를 계속 실시</p>                                                                       | <p>5. 사랑과 나눔</p> <p>(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지원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p> <table border="1" data-bbox="714 1321 1215 1477"> <tr> <td>청주교구 평협 90만원</td> <td>안동교구 평협 90만원</td> </tr> <tr> <td>춘천 " 90만원</td> <td>제주 " 90만원</td> </tr> <tr> <td>원주 " 90만원</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계 450만원</td> </tr> </table> <p>(2) 불우단체돕기 90만원 지원하였음.</p>                                                          | 청주교구 평협 90만원 | 안동교구 평협 90만원 | 춘천 " 90만원 | 제주 " 90만원 | 원주 " 90만원 |  | 계 450만원 |  |
| 청주교구 평협 90만원                                                                                                     | 안동교구 평협 90만원                                                                                                                                                                                                                                                                                                                                                                                                                     |              |              |           |           |           |  |         |  |
| 춘천 " 90만원                                                                                                        | 제주 " 90만원                                                                                                                                                                                                                                                                                                                                                                                                                        |              |              |           |           |           |  |         |  |
| 원주 " 90만원                                                                                                        |                                                                                                                                                                                                                                                                                                                                                                                                                                  |              |              |           |           |           |  |         |  |
| 계 450만원                                                                                                          |                                                                                                                                                                                                                                                                                                                                                                                                                                  |              |              |           |           |           |  |         |  |
| <p>6. 가톨릭대상<br/>현세의 삶속에서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함으로써 사랑의 참 진리를 전파한다.<br/>※ 사랑, 정의, 문화의 3개 부문</p> | <p>6. 가톨릭대상<br/>각 교구로부터의 후보자 신청이 없으므로 금년도에는 시상 대상자를 찾지 않고 내년(94년도)부터는 이의 발굴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함.</p>                                                                                                                                                                                                                                                                                                                              |              |              |           |           |           |  |         |  |

| 계 획                                                                                                                                          | 실 적                                                                                                                                                                                                                  |
|----------------------------------------------------------------------------------------------------------------------------------------------|----------------------------------------------------------------------------------------------------------------------------------------------------------------------------------------------------------------------|
| 7. 북한선교<br>북한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7. 북한선교<br>북한선교를 위하여 200만원을 북한선교회 (위원장 이동호 아빠스)에 전달하였음.                                                                                                                                                              |
| 8. 국제교류<br>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교류와 친선을 도모한다.                                                                                                    | 8. 국제교류<br>(1)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평신도 교우 협회 친선 모임에 한홍순 부회장이 참석하였음. (93. 11/19 ~ 11/24)<br>(2) 바티칸 시국에서 평신도 위원회의 참석 (한홍순 평신도 위원)                                                                                           |
| 9.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br>가. 평신도의 날 : 포스타와 강론 자료를 배포하여 평신도의 위상을 일깨우고 평협 운동을 전개한다.<br>나. 각종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 발전에 노력한다.                             | 9.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br>가. 평신도의 날 :<br>① 포스타와 강론자료를 배부하여 평신도 지도자가 직접 강론하도록 하였음.<br>② 평신도의 날 기념 행사(미사와 사랑의 만찬)를 실시하여 평신도 지도자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였음.(서울의 경우)<br>③ 각종 본당 행사를 자율적으로 전개하여 이날을 기념토록 하였음.<br>나. 각 교구와 본당 실정에 맞게 전개하고 있음. |
| 10. 평협소식<br>가. 평협회보를 발간하여 평협 활동을 홍보한다.<br>나. 매주 각 교구 주보를 교환하므로써 상호 정보 교환을 도모한다.                                                              | 10. 평협소식<br>가. 94년 2월 <한국 평협>발간<br>나. 주보 교환도 용이한 문제가 아님.<br>(실행하는 교구 - 광주, 대구, 원주, 인천)                                                                                                                               |
| 11. 사무국 운영<br>가. 각 교구 평협 및 전국단체의 사업 추진 정보를 전달 하므로써 각 교구 평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br>나. 협의체로서 교량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br>다. 임원명부를 발간 교구하여 상호 친교에 활용토록 한다. | 11. 사무국 운영<br>가. 나름대로 각 교구 사업 정보를 교환하나 의무적인 이행 사항이 아니므로 실적은 별로 없는 편임.<br>나. 협의체로서의 교량역할은 잘하고 있음.<br>다. 임원 명부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이행은 안되고 있는 실정임.                                                                    |

## 한국 평협 임원

| 직책명                  | 성본명              | 전화번호                               | 직책명                  | 성본명              | 전화번호                               |
|----------------------|------------------|------------------------------------|----------------------|------------------|------------------------------------|
| 위원장주교                | 鄭 鎭 奭<br>(니콜라오)  | 0431-53-8161                       | 지도신부                 | 金 仁 成<br>(요한비안네) | 771-7600<br>(교) 2209               |
| 고 문                  | 柳 洪 烈<br>(라우렌시오) | 자) 926-1505                        | 고 문                  | 李 昌 馥<br>(놀베르토)  | 자) 782-0028                        |
| 고 문                  | 嚴 翼 彩<br>(요한)    | 자) 584-7613                        | 고 문                  | 韓 庸 熙<br>(암브로시오) | 자) 387-0235                        |
| 고 문                  | 朴 定 勳<br>(요한)    | 자) 762-1350                        | 회 장                  | 李 寬 鎭<br>(베드로)   | 자) 784-7744<br>사) 782-5801         |
| 부 회 장                | 韓 弘 淳<br>(토마스)   | 자) 542-5292<br>학) 961-4106         | 부 회 장                | 孫 仁 鎬<br>(프란치스코) | 자) 053-622-3223<br>사) 053-425-3005 |
| 부 회 장                | 金 永 鎭<br>(토마스)   | 자) 062-363-4968<br>사) 062-232-6464 | 부 회 장                | 趙 泰 魯<br>(간디도)   | 자) 0343-71-3874                    |
| 부 회 장                | 趙 肯 陽<br>(마태오)   | 자) 548-4357<br>사) 776-8520         | 부 회 장                | 鄭 貞 順<br>(요안나)   | 자) 423-4994                        |
| 감 사                  | 申 鉉 大<br>(나자로)   | 자) 032-82-2233<br>사) 032-420-1001  | 감 사                  | 朴 善 弘<br>(마지아)   | 자) 064-46-0100<br>사) 064-42-1712   |
| 사 무 총 장              | 柳 愐 熙<br>(모이세)   | 자) 713-6113<br>사) 576-6001         | 기 획 분 과<br>위 원 장     | 鄭 九 永<br>(요한)    | 자) 407-0693<br>사) 790-2903         |
| 교 육 분 과<br>위 원 장     | 許 必 秀<br>(아오스딩)  | 자) 457-4514<br>사) 296-8001         | 홍 보 분 과<br>위 원 장     | 崔 弘 竣<br>(파비아노)  | 자) 652-5732<br>사) 781-3168         |
| 사 회 복 지 분 과<br>위 원 장 | 許 埻<br>(요한금구)    | 자) 0343-84-7766                    | 청 소 년 분 과<br>위 원 장   | 姜 秀 吉<br>(그레고리오) | 자) 424-2673<br>사) 565-3311         |
| 국 제 분 과<br>위 원 장     | 吳 龍 吉<br>(시몬)    | 자) 785-0070<br>사) 777-2013         | 사 회 정 의 분 과<br>위 원 장 | 金 珍 奭<br>(실베스트)  | 자) 591-2582<br>사) 512-4567         |
| 문 화 분 과<br>위 원 장     | 李 潤 子<br>(루치아)   | 자) 298-0441<br>사) 778-7671         |                      |                  |                                    |

## 교구 평협 회장

| 교 구 명   | 성 본 명            | 전 화 번 호                                        | 교 구 명   | 성 본 명            | 전 화 번 호                                                  |
|---------|------------------|------------------------------------------------|---------|------------------|----------------------------------------------------------|
| 서울대교구   | 李 寬 鎭<br>(베 드 로) | 자) 784-7744<br>평협) 782-5801                    | 대구대교구   | 孫 仁 鎬<br>(프란치스코) | 자) 053-622-3223<br>사) 425-3005<br>평협) 255-2602           |
| 광주대교구   | 金 永 鎭<br>(토 마 스) | 자) 062-363-4968<br>평협) 232-6464                | 마 산 교 구 | 孫 春 秀<br>(베 드 로) | 자) 0551- 46-6633<br>사) 946-7000<br>평협) 47-3058           |
| 대 전 교 구 | 吳 萬 鎭<br>(아가비오)  | 자) 042-484-2625<br>사) 821-6728<br>평협) 252-7856 | 수 원 교 구 | 趙 泰 魯<br>(간 디 도) | 자) 0343- 71-3874<br>평협) 0331-<br>46-3660                 |
| 부 산 교 구 | 韓 載 琴<br>(베 드 로) | 자) 051-804-4044<br>사) 514-2371<br>평협) 462-5734 | 원 주 교 구 | 李 啓 烈<br>(아오스딩)  | 자) 0371- 42-6500<br>사) 0371- 42-7315                     |
| 안 동 교 구 | 權 武 榮<br>(비 오)   | 자) 0571- 2-9710<br>사) 52-0903                  | 전 주 교 구 | 黃 義 玉<br>(과 로)   | 자) 0652-77-3366<br>평협) 85-2935                           |
| 인 천 교 구 | 金 健 一<br>(요 한)   | 자) 032-866-4500<br>사) 510-5546<br>평협) 762-5132 | 청 주 교 구 | 朴 鐘 久<br>(베 드 로) | 자) 0431-223-0892<br>사) 223-3396<br>평협) 53-8164           |
| 제 주 교 구 | 朴 善 弘<br>(마 지 아) | 자) 064- 46-0100<br>사) 42-1712<br>평협) 52-9076   | 춘 천 교 구 | 尹 柱 元<br>(마 태 오) | 자) 0361-261-1668<br>사) 0366- 32-7913<br>평협) 0361-53-8582 |
| 군 중 교 구 | 편 장 원<br>(도미니코)  | 사) 748-2130                                    |         |                  |                                                          |

## 전국 평협 단체

\* 표는 상임위원 단체임.

| 단 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단 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 국제마리아의<br>사업회(남)    | 미 켈 레            | 332-1010                       | 국제마리아의<br>사업회(여)   | 반 나 라 이           | 232-2460                                |
| 간 호 협 회             | 이 향 련<br>(마 리 아) | 자) 814-7941<br>사) 961-0307     | 결 핵 사 업<br>연 합 회   | 金錫佑신부<br>(베 드 로)  | 자) 0556-72-6333<br>사) 0556-72-6607      |
| 나 사 업<br>연 합 회      | 선 우 경 식<br>(요 셉) | 사) 778-8155                    | 노동청년회              | 이 재 경<br>(대건안드레아) | 자) 815-2483                             |
| 가 톨 릭<br>농 민 회      | 장 태 원<br>(바 오 로) | 042-73-4040                    | 맹인선교회              | 이 미 효<br>(요 한)    | 자) 753-5692<br>사) 451-0333,<br>451-0124 |
| 미술가협회               | 崔 鍾 泰<br>(요 셉)   | 자) 324-5286<br>사) 880-7493     | 병 원 협 회            | 김대군 신부<br>(바드리시오) | 자) 590-1001                             |
| *성령쇄신<br>봉 사 회      | 김택구 신부<br>(루도비꼬) | 자) 606-1784                    | *실업인회              | 張 德 鎭<br>(요 한)    | 자) 815-3617<br>사) 557-8222              |
| 아 동 복 지<br>협 의 회    | 옥 잉 애            | 사) 0371-45-1489                | 언 론 인 회            | 김 희 진<br>(안토니오)   | 자) 562-6292<br>사) 3604-124              |
| 여성연합회               | 鄭 貞 順<br>(요 안 나) | 자) 423-4994<br>사) 778-7543     | 의 사 회              | 朴 龍 輝<br>(미 카 엘)  | 자) 337-0839<br>사) 590-1551              |
| 중 등 학 교<br>장 회      | 李 錫 殷<br>(도미니꼬)  | 자) 522-9863<br>사) 762-7204     | *꾸르실료              | 유 양 수<br>(요 셉)    | 자) 597-0573<br>사) 553-0313              |
| *레지오마리아<br>(서울제나투스) | 趙 肯 陽<br>(마 태 오) | 자) 548-4357<br>사) 776-8520     | 레지오마리아<br>(광주제나투스) | 金 生 琦<br>(보 스 꼬)  | 자) 062-672-2666<br>사) 062-227-7128      |
| *M·E전국<br>대 표 부 부   | 孫炳斗 부부<br>박경자    | 자) 553-9687<br>사) 784-8859     | 빈첸시오<br>아바오로회      | 任 富 彬<br>(바 오 로)  | 자) 0346-64-6157<br>사) 778-4476          |
| M·B·W<br>전 국 회 장    | 송주석신부<br>(안셀모)   | 자) 032-546-0324<br>사) 839-1003 | 군중후원회              | 이 관 진<br>(베 드 로)  | 자) 784-7744<br>사) 782-5801              |

## 사 무 국

| 직 책 명   | 성 본 명             | 전 화 번 호                    | 직 책 명 | 성 본 명            | 전 화 번 호                    |
|---------|-------------------|----------------------------|-------|------------------|----------------------------|
| 사 무 국 장 | 康 周 熙<br>(요 한)    | 자) 878-5049<br>사) 777-2013 | 서 기   | 李 賢 周<br>(루 갈 다) | 자) 461-7978<br>사) 777-2013 |
| 서 기     | 金 昭 希<br>(큰아기마리아) | 자) 313-7623<br>사) 777-2013 |       |                  |                            |





한 국 평 협

통권 제 31 호

---

발 행 일 / 1994년 2월 25일

발 행 인 / 이관진(베드로)

편 집 인 / 한국평협 홍보분과 위원회

편집위원 / 최홍준 · 김영걸

사식 · 인쇄 / 도서출판 오늘의 말씀사

☎ 277-4776 Fax 268-7007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서울 · 중구 명동2가1 가톨릭회관 5층

☎ 777-2013, 771-76 교) 2454.2455, Fax 778-7427



**우리 상품  
우리가 씬시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